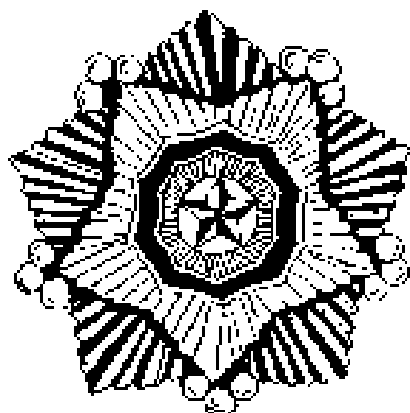




9

주체 96 (2007)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6(2007)년 제9호

(루계 제 719 호)

◆◆◆◆◆◆◆◆◆◆ 차 례 ◆◆◆◆◆◆◆◆◆◆

| | |
|--|----|
| 조국애를 깊이있게 구현하는것은 선군시대 문학의 중요한 과업 | 3 |
| 야전차소리 | 5 |
| 향 토 | 6 |
| 공화국기여, 너는 조국의 모습 | 7 |
| 우리 장군님 오셨다 | 8 |
| 온 나라 처녀총각 부러워하네 | 8 |
| 아, 어머니의 한생앞에 | 9 |
| 반 격 | 10 |
|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 21 |
| 나무는 푸르싱싱하게 자란다 | 21 |
| 주체문학의 대강 | 22 |
| 그 사랑에 뜨거운 땅 | 22 |
| 공화국창건의 나날에 | 23 |
| 어제날의 평범한 농민을 세계적인 작가로(1) | 24 |
| 새로 찾아주신 혁명사적지 | 25 |
| 황금산의 소원 | 26 |
| 원화리의 전설 | 28 |
| 전선길에 버이삭 설레이네 | 29 |
| 백두산위인들의 숭고한 후대관을 칭송한 감동깊은 시형상 | 30 |

| | |
|--------------------------------------|----|
| 영원히 병사로 살자 | 32 |
| 합창음악의 60 년사에 대한 불멸의 서사시적화폭 | 33 |
| 경구, 격언 | 37 |
| 왜가리떼 날아들 때 | 38 |
| 그윽한 정서를 자아내는 코스모스 | 50 |
| 인민사랑의 절승 칠보산 | 51 |
| 한쪽의 유화앞에서 | 53 |
| 강선이 들려주는 이야기 | 54 |
| 우리 집 가보 | 54 |
| 조국을 실은 천리마 | 54 |
| 구월산의 진정 | 54 |
| 진달래 피는 땅 | 55 |
| 우리 사는 이 세월을 | 64 |
| 《령북사람》 | 65 |
| 향토애는 조국애 | 66 |
| 돌칸한증 | 67 |
| 승리한 병사는 전호에 있다 | 75 |
| 빛나는 모습앞에서 | 75 |
| 삼국시기 식생활풍습 | 76 |
| 시의 흥취와 멋 | 77 |

조국애를 깊이있게 구현하는것은 선군시대 문학의 중요한 과업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기념일을 맞이하는 우리 작가들은 은혜로운 선군조국에서 살며 일하는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혁명적 자부심에 휩싸여있으며 조국의 통성변영을 위하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칠 결의를 굳게 다지고있다.

선군조선의 위용을 더욱 빛내이며 강성대국건설에로 사람들을 불러일으키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을 창작하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 과업의 하나는 조국애를 형상적으로 깊이있게 구현하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국을 주제로 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는것은 사람들이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조국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훌륭히 창작하며 조국애를 깊이있게 구현하는것은 선군시대 문학의 중요한 과업이다. 조국애를 깊이있게 구현하는데 사람들을 선군혁명충진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며 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을 훌륭히 창작해내기 위한 담보가 있다.

조국애를 구현하는것은 인간과 그 생활을 진실하게 그릴데 대한 인간학의 본성적요구이며 주체사실주의문학의 중요한 과업이다.

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어머니 품이며 참된 삶과 행복의 요람이다. 조국을 떠나서 사람들의 참된 삶과 진정한 행복이 꽃피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창작하시여 조국애를 구현하는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인 **《조선의 노래》**, **《사향가》**, **《반일전가》**,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등 작품들에는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 우리 조국땅을 강점한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조국의 해방을 이룩할데 대한 지향이 맥맥히 흘러넘치고 있다.

항일혁명문학예술을 력사적뿌리로, 젖줄기로 하고있는 우리 문학은 해방후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에서 우리 인민이 발휘한 숭고한 애국심, 조국애를 빛나게 구현하여왔으며 조국애는 우리의 주체문학에 흘러넘치는 중요한 주제사상적내용으로 되어있다. 조국애를 형상적으로 깊이있게 구현하는것은 선군시대 문학에서 더욱 중요

하고 절실한 과업으로 제기되고있다.

조국애를 구현하는것이 선군시대 문학에서 더욱 중요하고 절실한 요구로, 과업으로 제기되는것은 이 문학이 기초하고있는 선군사상, 선군혁명로선에 조국애가 뚜렷이 체현되어있는것과 관련된다. 선군사상, 선군혁명로선은 선군시대 문학의 기초이며 선군사상을 구현하고있는것은 선군문학의 본질적특징으로 된다.

그런데 선군문학의 기초로 되는 선군사상에는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뚜렷이 체현되어있다.

우리 당의 선군사상, 선군혁명로선은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인민군대를 핵심력량으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며 총대의 위력, 정치군사적위력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짓부셔버리고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며 조국의 통성변영을 이룩해나가는것을 기본요구로 하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이 총대를 앞세우고 군사중시로선을 확고하게 견지하고있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조국을 지켜내며 강성대국건설을 다그쳐 조국의 부강발전과 통성변영을 이룩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선군의 기치밑에 진행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은 조국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애국적인 투쟁이며 이 투쟁을 떠나서 사회주의조국의 안전도, 그 통성변영도 실현되지 못한다.

우리 문학은 선군사상, 선군혁명로선에 기초하고 있는것으로 하여 조국애를 형상적으로 깊이있게 구현할수 있게 되었다.

총서 **《불멸의 향도》** 중 장편소설 **《력사의 대하》**에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이 발광적으로 감행되고있는 엄혹한 정세에 대처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인민군무력을 더욱 강화하며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는 과정이 실재한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폭넓게 재현되어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오만무례한 전쟁책동에 대처하여 진행된 인민군기계화려단의 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수호하며 적들의 발악적인 전쟁책동을 짓부셔버리고 조국의 운명을 위기에서 구원하실 결심을 굳게 다지신다. 이러한 형상적화폭을 통하여 장편소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선군사상, 총대중시사상이야말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으로부터 사회

주의조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지켜내는 유일하게 옳은 사상이며 선군사상, 선군정치는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적복무정신을 집중적으로 체현하고있다는것을 형상적으로 뚜렷이 확증하였다.

보는바와 같이 선군사상, 선군혁명로선은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 조국의 안전을 수호하고 그 통성변영을 이룩하려는 지향과 투지를 체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그것을 사상적기초로 하고있는 선군문학은 조국애를 구현하는것을 절실한 요구로,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있는것이다.

조국애를 형상적으로 구현하는것이 선군시대문학의 절실한 요구로,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되는것은 다음으로 선군시대에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애국심, 조국애가 그 어느때보다도 전면적으로 발현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조국애는 사람들의 아름답고 숭고한 사상정신적특질이고 사람들이 지녀야 할 고상한 품모이지만 그것은 시대와 사회제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우리 시대, 선군시대에 이르러 인민대중의 애국심, 조국애가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전면적으로 발양되고있다. 그것은 선군시대에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 그 어느 시기보다 격렬하게, 첨예하게 벌어지고있는 현실적조건과 관련된다.

사람들의 애국심, 조국애는 자기 조국이 난관과 시련을 겪을 때 전면적으로 높이 발현된다. 외래침략자들의 침공으로 조국이 난관과 시련을 겪고있을 때, 자기 조국의 운명이 생사존망의 위기에 놓이게 될 때 사람들은 자기 조국을 더욱 열렬히 사랑하게 되며 조국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치려는 결의와 투지를 지니게 된다. 조선의 운명이 칠성관에 올랐던 해방전이나 미제무력침범자들을 반대하는 정의의 성전이 세차게 벌어졌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애국심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렬하게 분출되었던것이다.

선군시대에 우리 조국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고립압살책동은 극도에 이르고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는것이 매우 중대하고 첨예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오늘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영예로운 과업은 없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짓부셔버리고 사회주의조국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은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 애국적인 투쟁이며 이 투쟁과정에서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들의 애국심, 조국애가 전면적으로 높이 발현되고있다.

이와 같이 선군시대에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의 애국심, 조국애가 전면적으로 강렬하게 발현되고있는 현실적조건에서 그것을 형상대상으로 하고있는 선군문학에서 조국애를 깊이있게 구현하는것이 절실한 요구로,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되고있다.

작가들은 조국애를 깊이있게 구현하는것이 선군시대문학의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문학작품창작에서 조국애를 깊이있게 형상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할것이다.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문학작품에 조국애를 깊이있게 구현하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선군시대 인간들이 지닌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고있는 조국애를 잘 그려내는것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직성에 기초하고있는 조국애를 그릴데 대한 문제는 문학작품에서 조국애의 사상정신적원천과 그 본질적특성을 정확히 밝혀내기 위하여 필수적요구로 제기되고있다.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들이 발휘하고있는 조국애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직성을 기초로 하고있는데 그 본질적특성이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조국애는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다.

사회주의조국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빛내여나가는 주체의 조국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를 떠나서 사회주의조국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조국의 부강발전과 통성변영이 이루어질수 없다. 우리 군대와 인민들에게 있어서 조국은 곧 위대한 수령님이시며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다. 우리 군대와 인민들은 사회주의조국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을 그려보고있으며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고 그 통성변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며 수령님과 장군님을 우러러모시고 따를 결의로 가슴을 불태우고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당과 수령에 대한 충직성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지니고있는 조국애의 기초로, 그 위력과 생활력을 규제하는 근본요인으로 된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므로 선군시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조국애를 깊이있게 형상화하려면 조국애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고있다는것을 형상적으로 뚜렷이 밝혀내는데 힘과 열정을 기울여야 한다.

지난 시기 우리 문학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조국은 곧 위대한 수령님이시며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는데 조국의 안전을 지키며 조국의 부강발전과 통성변영을 이룩하기 위한 참다운 길이 있다는 진리를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밝혀냄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이 지니고있는 조국애의 본질적내용과 특성을 정확히 보여주었다.

작가들은 이러한 성과와 경험을 적극 살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충직성을 기초로, 핵으로 하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조국애를 형상하는데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여야 할것이다.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문학작품에서 조국애를 깊이있게 형상화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군대와 인민들이 지닌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예술적으로 감명깊게 그려내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선군시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조국애는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사랑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는데 그 중요한 특징이 있다. 사람들의 애국심, 조국애는 자기가 나서자란 조국의 현실에 대한 애착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자기가 나서자란 땅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참된 삶과 진정한 행복을 꽃피우는 사회제도가 마련되어있지 못하면 사람들이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닐수 없으며 조국의 통성변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려는 지향과 열정을 가질수 없다. 조국에 대한 사랑은 조국에 세워진 사회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긍정과 열렬한 옹호정신, 이 제도를 고수하고 빛내어나가려는 지향과 열정에서 집중적으로 발현된다.

선군시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조국애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이 제도를 고수하고 빛내어나가려는 지향과 열정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빛내여주시는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는 인민대중이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어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세상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우월한 사회제도이다. 우리 인민군인들과 인민들이 사회주의조국을 끝없이 귀중히 여기고 열렬히 사랑하며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것은 우리 나라에 세워진 사회주의제도가 자기들에게 참된 삶과 진정한 행복을 안겨주기때문이다. 사회주의제도를 떠나서 사회주의조국을 생각할수 없으며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사랑을 떠나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조국애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끝없이 귀중히 여기고 열렬히 사랑하며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고결한 사상정신적품도와 헌신적투쟁을 잘 그려내는것은 조국애를 깊이있게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필수적요구로 된다.

최근에 창작된 비전향장기수들을 주인공으로

한 장편소설들에서는 사회주의제도를 열렬히 사랑하는 주인공들의 영상을 통하여 조국애를 형상적으로 깊이있게 구현하였다. 이 장편소설들에서는 수십년간의 옥중생활과정에 혁명적신념과 의지를 굳건히 지켜낸 비전향장기수들이 지닌 공화국복반부의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그려내었으며 이러한 사랑과 신념을 지니였기에 그들이 온갖 고문과 위협, 회유를 물리치고 혁명적지조와 절개를 곳곳이 지켜나갈수 있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정신을 깊이있게 그려내는것은 문학작품에서 조국애를 형상적으로 진실하게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문학작품에 조국애를 깊이있게 구현하려면 작가들이 향토애, 공장애를 그리는데도 깊은 관심과 주의를 돌려야 한다.

조국애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존재하는것이 아니라 자기가 나서자란 고향과 고향의 산천, 부모처자에 대한 사랑에서, 자기가 일하는 공장과 일터를 귀중히 여기고 열렬히 사랑하는데서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선조들의 뼈가 묻혀있고 선렬들의 피와 땀이 깃들어있는 고향의 산과 들, 자기의 일터와 부모처자를 귀중히 여기지 않으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조국애를 지닐수 없으며 조국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칠수 없다. 향토애, 공장애를 잘 그려내는것은 문학작품에 조국애를 형상적으로 깊이있게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작가들은 조국애를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구현한 문학작품들을 더 훌륭히 창작해냄으로써 사람들을 선군혁명총진군운동으로 고무추동하며 강성대국건설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김정웅

가사

야전차소리

김정경

우리 아기 잠든 창가에 고운 별 비낀 밤
조용히 창문을 여니 어디선가 들려오네
고요가 흐르는 이 요람 지키여주시려
이밤도 전선길 가시는 장군님의 야전차소리

엄마들의 자장가로는 불구름 못 막아
고마움에 젖는 이 마음 조용히 흔들어주네

불비를 모르는 봄하늘 펼치여주시려
머나먼 전선길 가시는 장군님의 야전차소리

이 세상 저 먼곳에서 포성이 울려도
내 조국의 고요한 밤은 영원히 깨칠수 없네
세상에 다시 없는 사랑의 자장가여
오늘도 전선길 가시는 장군님의 야전차소리

향 토

김형준

어릴 때에는
어머니 젖품갈아 못 떠나던 향토
나이 들면
나이 들어 어릴적 요람갈아 못 잇는 향토
어려워도 기뻐도 마음에 안고사는 향토

어린시절
밟고 딛굴던 마당가의 흙
그것이 몸에 배여 살빛이 되고
한겨울에도 얼지 않는 맑은 샘
그것이 정기가 되고 눈빛이 된 향토

향토란 무엇인가
그것은 짧은 여름밤 마당가에서
혁명선렬들의 이야기를 피워올리던 쑥불연기던가
동지달 긴긴밤 온 식솔 모여앉아
똑딱 깨여먹던 감자엿맛이던가

향토란 무엇인가
그것은 한생토록 못 고치는 고향의 말투
옛말 베고 잠들던 할머니의 무릎
추억의 내물을 안고도는
물레방아 수차바퀴의 긴긴 노래

정녕, 향토란 무엇인가
한생토록 못 잇는 고향의 추억
선생님 손잡고 달리던 원숙의 들판
이슬젖은 들꽃 꺾어들고 찾아가던
고향의 언덕 혁명렬사들의 분묘...

하여 향토여 어머니는 나의 태를 품어
어느 돌밑에 묻었어도
향토는 내 운명의 태를 품지 않았다
입대하던 날 나를 바래워주던 어머니의
웃고름되어
나를 향해 흔들어주던 고향처녀의 꽃다발되어

내 향토를 사랑한다고 부디
부디 사랑의 고백을 하지 않았어도
향토와 나는 언제나 함께 있었다
눈내리는 전호와 건설장의 긴긴밤...
들어 싫지 않는 《감자바우》아명속에
얼마나 좋더냐 나의 향토
어디서나 나를 지켜보는 백두산의 높은 이마

선렬들의 피더운 땅 혁명전적지
산정의 백설, 험한 산세, 맑은 내물, 진달래계곡
누구나 못 잇는 내 고향의 긴긴 농마국수밭...

언제나 추억은 아름다운 법
허나 추억아닌 생활속에 내 사나니
조국의 외진 땅 내 고향 산촌에도
수령님과 장군님 다녀가신 자랑이 있어
길가의 돌조차 은금빛 뽀는 향토!

하여 향토여 너를 위해
옷은 비록 화려하게 못 입었어도
너의 산발마다 푸른 옷 입히려
청춘의 곧음 나무년륜으로 감아가며
한생을 산에 산 산사람들 있고

향토여 너를 위해
배는 굵아도 거름집만은 배불리워
들을 기름지워 난알을 가꾸며
나라를 받드는 그 행복에 취해
대를 물려 들에 산 들사람들 있어

장군님 어렵던 그 나날에 나의 정든 교장이라고
달리던 차를 멈추시고
길가의 웅달샘에 쪽박을 기울이신 향토
내가의 작은 발전소의 낮은 지붕마저도
마음속에 높이 안고가신 향토거니

하여 장군님의 선군혁명동지가 된 사람들
이름만 불러도 아, 이름만 불러도
시가 되고 노래가 되는 향토
추억만 하여도 아, 추억만 하여도
소설이 되고 영화가 되는 향토

향토여 너를 떠나 누리는 향락보다
향토여 너와 함께 겪는 고생 더 달아
나의 속에 네가 없다면 나는 향토 잃은 교아
너의 속에 내가 있다면 나는 행운아
설사 너의 품에 한알의 모래가 될지라도!

아, 향토를 잊은 애국자 있더냐
향토를 사랑하라 이 말은
이 말은 조국을 사랑하라는 말
조국을 사랑하라 이 말은

이 말은 향토를 사랑하라는 말

그렇다! 향토를 버리고

이국에 갔던 그들마저 끝내 돌아와

어머니! 하고 무릎꿇고 절을 하는 향토

잠들어도 향토의 노래 듣고싶어 베고자는 향토

죽어서도 앓길세라 안고가는 향토

하늘엔 별들이 빛나 아름답다 하지만

조국은 향토가 빛나 아름다운 법

그 하늘이 향토라면 인생은 그 하늘의 별

그 하늘이 품어 지켜주는 인생의 별은

늪음도 꺼짐도 없거니

그 아름다운 삶이 꽃피는 향토를

무궁세월에 빛내주시러

한생토록 《사향가》를 마음속에 부르시며

자신의 고향보다 우리의 향토를 더 많이 찾아

주신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랑의 자옥이 어린 땅

아!

이것이

아버이수령님 찾아주시고

아버이장군님 빛내주시는

나의 고향이다 우리의 향토다

공화국기여, 너는 조국의 모습

홍현양

공화국기여

감격에 겨울 때면

너를 눈물로 적신 사람들

최후결전에 나갈 때면

너를 피로 물들이며 이 땅을 지켰다

손에 들어잡으면

맹세의 붉은 피가 용솟음치고

하늘가에 펼쳐이는

너를 바라보면

내 조국강산이 네 아래 눈부시다

백두밀림의 차디찬 눈보라

우등불가에서 그려보던

그 붉은별이

조국의 모습으로 빛나고있어

너는 우리 수령님 안고오신 붉은기

너는 하나뿐인 우리의 생명이 아니냐

공화국기여

네 아래서 머슴군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보습을 땅에 대였고

네 아래서 로동자가

마치를 쥐고 공장의 주인으로 일어섰다

버릴수 없는것이 목숨이지만

그 한목숨 바쳐서라도

너를 원쑤에게 내맡기지 않은

그것이 우리의 의지였다

그것이 우리의 신념이었다

아, 장군님 안겨주신 총창우에

너를 휘날려가는것은

선군조국의 기치로

백두의 노을을 펼쳐가는 길

공화국기발이여

너는 숙일줄 모르는

백두산총대조국의 모습

만리대양을 헤쳐가는

작은 갑판우에도

너는 조국의 존엄으로 슬기로웁고

이역땅 조선사람들의 집뜨락에도

너는 민족의 긍지로 솟아있다

공화국기여

너는 나를 키운 어머니모습

너의 퍼덕임에 희망과 신심에 넘치는것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우리 듣기때문

너를 지켜 피끓는 청춘을 기꺼이 바치는것은

안겨준 어머니의 그 사랑

생명보다 더 귀중하기때문

언제나 푸른 하늘을 펼치는

너는 총대우에 붉게 타는 우리의 아침노을

그 빛으로 이 땅을 가꾸며

봄날만을 펼쳐가리라

창창한 래일을 안아오리라

우리 장군님 오셨다 외 1 편

박웅전

이날이 올줄은
누구나 다 알았다
우리 장군님 어제도
먼 전선길 계시었건만
나는 미루벌을 늘 생각한다
선군의 천만리길에서도
장군님 못 잊어 외워주신 땅

이날이 올줄은
누구나 다 믿었다
언제든 오시면 기쁨드리리라
보내주신 새 종자도 한껏 무르익히며
꿈결에도 그리워 기다렸거니

누구도 몰랐다
먼 전선길 떠나시여 수백리
이렇게도 이른새벽
소문없이 오실줄은

언제부터 온다는것이
오늘에야 왔다고
아버이장군님

차에서 내리시며 환히 웃으시자
아, 동산에 등실 솟는 아침해
일시에 풀리는 소원처럼
일시에 퍼지는 들판의 해빛
기쁨의 환희 하늘가득 노을로 피는데

대단히 벌이 넓다고
볼수록 자랑스런 풍경이라고
청년작업반의 작황을 보고는
장하다고 기록하다고
그리도 만족을 표시해주시니

가없는 등판이여
설레이라 끝없이 들먹이라
우리 장군님 해빛을 안고오셨다
또다시 비약할 놀라운 전변을
새벽처럼 앞당겨 안고오셨다

오, 미루벌
노래많은 땅
축복받은 대지여
장군님 오시면 천지개벽이 온다
장군님 오시면 만복이 온다

온 나라 처녀총각 부러워하네

온 나라 처녀들 부러워하네
온 나라 총각들 가슴설레네
아버이장군님께 기쁨드린
아름다운 미루벌처녀 이야기

일군들은 말씀 올렸네
처녀작업반장을 내세워주며
나이차도록
그리운 장군님께
풍작의 기쁨 보여드리기 전에
시집을 안 갈 결심이었다고

-그러니 오늘
내가 오기 잘했구만
아버이장군님 환히 웃으시며
한 처녀를 위해 오신듯

그 소식 바람처럼 퍼져가니
온 나라 처녀들 부러워하네

호탕히 하시는 말씀
이젠 시집을 잘 보내주자고
일군들과 약속도 하여주셨네

아, 처녀의 어깨우에
줄줄이 쏟아지는 해빛
수원들도 웃고
이삭들도 웃고
온 미루벌이 웃는데
처녀의 상기된 고운 얼굴엔
두줄기 흐르는 맑은 샘줄기

애써 키운 작황 보아주신것만도
더없이 고마우신데
미루벌을 위해 오시고도
온 나라 총각들 가슴설레네
아직은 그 뉘도 모르는
행운의 그 총각은 어데 있을까

처녀시절을 어떻게 살아
어떻게 시집을 가야 하는가를
말없이 보여준 미루벌처녀
온별, 온 나라가 축복해주었네
새색시반장과 제대군인신랑

아 위대한 어버이사랑이 낳은
선군전설의 꽃같은 주인공들
온 나라 처녀들 부러워하네
온 나라 총각들 가슴설레네

아, 어머니의 한생앞에

리명근

너무도 일찌기 우리결을 떠난 한생이어서
다시 불러보고 또 불러보는
아 김정숙어머니의 그 한생앞에
뜨거움이 북받쳐 목메이는 이 마음

서른두살, 생의 시작같은
너무도 짧은 한생이었건만
어머니는 하실수 있는 일
하셔야 할 일을
그 한생에 다 하시었거니

수령결사옹위의 첫 자리에서
수령결사옹위의 첫 전사로
이 나라 천만군민의 삶을
심장으로 가르치신 어머니

대를 이어 빛날 태양을
이 땅위에 반들어올리신
위업중에 제일 큰 위업을 쌓으신
아, 혁명의 어머니

반세기 넘어
세월은 멀리 흘러왔어도
오늘도 어머니는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결사관철의 그 정신을
동지사랑의 그 진정을

자신을 위해선
하루도 바친것 없이
수령을 위해 조국을 위해
동지를 위해 혁명을 위해
깡그리 바치신 그 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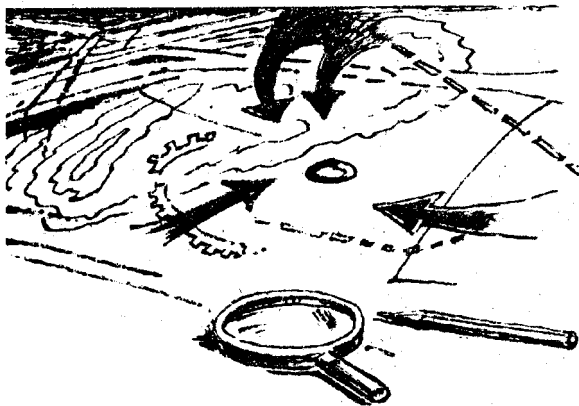
걸음걸음 값높이 산
순간순간을 빛나게 산
그래서 우리 따라배우며
자신을 비쳐보아야 할 한생이기에
우리의 생활속에
우리의 로력과 투쟁속에
언제나 함께 있는 어머니의 그 한생

한떨기 진달래를 보아도
사령부창가에 진달래를 피우시며
군모아래 웃음짓던 그 미소가 안겨오고
곱게 핀 버들개지를 보아도
소백수기슭에서 2월의 첫봄을 맞으시던
어머니의 그 환희가 어려와

바치신 삶이 너무도 빛나
남기신 위업이 너무도 위대해
정녕 어머니의 그 한생속에
조국을 놓고싶구나
천만삶과 행복을 다 놓고싶구나

아 그앞에
어머니의 그 한생앞에
머리에 인 백발이
너무도 송구하구나
애국에 대해 헌신에 대해
그 한생앞에서 총화지으면...

삼가 비쳐보며 살리라
고귀한 어머니의 한생앞에서
우리의 한생이
언제나 티없이 맑고맑도록!



반격

박윤

1953년 1월 24일 12시

한낮이 되어 최고사령부의 작전대기실에 두 장령이 급히 들어선다. 창문으로 흘러드는 차거운 빛에 두 장령의 어깨가 금빛으로 빛난다.

중기에 몸매가 미출하고 하관이 패인 얼굴이 검실검실한 오창목은 조심스레 손목시계를 들여다본 후 뻣뻣한 표정으로 서있는 박천에게로 성급히 돌아선다.

《어떻게 된거요? 국장동무, 동무네 친구들이 이런 순간에 아직도 어물거리다니... 미제침략군이 <시범전투>를 벌리겠다는데 우리가 알고있는 것이 대체 뭐요? 오늘 통신을 보면 미국회와 서방외교관들까지 앵무새들처럼 <시범전투>에 대해서 외우고있소. 이거 정말 어떻게 된거요?》

오창목은 말하는 과정에 점차 열이 올라 어조가 거칠어진다.

박천의 사색형의 얼굴에 피로움이 실린다. 그의 손에서 가치담배가 부서져 방바닥위에 떨어진 다. 그는 입술을 감쌀더니 주저하듯 망설이며 피엮피엮 설명한다.

《현재 상황을 리해해주시요.

<시범전투>설은 외부적으로 크게 떠들어대고있지만 실지 전투의 날자와 장소, 규모에 대해서는 미제침략군 국동군사령관 클라크와 미8군사령관만이 알고 있고 공격개시 한두시간전에야 극비밀리에 관하부대들에 전달하게 되어있습니다.》

오창목은 그 말에서 어떤 위안을 찾았는지 금시 낯색이 풀린다.

《그 정보는 정확한거요?》

《과학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미제침략군 8군사령부의 <련락선>과 믿음직한 우리 해외 <정찰출장소>가 움직이고있으니까요.》

박천의 모난 얼굴에 얼핏 여유있는 표정이 스쳐지나간다. 그는 군복 옷주머니에 손을 가져간

다. 오창목의 라이타가 절걱 소리를 낸다. 두줄기의 파란 연기가 그들의 사색의 실머리인듯 침묵이 서린 방안에 피어오른다.

《그러니 우린 2시간전엔 정보를 손에 쥐겠군. ...》

오창목은 안도와 초조감이 내뻐 가는 한숨을 내쉬더니 별안간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와들와들 놀란다.

그의 얼굴이 박천의 귀에 가까이 다가간다.

《이보우 박동무, 난 방금... 최고사령관동지앞에서 몸둘바를 몰랐소... 자신의 무능을, 전사된 도리를 못지키는 뼈아픈 자책을 이 순간처럼 절절히 느껴본적이 없는것 같아 그것도 그럴것이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와 대결한 현대전이 아니요. 순간이 만사를 결정한다는것을 잊어선 안되우. 정말 순간이 귀중해.》

《...》

이 순간의 현실적인 정황을 일깨워주듯 손목시계의 초침소리가 더욱 크게 들려오는것 같다.

아니 분명 박천은 그 다급하고 재촉하는듯 한, 무자비한 시간의 숨결을 느끼고있다, 절감하고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어제 밤을 또 밝히시였소. 긴긴 겨울밤을 작전지도앞에서 새우시였소. 동무네 부서의 정보를 시시각각으로 기다리고계시였지만 언제 한번 독촉하지도 않으시였소. 아침에 전선사령관동무가 동무네 사업을 두고 불만을 표시했다가 엄한 비판을 받았소. 장군님께서는 준절한 어조로 나는 적후전사들을 믿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순간이 천년맞잡이일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소. ...》

거대한것이, 뜨거운것이, 부드러운것이 마냥 가슴속으로 흘러든다.

박천의 얼굴이 금시 벌개진다. 그는 경건한 자세로 창문너머 해빛에 번쩍이는 최고사령부창가

를 우러러본다.

오창목은 흥분된 박천의 표정을 일별하고나서 천천히 말을 잇기 시작한다.

《장군님께서서는 며칠간 작전지도안을 떠나지 못하시다가 어제 저녁 전선사령부에 ○○포병부대를 철원가까운 ○○계선으로 전진배치할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었소.》

《○○계선이요?》

박천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서서 오창목을 지켜본다.

《벌써 부대기동이 시작되었소 병사들은 이 시각도 눈보라를 헤치고있을거요. 부대장동무가 수고할거요. … 며칠전 작전회의에서 논의가 분분했던 계선이요. 열흘째 놈들이 폭격과 포사격을 집중하고있는 지역들중의 하나요. 작전군사일군들은 한결같이 이것이 전술적위장이라고 분석했었지. 나는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와 군사적천품을 믿소. 이것은 력사와 실천이 실증한 진리요.》

오창목의 진정어린 목소리가 박천의 가슴에 닿아 짙짙 심장의 문을 두드린다.

《웁습니다. 이미 우린 51년의 《하기공세》때도 위대한 장군님의 천리혜안의 명철한 예지를 받아안지 않았습니까.》

박천은 그때 작전회의를 둘러싸고 체험했던 사색과 흥분이 되살아난듯 심호흡을 길게 한다.

그 시기 전선의 여러 방향에서 포성들이 울렸다. 군사가들은 그것이 《하기공세》의 서곡이라는 것을 알았다. 전선에 방대한 미제침략군병력이 집결되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있었다. 조성된 전선정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소집된 작전회의는 심중한 성격을 띠고있었다.

적들의 주타격방향이 어디나? 오창목을 비롯한 지휘성원들의 견해는 전선서부로 기울어져있었다. 그것은 전선서부의 기동로가 발달된 측면도 있었지만 산악지대인 전선동부가 놈들에게 공격상 불리하다는것이 중요론거였다.

이로부터 오창목은 아군의 방어에서 주요방향을 전선서부에 돌것을 제의하였다. 사단장으로 서부지역에서 예비사단을 조직하다가 최고사령부의 부름을 받은 오창목은 진중하고 강의한 성품으로 하여 군사일군들속에서 신망이 있었다.

제기된 의견들을 보고받으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래도록 작전지도안을 거니시다가 전선동부를 짚으시며 우렁우렁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적들은 바로 여기를 노리고있습니다. 바로 이 전선동부에 아군의 력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 순간 박천도 오창목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전혀 예견하지 못하였던 지역이었다. 술렁거리는 좌중을 둘러보신 그이께서는 적들의 총격기도와 적집단의 배치, 행동성격, 전선동부의 지리적특성과 그것이 군사행동에 주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명철하신 결론은 전선동부에서 진행된 놈들의 《하기공세》의 전면적인 파란으로 그 정당성이 실증되었다.

오창목은 당시 그것을 하나의 신비한 기적으로 감수하였다. 위인, 동서고금의 력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희세의 걸출한 군사가만이 가져올수 있는 사변으로 생각했었다.

백두산시절부터 심장으로 느껴오는 이 신격화된 경모심을 더욱 뜨겁게 간직하게 된 그였기에 오늘의 새로운 정황, 51년 그 여름의 정황보다는 어쩌면 작게 느껴지는 이번 《시범전투》를 두고 생각이 깊어진다.

어디선가 먼 발동소리가 들려온다. 그들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본다. 눈썹이 피여 무겁게 가지를 드리운 아릅드리버드나무, 메세들이 서리꽃이 피여 살진 가지우를 날아다니며 채잘거린다. 그우의 파란 하늘, 점차 발동소리가 가까와진다.

박천은 그것이 귀에 익은 연락관관의 군용차소리임을 가려듣는다. 그는 성급히 달려나간다.

연락관관의 입에서는 입김이 뿌연 안개처럼 솟아나온다.

《장령동지, 방금 연락선을 통해 입수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무실에서 다들 기다리고있습니다.》

《알겠소! …》

박천은 얼굴이 굳어져가지고 오창목에게로 돌아선다.

1953년 1월 24일 14시 20분

오창목은 자기의 반생에서 순간의 중요성을 지금 이시각처럼 온몸으로 예리하게, 절박하게 느껴보기가 처음인것 같았다.

전선에서 사단을 이끌 때만 해도 일종의 정신적긴장감, 거의 운명을 걸다싶이 한 절박감을 이처럼 강렬히 느낀적이 없었다.

새로운 공격명령을 기다리며 때로는 모닥불이 싸늘한 새벽대기를 녹이는 야전천막밖에서 언눈을 밟으며 조급하게 거닐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정신적팽배성을 동반하는 행복한 조급성, 산병선에 엮드려 지휘관의 돌격명령을 기다리는 병사의 성실한 마음과도 같은 단순하고 명백한 초조감이였다.

이런 때면 모닥불주변에 둘러앉아 야전밥통의 더운 물을 마시고있던 나이 지숙한 병사들이 젊은 사단장의 흥분된 철빛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보내곤 했다

오창목은 그 소박한 표정들에서 저도 모르게 힘을 얻었고 어쩐지 초조감이 사라지기도 했었다. 병사들은 그를 두고 《땅크사단장동지!》라고 즐겨불렀다. 물론 사단에는 땅크가 한대도 없었다. 그렇지만 사단은 그를 따라 진격의 길에 오르면서

멈춤이 없었고 그 길에서 근위기발도 수여받았던 것이다. ... 때로는 적후로 떠나간 습격조를 기다리며 호젓한 은폐호에 탄약상자를 깔고앉아 바재이는 가슴을 달랜적도 있었다. 그럴 때면 큼직큼직한 글씨로 적어보낸 안해의 편지를 읽어보기도 했다. 해방직후 북방의 한 도시에 주둔해있을 때 인연을 맺은 너자였다. 오창목은 공화국의 첫 장령들중의 한사람이었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나날 그는 정치공작대로 나갔다가 늦게야 북으로 떠난 안해와 세살짜이 어린 아들을 안타까이 기다린적도 있었다. 재진격의 길에서 사단 제1제대인련대의 전연에 안해가 나타났다는 기별을 받고 전호벽에 엮드려 가슴을 조였었다. ... 그것, 사단장으로서의, 인간-남편과 아버지로서의 기다림의 초조감과 조급성은 지금 생각해보건대 행복한것이였지만 한편 부차적인것이였다고 오창목은 회상하였다. 지금 이 시각 그를 괴롭히고 불안하게 하는 조급성은 개인적인, 아니 한개 사단의 한계를 벗어난 책임적이고도 운명적인것이였다.

사실 방금 무선결속소 소장의 안내로 결속소에 들어설 때까지만 해도 그의 기대는 큰것이였다. 무선결속소에서 송수화기를 들고 심각히 서있는 박천을 발견했을 때 오창목은 어떤 불안한 예감을 느끼었다.

정보가 도착했다는 소식은 사실 가물에 마른 땅의 단비와도 같은것이였다.

오창목은 자기들이 그것을 기다려 반생을 보낸 것 같은 기분이었었다.

하지만 입수한 정보는 일종의 촉박감과 함께 실망을 더해주는것이였다. 미제침략군의 《시범전투》가 다음날 새벽에 예견된다는 정보였다. 그렇다면 공격규모는?... 지점은?... 정확한 공격시간은?... 아직은 아무것도 없었다. 희망의 별빛은 어딘가 멀리에 있었다. 정보는 《유엔》기자단에 있는 련락선에서 온것이였다. 말하자면 《제3바이올린수》의 제공이었던것이다. 두사람은 몇순간이 지나서야 일종의 체념상태에서 다소나마 벗어날 수 있었다. 아직은 《제1, 제2바이올린수》들이 침묵을 지키고있었기때문이었다. 그런 희망과 기대가 있었기에 오창목은 박천과 함께 고뇌와 실망에서 벗어나 최고사령부로 향할수 있었다. 실망에서는 실지 벗어나다 하더라도 심장을 조이는 순간의 촉박감에서는 단 한초도 벗어날수 없다는 것을 오창목은 뼈저리게 느끼고있었다.

어깨가 축 처져서 별로 체소해보이는 박천과 함께 최고사령부에 도착한 오창목은 장군님께서 계시는 집무실 출입문앞에 잠시 멈춰섰다. 어떤지 속이 불안하고 괴로웠다.

《내가 지금 장군님의 의도를 받들수 없다면 무엇때문에 왔는가?... 우리가 장군님의 사업을 다 소나마 보좌해드릴수 없다면 무엇때문에 있는가?

...》

오창목은 문득 박천을 돌아보았다. 박천은 그의 눈길을 피해버렸다.

군모밀에서 총이 센 머리칼이 유난히 빛나는 공정수부관이 문을 열고나왔다.

전선사령부에 련락갔다가 간밤에 돌아서서인지 그의 군복에서는 아직도 포연내가 풍겼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아까부터 동지들을 기다리고계십니다. 총참모부 작전일군들은 물론 전선사령부일군들도 와있습니다.》

젊은 부관은 흥분한 낯빛으로 오창목을 쳐다보며 출입문에 손을 가져갔다.

《그럼 작전회의를?...》

숙제를 해오지 못한 학생의 심정이 된 오창목의 가슴은 다시 불안하게, 조급하게 놀뛰었다. 오창목은 한순간 작전가방을 가슴에 움켜안았다. 그속에는 며칠전부터 철원계선의 예견되는 지점들에 대한 전투방안을 작성하라고 하신 최고사령관동지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힘을 기울여 만든 작전안이 들어있었다. 포성이 전례없이 높아진 전선의 여러 지역중 의견이 모아지는 두곳에 대한 강력한 타격을 예견한 방어책을 타산한것이였다. 하지만 오창목은 그것이 마치도 안개속의 파역을 향해 날려보내는 화살들처럼 믿음성이 없다는것을 마음속으로 자인하지 않을수 없었다.

《아닙니다.》

공정수는 빨찌산시절의 상관인 오창목의 굳어진 얼굴을 유심히 건너다보며 우선우선한 낯빛으로 빙그레 웃었다.

《잠시간에 자연부원조사단성원들의 보고를 받으시며 이야기를 나누고계십니다. 동지들이 도착하면 즉시 들여보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오창목과 박천의 눈길이 한점에서 부딪쳤다. 이번에는 오창목이 먼저 눈길을 떨구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밤새 전혀 쉬지 못하셨는데...》

《제 불찰이 큰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도 철도부문 일군들과 문화부문 일군들을 만나셨고 후방사업때문에 전선사령부와 계속 통화하셨습니다.》

공정수의 얼굴은 금시 흐린 하늘처럼 어두워졌다.

오창목과 박천이 방에 들어섰을 때 김일성동지께서는 따뜻한 눈길로 좌중을 둘러보시며 말씀을 나누시는중이였다.

《그래, 정찰국장동무, 얼굴색이 좋지 않구만. 오창목동무한테 《공격》을 받았다면서?... 오창목동무는 새 련합부대 편성때문에 최고사령부에 붙잡아뒀는데 이거 주객이 바뀐것 같아?...》

그이께서는 너그러운 표정으로 두사람을 살펴보시는것이였다.

《면목이 없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박천은 차렷자세를 취하며 나직이 말씀드렸다.

《내 전화로 보고를 받고 아무래도 기분들이 처

저있을것 같아 불렀소. 기운을 내시오. 미제침략 군놈들이 어떻게 덤벼드는가 한번 봅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명쾌한 어조로 말씀하시며 두사람에게 자리를 권하시였다.

《가만 부관동무, 다들 속이 얼었겠는데 따끈한 물이라도 좀 가져다주오. 우리 조사단동무들의 귀가 번쩍 트이는 이야기를 먼저 들어봅시다.》

공정수가 김이 문문 나는 물주전자를 원탁우에 놓고나가자 김일성동지께서는 테가 굽은 안경을 낀 과학자에게로 눈길을 주시였다.

《그러니 선생들은 해발 2,000메터가 넘는 랑림 산줄기의 설한령들과 후치령을 넘어 장진호반, 부전고원에 이르기까지 답사했던 말이지요?》

《예, 장군님의 가르치심대로 개마고원과 백무고원일대까지 답사하여 6만정보이상의 농경지와 방목지를 새로 찾아냈습니다.》

여윈 목까지 올라오는 재빛털내의를 정중하게 입은 과학자는 수첩에 잠시 눈을 가져갔다가 다시 말씀을 올렸다.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과 농산 및 축산부문을 비롯한 여러 부문의 기술일군들로 무어진 조사단은 이 지역들에서 비옥한 옥토와 풀밭도 조사하였습니다.》

《대단합니다. 동무들이 이 추운 때 고생을 했겠습니다. 그래 성자민선생은 이번에 서해안조사사업에도 나갔었다는데 년로한 몸에 불편이 많았겠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더운 물을 체소한 몸집의 학자에게 권하시며 다정히 물으시였다.

《아닙니다.》

성교수는 어린애처럼 얼굴을 붉히며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창목은 작전문건이 든 가방을 무릎우에 조심히 놓고 얼굴이 매마른 학자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가슴은 한편으로는 김일성동지의 역세인 모습에 이끌려 이롭모를 안정감에 휩싸이고 한편으로는 래일 새벽에 벌여질 심각한 사태에 대한 우려감으로 뒤범벅이 되어 흔들리고있었다.

《지금 이 시각도 미제침략군의 땅크부대들이 전선의 미지의 지역으로 밀려들고 있다. 행복의 미소를 짓고있는 저 털내의 입은 성교수가 이 준엄한 정황을 알기나 하겠는가? 분초를 다투는 것처럼 귀중한 우리 장군님의 시간을 교수선생님은 너무...》

오창목은 생각이 한곳으로 흐르자 더욱 초조해져서 금시 자리에서 일어나 작전문제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받고싶은 심정이였다.

하지만 행복한 성교수는 흥안의 소년처럼 얼굴을 붉히며 천천히 말씀드리고있다.

《장군님께서 자동차와 마차까지 보내주셔서 오래간만에 조국강산을 편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세차체에 걸쳐 서해안간석지조사사업을 해서

평북도에서는 15만정보이상, 황해도에서 7만정보 이상의 개간적지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니 새땅을 20만정보이상 찾아냈단 말이지요. 훌륭합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안절부절을 못하고있는 오창목쪽을 돌아보시였다.

《창목동무, 전선에서는 그만한 땅을 되찾는데 웅근 군단력량이 동원되어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동무들은 여섯명으로 그 큰일을 해제겼습니다. 애국자들입니다. 영웅들입니다!》

그이께서는 활달하신 손세를 쓰시며 눈길을 돌려 사람들을 둘러보시였다.

학자들은 공지로 달아오른 머리를 숙였다.

한순간 오창목은 어쩐지 자기의 초조한 심리가 먼구스러웠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시여 창가로 다가가시였다.

아득히 먼곳에 있는 미래의 기슭을 그려보시는 듯 안광에 부드러움이 한껏 실려 빛났다.

그이께서는 한손을 허리에 얹으시고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나는 이 전쟁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정신과 애국심을 더 잘 알게 되는것 같습니다. 아까 철도부문 일군들에게서 보고받았는데 고원기관구 <증기 857호>승무원들도 얼마전에 적기의 폭격속에서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26차량의 군수화차를 구출해냈습니다.》

그리고 전선서부의 320고지방어전투반땅크포격전에서 땅크를 까부시고 심하게 중상당하였던 한 전투원이 완치되였다는 기쁜 소식도 받았습니다. 그는 한치의 땅도 적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당의 구호를 관철하기 위해 것처럼 용감하게 싸운 전사입니다. 아마 이전 오창목동무네 사단 병사지요?

...입귀에 기미가 있는 동무 말입니다.

...우리 인민, 우리 전사들은 새 조선의 주인으로 된 자기의 힘을 자각했기에 이런 기적, 이런 위훈을 낳는것입니다. 이들을 믿을 때 전쟁에서 불가능한 일이란 없을것입니다.》

확신에 찬 김일성동지의 음성이 오창목의 마음속을, 사람들의 가슴속을 파고들었다.

오창목은 김일성동지께서 상기시키신 전사를 머리속에서 서둘러 찾아보았으나 기억의 문은 갑자기 열리지 않았다.

(내가 있던 사단 병사?... 입귀에 기미?... 그렇다면 김영진이가?...)

김일성동지께서는 천천히 창가에서 물러나시여 한벽을 거의 차지하고있는 작전지도앞으로 다가가시더니 잠시 명상에 잠겨 바라보시였다.

오창목은 작전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찻잡해진 심정을 조용히 달래며 그이를 우러러 섰다.

김일성동지의 안팎에서는 숨엄한 빛이 얼른거렸다.

그이께서는 갈리신 음성으로 천천히 말씀하시였다.

《지금은 불에 타고...포연에 그슬린 조국땅입니다. 수많은 공장들이 멎고 들판은 온통 폭탄구덩이뿐입니다. 밤에는 도시와 마을에서 불빛을 찾아볼수 없습니다. 미제침략자들은 우리의 국보적 옛 건물들과 문화재를 마구 파괴해버렸습니다.

평양의 부벽루, 성천의 동명관, 해주의 부용당, 개성의 남대문, 안주의 백상루, 강계의 북문과 인풍루가 다 타버리고 묘향산의 보현사, 금강산의 장안사, 표훈사, 유점사, 신계사 등 무수한 절간들과 돌탑들이 무너져내렸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한손으로 지도우의 지명들을 짚으시며 비분강개하신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우리가 지금 비행기를 타고 고공에 올라 조선의 땅덩어리를 내려다본다면 과연 무엇이 안겨오겠습니까.

폐허, 무서운 폐허, 산새도 깃을 들기 저어하는 재더미가 우리의 눈을 아프게 할것입니다. 가슴저린 일입니다. 예로부터 산천이 아름다와 금수강산 삼천리라고 불려온 조선이 미제침략자들에 의해 형체를 알아볼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민은 이걸 잊지 않고있으며 바라보는 그 눈들에서는 불이 일고있습니다. 이 가혹한 현실을 자각한 인민의 힘을 미제는 모르고있습니다. 조선의 이 힘을 놈들은 알지 못하고있습니다!》

오창목은 마치도 막혔던 산발을 넘어 해변가에나와 드넓은 바다를 마주한듯 앞이 탁 트이고 견잡을수 없는 흥분이 가슴속에 솟구침을 의식하였다.

조선을 사랑하시는, 조국땅의 한줌 흙까지도 뜨거운 애정을 담아 품어보시고 아끼시는 그이의 그 열렬한 심장이 오창목을 갑자기 방금전의 심리와는 전혀 다른 미지의 세계, 아니 가고싶었던 세계로 이끌어온것이였다.

마디마디에서 열화같은것이, 세찬 폭포수같은것이 쏟아져내리고 사랑의 격류가 뿜어나와 사람들의 가슴을 적시고있는것이였다.

모든것이, 방금전까지만 해도 것처럼 가슴을 불안하게 하던것들이 다시 부차적인것으로 멀리 뒤로 밀려나는것을 오창목은 놀랍게 생각하였다.

방안에는 숙연한 감정이 넘쳐흐르고있었다.

이때 부관의 뒤를 따라 몸매가 체소하고 키가 작은, 그러나 첫 인상에도 지성미가 엿보이는 문화선전상이 집무실에 들어섰다.

1953년 1월 24일 15시 10분

문화선전상은 방안의 숨엄한 분위기에 다소 위

압당한듯 잠시 주춤거리더니 김일성동지께 준비해가지고온 보고서를 정중히 올렸다.

오창목에게는 기름하고 다소 철색인 얼굴에 비해 몹시 희고 부드러운 이 유명한 녀성상의 가는 손이 기이하게 느껴졌다. 드바쁜 정치활동과 긴장한 정신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보게 되는 일종의 불균형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책상을 마주하고 앉으시여 보고서철을 열핏열핏 번져보시였다.

오창목은 주위에 서있는 몹시 긴장한 낮빛들인 지휘성원들을 일별하며 속으로 중요한 작전전야인만큼 아마도 김일성동지께서 문화선전상이 작성한 보고서를 대충 훑어보시고 후에 구체적으로 연구하시리라 생각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였다.

《상동무, 이번 유엔총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를 참가시킬것을 요구한 우리의 성명을 더 많은 나라들이 지지하고있구만. 좋은 일입니다. 우리인민의 정의의 전쟁에 대한 국제적 연대성이 날로 높아가고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열핏 보신 보고서의 구체적인 통계수자들을 하나하나 들어가시며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수상님, 형제나라 로동계급들은 군기헌납운동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식의 군중운동을 벌려 우리를 지원하고있고 원조기금과 원호물자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국제민주단체들도 우리를 적극 지지성원하고있습니다. 세계직업연맹과 세계민청을 비롯한 국제단체들은 성명, 호소문, 격문, 공개서한을 발표하거나 정기회의, 비상회의, 연대성모임, 축전, 조사단파견 등을 통하여 미제침략자들의 죄행을 폭로하고 우리 인민에게 굳은 연대성을 표시하고있습니다.》

문화선전상은 부드럽고 류창한 목소리로 말씀올리고 있었다.

오창목은 이 순간 자기의 심중에 이번에는 방금전과는 전혀 다른 문제 즉 작전지역이 아니라 임귀에 기미가 있는 전사 김영진에 대한 생각이 산갈은 그림자를 던지며 차츰 커가고있음을 의식하였다.

(내가 정말 전선에서 병사들이 기대하는 군사지휘관이었던가?... 장군님께서 김영진전사에 대하여 어떻게 그리도 잘 아실가?... 경비려단, 군관학교교장시절, 남진의 길, 해상륙전대, 강릉전투... 그리고 도하장들... 전선동부의 1211고지... 수령님께서 걸으신 화선천리길

그런데 대원들을 데리고있었던 부대지휘관이 전사들을 잘 모르고있다니...》

추억의 어느 갈피에, 영광의 어느 절정우에 그 전사가 서있는가? 한순간 오창목은 눈앞에 자기를 《땅크사단장동지》라고 부르던 많은 전사들의 얼굴과 함께 김영진의 웃는 모습이 영화화면

처럼 재빠르게 지나가는것을 느꼈다.

오창묵의 추억은 **김일성**동지께서 일군들과 장령들을 둘러보시며 너그럽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깨어졌다.

《보시오. 시인 조기천이 쓴것처럼 싸우는 조선을 세계가 보고있습니다. 통신을 보니 얼마전에도 60여만명의 미국강철로동자들이 조선전쟁의 중지를 요구하여 총파업을 일으켰고 2만5천여명의 광업로동자들이 그에 따라 동정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근 53일간 계속된 이 파업으로 미제는 수십억달러이상의 손실을 보았다고 합니다. 바로 놈들이 《신공세》를 서둘러 벌리려는 목적의 하나가 조선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 쇠퇴되어가는 미국과 서방세력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데 있고 그 서막이 래일 새벽 벌리려는 <시범전투>인것입니다.》

그이께서는 문득 화제를 역전시키시며 안광에 근엄한 빛을 띠시었다.

오창묵의 가슴속에는 또다시 목전의 중요한 문제, 안개속의 싸움마당이 거대한 해일마냥 확 밀려든다.

부관의 뒤를 따라 문화선전상이 집무실에서 나가자 오창묵은 타는 입술을 감빔며 **김일성**동지를 우러러섰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한동안 명상에 잠기시여 작전지도를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시었다.

《나는 줄타기를 하려는 놈들의 오그랑수가 조선인민의 힘앞에서 맥을 추지 못하리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운명은 그 어떠한 돌발적인 계기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주체적인 혁명력량에 의하여 결정되며 그 총적힘을 잘 령도한다면 순간에 전국을 변화시킬수 있기때문입니다.》

그이께서는 잠시 말씀을 끊으시고 좌중을 둘러보시었다. 빛나는 예지가 번뜩이시는 그이의 눈길에는 심원한 사색이 깃들어있었다.

《전쟁의 성격을 고찰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때문에 그 전쟁이 수행되고있으며 어떠한 력사적, 경제적조건들이 그 전쟁을 초래하였으며 어떠한 계급들이 그 전쟁을 담당하고있는가를 해명하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다 아다싶이 계급들과 국가들의 정책에 대한 연구는 전쟁의 성격과 그 계급적내용을 규정할수 있게 하고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을 세우고 파악하게 합니다.》

전쟁과 그 운명에 대한 그이의 분석을 들으며 오창묵은 무엇인가 자기들앞에 중대한 사변이 박두하고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 순간... 다시 그 뜨거운 세계의 열기를 느끼고있었다.

《그래 창묵동무, 지금 놈들의 포성이 잦은 곳이 어느 지점들이요?》

문득 **김일성**동지께서 오창묵에게로 시선을 돌리시었다.

오창묵은 작전지도우의 지점들을 명확히 말씀 올리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지시봉을 드시고 한동안 사색에 잠기시여 작전지도를 들여다보시었다.

《그러니까 동무들은 이 다섯개의 지역중 서부계선의 이 지점들에 아군력량을 집중하자는거요?》

《저희들은 만약을 생각하여 예비대를 대기시켜 놓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오창묵은 무엇인가 어쩔수 없는 자책감을 느끼며 대답을 올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었다.

그이께서는 잠시후 장령들을 작전지도가까이로 부르시더니 지시봉을 드시고 전선중부의 어느 한계선을 짚으시었다.

《나는 이곳에 포련함부대를 기동시킬것을 명령했습니다. 찍어 말하면 나는 철원계선을 예견합니다! 우리가 이 계선을 미제침략군이 <시범전투>를 진행할수 있는 지역으로 가상한것은 어떤 군사적령감이나 계시를 받아서가 아닙니다. 모든것은 축적된데 기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벽돌은 한장을 쌓아야 두번째 장을 올려놓을수 있습니다. 동무들, 생각해보시오. 조선인민군과의 장기간에 걸친 전쟁에서 미제는 정치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허약해졌고 서방의 지지도 맥이 진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시범전투>를 비무장성원들을 급하게 참관까지 시키면서 진행하자면 지상부대, 비행대와 장갑부대, 포무력의 밀도와 기동성, 협동성이 보장될수 있는 지역이 요구되는것입니다.

즉 지형조건, 기동로, 적아무력상태의 상대적인 수적차이 등을 고려하게 되는것입니다. 거기에 전선사령부의 통보와 최근 정찰기자료들을 분석해볼 때 이 철원계선은 놈들의 <리상적인 공격지역>으로 설정될수 있는것입니다.》

그이께서는 확신에 넘치신 어조로 찍어 말씀하시며 일군들을 둘러보시었다.

오창묵은 전쟁과 인간, 군사예술의 견지에서 과학적인 안목으로 투철하게 적군실태와 전선정황을 분석하시는 **김일성**동지의 비범하신 예지와 천리혜안에 금시 눈앞이 확 트이는것 같았다.

《바로 저것이였구나! 51년 여름에 받았던 그 충격도 결국 저렇듯 심원한 과학적판단과 군사적예지에 뿌리를 둔것이였구나. ...아니, 그것은 저 백두광야의 빨찌산시절부터...》

공정수부관이 다시 조심스럽게 집무실에 들어섰다. 그는 머뭇거리며 오창목과 박천 등을 일별하더니 곧장 **김일성** 동지께로 다가갔다.

《최고사령관동지, 점심식사시간이 켜 지났습니
다.》

간절하게 울리는 음조가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
들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지시봉을 벽에 세워놓으시고
따뜻한 눈길로 젊은 부관을 바라보시었다.

《이 공동무는 빨찌산때에도 시간관념이 높았지.
...나때문에 동무들도 끼니를 건느지 않았나?》

그이께서는 박천과 오창목을 돌아보시었다.

《다들 나와 함께 식사하고 겨울바람을 좀 쏘이
지 않겠소? 머리도 쉬울겸...》

1953년 1월 24일 16시

백설이 덮인 야산의 메마른 숲가녁으로 산새들
이 날아간다. 포연이 배여 재빛으로 어우러진 하
늘에는 추격기편대가 남긴 희끄무레한 비행운이
점차 설피여가고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차창밖으로 흘러가는 상처입
은 산야를 유심히 살펴보신다. 눈덮인 들판의 거
뭇거뭇한 구덩이들은 마치 부상자리마냥 대지의
풍경을 흐리게 만든다. 풍만하던 대지의 표정은
침울하였고 엄혹한 겨울의 세계는 모든것을 정지
상태에 몰아넣은듯 싶다. 야전군용차는 얼음버캐
를 물어뜯으며 힘겹게 언덕받이를 올라간다. 언
덕을 넘어서자 준평원지대의 크지 않은 벌이 야
산들을 품에 안고 펼쳐진다. 여기저기 들가운데
눈에 띄는 거뭇거뭇한 자옥들 역시 포탄구덩이인
가? **김일성** 동지께서는 약간 몸을 일으키시고 차
창밖을 내다보신다. 그이의 안광에 부드러운 미
소가 어린다. 그이께서는 상념에 잠겨있는 오창
목을 돌아보신다.

《오창목동무, 저 들판의 거뭇거뭇한게 보이
오?》

오창목은 차창에 바투 얼굴을 붙이고 들을 바
라본다. 한순간 바람에 눈가루가 날려 앞이 뿌옇
해진다.

《폭탄구덩이들같아 보입니다.》

《자세히 보우.》

김일성 동지께서는 여유있는 미소를 지으시고
부드럽게 말씀하신다.

오창목은 눈바람이 지나가자 차창에 눈을 가져
간다. 입김에 유리가 뿌옇해진다. 그는 손바닥으
로 유리에 서린 김을 문지른다. 서늘한 촉감.

《최고사령관동지, 거름무지들입니다. 정월인데
벌써?...》

《그렇소, 거름더미들이요. 우리 인민들이 새해

벽두부터 일떠섰거던. 지난날 같으면 화로불을
끼고앉아 삼태기를 엮거나 김만중의 <구운몽>을
듣고있었을거요. 우리 농민들은 쌀로 미국놈을
쳐야 한다는걸 인식했거던. 참 좋은 인민이요!...》

오창목의 가슴에 별안간 뜨거운것이 치밀어오
른다. 늘 인민을 먼저 보시고 인민을 내세우시고
거기에서 힘과 용기를 얻으시여 이 세계, 이 전
쟁을 이끌어가시는 위대한 강철의 령장... 문득
몇해전 중대한 보고문을 쓰시다가 어느 한 농가
를 찾으셨던 그이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날
김일성 동지께서는 아들이 전사했다는 비보를 받
고도 꺾끗한 기상을 보이며 말은 일을 수걱수걱
해나가는 로인이 걱정되시여 그의 집을 찾으시였
다. 그때 로인은 술을 부어주시는 **김일성** 동지의
손을 꼭 잡고 상처입은 백성의 진정을 말씀올렸
다.

《수상님, 저희들때문에 너무 걱정마십시오. 나
라에 바친 자식인데 살아 돌아올것만 기다렸겠습
니까. 우린 그저 수상님께서 건강해계시면 됩니
다. 백성들의 이 마음을 헤아려주십시오!...》

그때 고산진의 작은 농가, 로인은 그이앞에 참
아오던 눈물을 보이었다. 그 순결한 눈물속에서
오창목은 우리 인민의 깨끗하고 사심없는 녀, 태
양을 따르는 해바라기들의 마음을 보았다.

《창목동무!》 문득 그이께서 침묵을 깨치신다.

《이렇게 호젓한 눈길을 달리니 동무네 사단을
찾았던 51년의 전선동부길이 생각나누만. 그때
우리는 제힘을 믿고 포를 끌어올리는 전사들에게서
큰 고무를 받았소. 무어라고 할가? 군인대중
의 힘은 정말 무궁무진한거요...》

별안간 충격이 오창목의 흉벽을 두드린다. 모
든것이 한순간에 되살아나고 눈앞에 펼쳐진다.
그때... 바위도 불에 타던 전선, 오창목의 사단은
전선동부의 고지들을 방어하고있었다. 그날 오창
목은 군단지휘부에서 회의를 마치고 귀대하다가
최고사령관동지를 만나뵈게 되었다. 최고사령관
동지의 명령대로 사단관하 련대의 포들을 고지에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토의했다는 보고를 들으
시고 그이께서는 함께 전사들을 찾아가자고 하시
였다. 사단장을 안타까이 기다리는 전사들이었다.
원쑤들에게 복수의 직사탄을 안길 포를 고대하는
고지의 병사들을 생각하는 오창목의 마음은 무거
웠다.

김일성 동지를 모시고 사단방어지대에 들어선
오창목은 깜짝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전사들이
한덩어리가 되어 마지막포를 고지에 끌어올리고
있었던것이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오래도록 그들의 모습을 바
라보시다가 오창목에게로 돌아서시었다.

《동무들, 보시오. 우리 전사들이 어떤 동무들이요. 지휘관들의 생각을 앞질러서 실천하고있단 말입니다. 이게 내가 믿는 우리 전사들이요. 어서 전사들을 만나봅시다!...》

(그래, 그때 방도를 기다리고있는 포병들을 휘동하여 어깨로 포를 고지에 끌어올린 전사들속에 김영진이기도 있었지. 그때 나는 무엇을 보지 못했는가? 《땅크사단장동지!》 대답해보라!...)

오창목은 그날의 환멸과 자책을 오늘에 이어보며 속으로 부르짖는다.

오창목은 숲가의 갈림길목에 언제 야전군용차가 멈추어섰는지 그리고 **김일성** 동지께서 내리셨는지도 한순간 의식하지 못한다.

오창목은 눈냄새를 풍기는 찬 기운에 와들 놀라며 몸을 일으킨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반외투허리에 손을 짚으시고 갈림길 왼쪽의 둔덕길을 유심히 살피신다. 시선이 겨우 미치는 언덕길로 두엄을 가득 실은 달구지 한대가 저르기 힘겹게 톱아오르고있다. 허름한 솜옷을 걸친, 먼눈에 나이를 전혀 대중할수 없는 두 여인이 달구지곁에서 회초리로 소를 쳐물다가 급기야는 어깨를 들이민다. 치마폭에 싸인 힘있는 곡선을 이룬 몸매의 근육때문인지 젊은 여인들이라는게 짐작된다. 달구지는 몇번 헛바퀴를 돌고나서 언덕반이에 올라선다. 그양을 지켜보시던 **김일성** 동지께서는 달구지가 언덕너머로 사라지자 눈길을 떨구시고 길바닥을 내려다보신다. 금방 지나간 달구지바퀴자욱이 생생하다. 폭격에 튕겨난 흙부스레기들이 함께 다져져 얼룩 얼룩해진 길, 한낮의 해벌에 정월이건만 물기도 느껴진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허리를 굽히시고 눈이 뒤엎킨 길바닥의 흙을 한웅큼 집어드신다. 그이께서는 한동안 사색에 잠기시여 흙을 들여다보시다가 오창목쪽으로 돌아서신다.

《창목동무, 전선중부의 아비령쪽에 가보았소?》

《전쟁전에 몇번 지난 일이 있습니다.》

《그곳 토양에 석비레가 많지...》

그이께서는 혼자소리로 뇌이고나서 군용차쪽으로 걸으신다.

야전군용차는 다시 눈길을 물어뜯으며 달린다.

거친 들,, 뿌옇게 흐린 하늘, 그 하늘이 점차 어두워진다. 아마 구름이 끼는 모양이다. 오창목은 차창밖으로 눈길을 돌리는 순간 어쩐지 야릇한 추억의 그림자가 자기 마음속에 깃들을 느낀다. 추억이라기보다 안해에 대한 생각이다. 그때도 이런 눈길을 달렸다. 결혼한 다음해 안해는 급병으로 주둔지역 경비려단군요소에 실려갔었다. 젊은 군의는 전혀 림상경험이 없다가니 손뭍 결심을 못했다. 곧 군대안의 중앙병원으로 후송했

다. 오랜 군의일군들은 안해의 병진단에서 두패로 갈라져서 의견을 세웠다. 강력한 항생제를 쓰면서 안정시키자는 의견과 복부수술을 하자는 견해였다. 오창목은 부대주둔지역에서 이 사실을 전달받고 급히 병원으로 차를 몰아갔다. 12월이었다. 나무가 얼어터지던 추운 겨울이었다.

오창목은 마음이 조급하였으나 운전사에게 독촉하지는 않았다. 나이지숙한 운전사는 젊은 부대장의 심정을 너무도 잘 알고있었다. 밤늦게 병원현관에 들어섰다. 오랜 외과의사인 기술부원장이 오창목의 손을 잡고 입원실로 향했다.

《방금 수술을 끝냈습니다. 저녁에 장군님께서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실태를 구체적으로 보고 받으시고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다가 단호히 <기술부원장동무, 급히 수술하십시오. 이제부터 20분을 넘기지 말아야겠소.>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오창목은 기술부원장과 함께 안해의 침대에 곁에 서있었다.

안해의 얼굴은 해쓱했으나 평온이 그 아름다움을 지키고있었다.

기술부원장은 복도에 나오자 눈길을 떨구었다.

《려단장동지, 솔직히 말해서 난 지금 가슴이 서늘합니다. 만약 우리가 조금만 늦어 수술칼을 들이댔어도 환자를 살릴수 없었을겁니다. 어떻게 장군님께서 전화로 보고받으시고도 대뜸 그 긴급한 증상을 통찰하셨는지 상상할수도 없습니다.》

아니, 오창목자신도 그 이유를 모른다. 다만 그것이 우리 **김일성** 동지께서만 지닐수 있는 신비로운 예감, 덕행과 인간애가 아니겠는가. 자신으로서는 그 믿음이면 충분하였다.

야전군용차는 눈덮인 숲길을 빠져나와 언덕길에 들어선다.

가파로와보이는 외통길, 그끝에 보이는 낮은 건물들은? 후방병원이 아닌가?

오창목은 **김일성** 동지께서 왜 소풍을 하자고 자기를 부르셨는지 문득 이해가 간다. 그러니 소중한 영웅전사 김영진이를 만나시려 온것이다.

《가만, 운전사동무. 차를 세우오. 여기서부터 걸어가기요.》

김일성 동지의 말씀에 운전사는 자신있다는 어조로 대답올린다.

《최고사령관동지! 차가 언덕길을 올라갈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가 아니요. 아츠러운 발동소리가 환자들의 신경을 건드릴수 있소. 환자들에겐 정숙과 안정이 기본이요.》

김일성 동지께서 차문을 여시고 내리신다. 오창목도 서둘러 따라 내려선다.

아직도 병동까지는 한참길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슷눈길우에 자옥을 남기시며
성큼성큼 앞서 걸으신다.

문득 병동앞에서 두사람이 한덩어리가 되어 구
울듯이 달려온다. 단발머리간호원의 부축을 받은
젊은 병사다.

《최고사령관동지!—》

전사가 찾은 부름소리가 언덕길에 메아리친다.

《아니, 저게 김영진이 아니요? 심한 중상을 당
하고서도 꺾끗이 살아난 우리 영웅전사이구만!》

김일성동지께서는 오창목을 돌아보시며 눈가에
환한 미소를 띠신다.

《가만! 영진이. 그러다 넘어지겠소. 사람두
참!》

그이께서는 걱정스러우신듯 반달음으로 서둘러
전사앞으로 마주 가신다. 마치 아들을 품에 안으
려는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를 맞은 아들과 같이
최고사령관과 전사는 슷눈길우를 마주 달려간다.

오창목은 한순간 가슴이 찌르르하여 그 자리에
서 움직이지 못한다. 뜨거운것이, 따뜻한것이, 더
없이 진실한 인간적국민의 감정이 가슴가득히 넘
쳐흐른다. 오창목의 볼로 더운 눈물이 흘러내린
다.

(그래, 이것이였구나. 우리 인민과 우리 전사들
과 장군님사이에 이어지고 맺어진것이! 바로 이
것, 땀야 땀수 없는 혈연적인 인연으로 맺어진
이 통일단결이 바로 조선의 힘이고 이 힘을 움켜
쥐고 나아가시는 분이 우리 장군님이시다!...)

오창목은 소생한 영웅전사를 한품에 안으시고
다정히 말씀하시는 김일성동지결으로 가까이 다
가간다.

《...동무가 완쾌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
을수가 있어야지. 이태전 전선길에서 만났을 때
보다 키도 컸구만. 그래 상처는 일없나?》

《최고사령관동지, 군의동지들이 다음주엔 퇴원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영진은 추위에 얼어 불깃불깃해진 얼굴을 든
다.

《그렇다? 우리 군의동무들이 수고했구만. 난
이렇게 살아있는 영웅을 만나게 더 반갑소. 그
래 영진이, 미제침략군놈들과 싸워보니 어때?...》

《최고사령관동지, 전 거만한 미제침략군 땅크
와도 맞서보았는데 그놈들이 덩지만 컸지 영
맹물입니다. 전사인 제 생각에도 백놈은 문제없습
니다.》

열아홉살의 영웅전사는 아버지앞에서처럼 허물
없이 말씀올린다.

《하하하, 문제없단 말이지! 그 기개가 마음에
들어. 미제침략군놈들이란 큰소리만 쳤지 결국은
겁이 많아. 미국놈들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놓아

야 하오!》

《알았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김영진의 오돌찬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만
족하신듯 오창목을 돌아보시며 웃으신다.

《보우, 창목동무. 아예 바늘 들어갈 틈도 없는
박달나무같은 우리 전사요. 이런 전사들과 미제
침략군이 맞서고있거던. 그래서 난 우리 전사들
을 생각하면 늘 힘이 생기군 하오!... 사무실에만
앉아있으면 이런 힘을 얻을수 없지. 미제가 <시
범전투>인가 하는걸 해보라지. 조선인민앞에서 <
신공세>계획도 휴지장이 될것이며 종당에는 무릎
을 꿇고말거요. 그래 영진이, 미제침략군의 땅크
를 까부시며 무엇을 생각했나?》

《최고사령관동지, 전 우리 조국땅으로 기여드
는 미제침략군땅크가 한갓 딱정벌레만큼도 생각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지. 장해, 장하단 말이
요.》

《최고사령관동지!》

김영진은 목베어 부르짖으며 그이의 품에 와락
안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사를 품에 안고 어
깨를 쓸어주신다.

발밑에서 눈가루가 피여올라 주위를 부드러운
백포마냥 뒤덮는다. 종낮의 해빛이 눈가루들에
반사되어 보석처럼 빛난다.

오창목은 경건한 자세로 전사를 품에 안고 말
없이 서계시는 김일성동지를 우러른다.

강렬한 빛발, 오창목은 온 세계를 태울듯 한
그 광채에 눈이 부시는것을 절감한다. 계절을 모
르고 세월을 모르는 영원한 그 해별이 심신을 따
뜻이 감싸는것이다...

《장군님!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에야 제자신을
찾았습니다. 그날에 우리 사단이 싸움마다에서
위훈을 떨칠수 있던것도 바로 저런 전사들이 있
였기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보지
못한 눈먼 《땅크사단장》이었습니다. 견장의 별
들이 저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것은 저런 병사들
을 거느리고있기때문입니다. 저는 위훈과 기적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나운 겨울바람이 불어치건만 오창목은 전혀
추위를 느끼지 못하고있다.

×

《승리는 전투전에 마련된다는 격언이 있습니
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전쟁기간 오창목장령의
부관으로 있던 김수현대좌는 나에게 조용한 어조
로 추억을 더듬었다.

《수령님의 명철하신 결심은 몇시간후에 완전한

사실로 확증되었습니다. 이날 오후 5시경, 드디어 적후에서 여러 정찰소조들의 긴급무전이 날아왔던 것입니다. 미제침략군의 <시범전투>공격날자는 다음날인 1953년 1월 25일 새벽 5시였고 공격지점은 철원 서쪽구릉지대의 정형고지였습니다. 당시 정형고지에는 인민군 한개 연대가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놈들은 높이 300미터가량밖에 안되는 이 자그마한 고지에 무려 3개 사단의 역량, 수백대의 비행기, 많은 탱크를 들이밀 홍계를 꾸며놓았던 것입니다.

그때 지휘성원들은 수령님께서 과학적인 통찰력에 기초하여 철원계선으로 포병부대기동을 명령하시어 전선중부에는 불의의 공격으로 인한 돌파구가 생길 우려가 전혀 없고 필요한 때는 이 계선으로부터 반격으로 넘어갈수 있는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었다고 마음을 놓았습니다.

결국 미제침략군이 정형고지공격을 진행해도 전선전반에는 변화가 생길수 없다는 견해가 지휘성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투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은만큼 철원계선으로 진출한 포병부대가 정형고지계선까지 도착할 가능성은 없는것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작전부문 일군들은 집결된 보병예비대를 증강하면 이 지역이 빈틈없는 방어선으로 될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지휘성원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생각 못했고 무엇을 놓치고있었는지 몰랐습니다....

1953년 1월 24일 17시 30분

최고사령부의 시계는 벌써 저녁을 가까이 하고 있었다.

총참모부일군들의 작전의견을 보고받으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한동안 작전지도앞을 천천히 오가시다가 창가에 멈춰서시었다.

정월이라 벌써 창밖엔 때 이른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고 탐조등불빛이 하늘을 어지러이 썰고있었다. 어디선가 공습경보신호와 둔중한 고사포의 포성을 누르며 병사들의 우렁찬 군가소리가 차광막밖으로 들려오고있었다.

그이께서는 군가소리를 들으시며 얼어붙은 겨울의 상처입은 저녁풍경을 부감하시더니 문득 일군들에게로 돌아서시었다.

《그러니까 동무들은 조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귀중한 순간이 흐르고있는 때에 결국은 포병부대를 철원계선에 주저앉히자는거지요? 우리 적후전사들이 목숨을 걸고 얻어낸 12시간을 하늘로 날려버리자는거요?

12시간... 물론 이것은 우리 전쟁에서 눈감박할새에 지나가버릴 순간에 불과하오. 회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 원탁을 마주하고 갑론을박하기 적절한 시간이요.

하지만 나는 이 시간이 우리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미제의 <신공세>의 파멸을 선고하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믿고있습니다.》

그이께서는 얼마전까지 간석지조사단성원들이 앉아있던 결상들을 일별하시더니 지시봉으로 작전지도우를 가리키셨다.

《단순히 공방전의 견지에서만 보더라도 로교수들이 감탕을 헤치며 새땅을 찾고있을 때 우리 인민군사단들이 피를 흘리며 지켜내는 귀중한 조선의 한부분을 그리도 쉽게 내어줄 생각인가?》

그이의 준절한 말씀에 방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깃들고 자책과 충격의 숨소리들이 높아졌다.

《?!...》

김일성동지께서는 문득 오창목에게로 시선을 돌리시었다.

《창목동무, 이 철원계선에서 정형고지까지 얼마나 됩니까?》

오창목은 방금전까지 회열에 들떠있던 자신을 무겁게 자책하며 서둘러 그이께 자세한 거리를 보고드리었다.

《그럼 지금 진출한 계선에서 포병부대들이 정형고지까지 기동하려면 얼마나 걸릴것 같소?》

《?!...》

오창목은 한순간 대답을 드릴수 없었다. 사실 정상적인 기동이라면 빨라서 24시간, 모든 조건이 구비되려면 하루반의 시간적여유가 있어야 했기때문이었다. 이것은 이미 논의의 초점으로 되었던 문제였다.

《그래, 지금 군사학상의 관념으로는 불의의 기동이 불가능하다는 말이지요?... 동무들도 알고있겠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만사를 략관적으로 대하여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하자고 결심하면 나팔구멍이 열리는 법입니다. 우리는 군인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을 때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주장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혁명관이고 투쟁정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조선의 혁명가들은 이 신념을 숨기지도 않고 소리높이 공개합니다!》

시대와 역사를 한순간에 집약하시어 인간의 자주적인 힘을 레찬하는 위대한 철학을 도출해내시는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

오창목은 짧은 이 순간에 자신도 함께 갑자기 거인으로 자란것 같은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었다.

그이께서는 잠시 사색에 잠기시어 작전지도우

를 생각깊이 살펴보니 문득 작전대로 다가가 송수화기를 드시었다.

우렁우렁한 그이의 음성이 방안을 울렸다.

《전선사령부교환이요? 수고합니다. ○○계선의 부대장동무를 찾아주시오.》

김일성 동지께서는 먼곳에 있는 전사의 모습을 그려보시는듯 안광에 따뜻한 광채가 비끼었다. 지휘성원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이를 우러러서 있었다. 무엇인가 신비스러운것의 탄생, 불가사의한 기적을 고대하는 하나의 지향이 가슴들에 응결되기 시작했다.

오창목은 다시 영원한 태양의 그 강렬한 빛에 눈이 시도록 마음이 밝아지는것을 느꼈다. 그 눈부신 빛을 정면으로 바라보기에는 인간의 안광이 너무도 무색하다는 일종의 상념이 뇌리를 쳤다.

《아, 부대장동무요? 목소리를 들으니 기쁘구만, 참모장동무는?... 그러니 마지막대오가 방금 철원계선에 들어섰냐? 수고했소. 천식이 있는 참모장동무가 고생했겠구만. 그렇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놓입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부대장의 보고가 만족하신듯 입가에 자애로운 미소가 어리신다. 그 부대장은 백두산시절부터 익살기가 있고 소박하면서도 강직한 사람이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잠시 그의 말을 들으시다가 문득 진중한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중소, 내 동무들에게 이제 어려운 과업을 하나 줘야겠소. 그렇소, 혁명은 동무들에게 아직 쉬엿구령을 내리지 않았소. 듣지도 않고 무조건 해내겠다?... 류동무, 이것은 싸움의 운명과 관련된 중대한 과업이요. 백두산에서부터 습관되었다?... 그렇지, 그 시절엔 불가능한것이란 없었소! 대중을 발동하면 다 풀렸거든. 동무가 나에게 오히려 힘과 격려를 주누만. 중소, 동무들은... 어제부터 진행한 강행군길을 계속 이어 래일 새벽 4시까지 정형고지계선에 도착해야 하오!

어려운 임무이나 영예로운 과업이요. 고난의 행군때를 생각해보오. 말길마도 있다? 그곳 땅에 석비레가 섞여 포차가 빠지지 않는게요. 중소, 동무의 짝패인 《땅크사단장》 오창목을 보내주겠소. 내가 30분에 한번씩 보고를 받겠소. 그렇게 전사들에게 전하시오. 나는 우리 전사들의 군인 정신과 애국심을 믿습시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송수화기를 놓으시더니 오창목을 너그럽게 바라보시었다.

그이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확신에 차신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지휘관동무들, 시간을 맞추시다. 또 한번 간고분투결사전을 해야겠소. 우리야 이제 그에 단련

된 사람들이 아니요. 미제침략군놈들은 이번 정형고지전투에서 참패하면 스스로 <신공세>를 포기할것이며 결국은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을것이요.

이 전쟁의 새로운 승리를 가져올 가장 귀중한 순간이 지금 흐르고있소. 미제를 영원한 서산락일의 운명에 몰아넣을 조선인민의 승리의 순간이 흐르고있소!》

1953년 1월 25일 밤 2시

밤.

러명.

먼동이 터오는 전선길.

대오가 가고있다. 군기가 휘날린다.

포차의 뒤를 따라 철갑모와 총창들이 번뜩이고 뻗은 눈발이 뒤따른다. 잔등에 포탄들을 주렁주렁 매단 군마가 저벅저벅 걸어간다.

큰 구경의 포신들을 어둠속에 추켜세운 곡사포들과 그리고 포끝차들이 눈길을 달린다. 솟아나는 둔중한 차바퀴에 으깨지고 가스에 녹아 굶은 날의 진창처럼 절벽거린다. 그 바퀴자욱우에 군화자욱들이 힘있게 덧놓인다.

추위와 흥분에 얼굴이 붉게 상기된, 누빈 숨을 가쁜하게 입은 젊은 병사, 화선선동원인 전창준이 언 손을 부비며 길옆에 우뚝 나서서 갈린 목소리로 소리치른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우리의 보고를 기다리고계신다. 이 순간도 우리를 지켜보고계신다!...》

...바위와 가시덤불, 얼어붙은 강얼음이 발에 짓밟힌다. 거대한 철의 대오가 움직이는 성벽마냥 앞으로 전진한다.

털모자에 성애가 허영게 불린 최고사령부대표 오창목이 부대장과 함께 걷다가 애어린 전사의 포탄상자를 빼앗아 메고 솟아나는 눈보라우는 소리와 함께 고르롭게 조화를 이룬다.

나가자 나가자 싸우러 나가자...

병사들이 그 노래를 따라부른다. 병사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걷고있다.

러명의 후광이 그들을 뚜렷이 비치고있다.

원경으로 보면 철의 대하가 굽이치는것 같다. ...

새벽.

눈보라.

대오가 달리고있다.

저 멀리 승리의 먼동이 떠오르고있다. ...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계승본) 8권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망국 40년만에 조국을 찾고 리항 20년만에 고향을 찾았다면 우리는 그 조국과 고향을 위해 너무도 많은 세월을 바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망국은 순간이요 복국은 천년이라는것이 항일혁명 20년의 로정을 걸으면서 내가 얻은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잃기는 험해도 찾기는 힘든것이 바로 조국이라는 뜻입니다. 순간에 잃은 조국을 찾느라고 수십년, 지어는 수백년의 고생을 해야 하는것이 이 세상의 준엄한 리치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지금도 종종 젊은 사람들에게 조국을 잃으면 살아도 죽은 목숨과 같다, 망국노가 되지 않으려거든 나라를 잘 지키라, 나라잃은 설움으로 통곡하기 전에 조국을 더 부강하게 하고 막돌 한 개라도 더 주어다가 성새를 높이 쌓으라고 말해주군 합니다.》

나무는 푸르싱싱하게 자란다

허수산

맑은 하늘에서
밝은 햇빛 쏟아지는
6월의 어느날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
1211고지의 무명고지를 찾으시였다

푸른 숲은 환희로 설레고
온갖 새들은
기쁨속에 끝없이 지저귀는데
장군님은 한 《나무》앞에
오래도록 서계시였다

자랐으면
거목이 되었을 나무
오늘은 수십개의 파편과
총탄자욱 안고
푸른 숲속에 서있는 모습

나무는 나무였어도
그것은 정녕 나무가 아니였다
전화의 그날을 다시 안아보시는가
장군님은 오래도록
나무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시여라

-저 나무는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의 상징이요
가렬처절한 탄우속에서도 용감히 싸운
우리 전사들의 모습이요

길이 보존하여 후대들에게 전해줍시다

순간 숨죽였던 나무는
금시 살아난듯
파편자욱에서는 새움이 돋고
총탄자욱에서는 즙이 흐르는듯
나무는 새롭게 탄생하였다

련련히 뻗어내린 산발
끝없는 푸른 숲은
한없는 감격에 설레이고
그날의 영웅들
세월을 넘어
장군님품으로 달려오는듯

오, 나무는 죽지 않았다
인민군전사들의
위훈의 상징으로
푸른 거목으로 우뚝 솟아
승리의 기념비로 빛나거니

전사들의 위훈 잊지 않으시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
우리 장군님의 품속에서
나무는 죽지 않았다
죽을수 없다
세상을 향해 푸르싱싱하게 자란다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국을 주제로 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는것은 사람들이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조국을 주제로 한 문학예술작품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조국은 삶과 행복의 요람이며 조국이 없이는 참다운 삶과 행복을 누릴수 없다는것과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과 후손만대의 행복과 번영을 보장하여주는 진정한 인민의 조국이라는것을 잘 형상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오늘과 같은 참다운 인민의 조국을 세우기 위하여 피흘려 싸운 항일혁명선열들과 애국선열들의 투쟁모습을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조국을 원수들의 침해로부터 옹호보위하고 더욱 융성번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생을 다 바쳐 싸우는 애국자들의 전형도 잘 형상하여야 합니다.》

그 사랑에 뜨거운 땅

박상민

푸른 하늘 가득히
날알향기 넘치는 가을
벼수확기동음 정다운 벌
내 고향 미림벌

봄이면 모내는기계
여름이면 김매는기계
가을이면 벼수확기...
벼바다위에 또 기계화의 흥겨운 노래소리
이 벌에 나날이 쌓이는 행복이여!

생각하면 송구한 마음
60년세월이 흘렀건만
우리 가문에 없혀진 그 사랑
분여지 3천평 다를 손이 없었던가
우리 할아버지 받은 논에
아버이수령님 손수 모를 내주시던 그날은
아 천만년 세월이 흘러도 못 잊을 하루!

왜놈의 확정아래
남이 가진 제땅에
절을 하듯 허리굽히고
목숨을 걸고 땀을 바쳤건만
그 땅은 피눈물만 더해주지 않았던가

제땅 한번 마음껏 다루는게 소원인

그 거울진 손에 3천평을 쥐여주시고
모내기까지 도와주신 우리 수령님!
그 사랑의 땅에서 그해 가을엔
천석만석 쌀쟁이 터졌던가
그러니 또다시 수령님 모시고픈 마음
더더욱 간절한것은

그 마음 다 읽으신듯
우리 어머님 이 벌에 오실줄
정녕 꿈엔들 생각했으랴
김정숙어머님 그 미소에
내 고향 미림벌은 얼마나 환해졌던가

오, 내 고향 미림벌
수령님과 어머님
해방과 함께 년년이 모신 영광
세월과 더불어 더 뜨거워지는 땅이여
그날의 감살좋은 논벌에서
오늘까지 풍작만을 안아온것은
길이 전할 전설중의 전설은 아니더냐

파도치는 벼바다위에
오늘도 그 영상 안기여오네
누구보다 이 땅을 사랑하신
수령님과 어머님 거룩하신 그 모습
벌가득 하늘가득 안기여오네

공화국창건의 나날에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아버지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드시고 해방후부터 우리 공화국창건을 위한 사업에 모든 정력을 다 바치시었다.

주체37(1948)년 9월 9일, 이날은 참으로 뜻깊은 날이었다. 이날에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되었기때문이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에 즈음하여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는 우리 공화국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헌법을 채택하였으며 인민의 의사를 담은 정부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공화국의 내각수상, 국가수반으로 높이 추대되시었다. 평양을 비롯한 온 나라는 커다란 경축분위기에 휩싸였다.

우리 공화국창건을 맞으며 항일혁명투사들은 김정숙동지께서 계시는 저택으로 찾아갔다. 기쁜일이 있으면 언제나 잊지 않고 찾아오는 혁명동지들이었다.

저택에 들어서는 항일혁명투사들을 반갑게 맞아주신 백두산녀장군이신 김정숙동지께서는 기쁜날을 보지 못하고 먼저 간 전우들이 생각난다고 하시면서 창가로 다가가시여 이윽도록 바깥을 바라보시었다. 거리거리에 설치해놓은 고성기들에서는 우리 공화국이 창건되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국가수반으로 높이 추대되셨다는 격동적인 소식을 거듭 전하고있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가을바람에 나뭇기는 공화국기발을 바라보시다가 저 하늘에 나뭇기는 공화국기발에는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싸운 혁명선열들의 붉은 피가 스며있다고, 저 기발을 삼천리에 나뭇길 그날을 위해 우리는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더 힘차게 투쟁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김정숙동지께서는 동지들에게 오늘을 보지 못하고 먼저 간 전우들의 몫까지 합쳐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를 부르자고 하시면서 선창을 제시였다.

백두산천지에서 제주도끝까지
새 기발 높이여 삼천만은 나섰다
산천도 노래하라 이날의 감격을
조선은 빛나는 인민의 나라다

...

백두산녀장군이신 김정숙동지의 선창에 따라 항일혁명투사들은 힘차게 노래를 합창하였다.

노래가 끝나자 김정숙동지께서는 자신은 이 노래가 마음에 든다고, 남녘땅인민들과 함께 이 노래를 부르며 공화국기발을 휘날린다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말씀하시었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의 뜻대로 조국통일을 하루 빨리 이룩하는것은 김정숙동지의 간절한 념원이시였다. 그러기에 김정숙동지께서는 조국이 통일되면 그간의 쌓이고 쌓인 피로가 한순간에 다 풀릴것 같다고,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우리모두 굳게 뭉쳐 싸워나가자고, 그래야 조국이 통일되는 날에 혁명가로서의 자기 임무를 훌륭히 수행했다고 떼떽하게 총화할수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그후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항일투사들과 함께 공화국창건을 경축하는 군중대회장으로 가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달리는 차안에서 감격을 금치 못하시며 동지들에게 오늘은 유구한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인민의 나라를 세운것을 경축하는 참으로 뜻깊은 날이라고, 지난날 우리가 산에서 형언할수 없는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며 일제놈들과 관가리싸움을 벌린것도 바로 오늘을 위해서였다고 감회깊이 말씀하시었다. 계속하여 김정숙동지께서는 공화국정부가 어떤 정부이며 우리 공화국창건이 가지는 의의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하여 가르쳐주시면서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하여 장군님께서 세워주신 공화국정권을 공고발전시켜야 하며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하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항일혁명투사들은 백두산녀장군이신 김정숙동지의 말씀대로 조국을 기어이 통일하겠다는 불타는 결의안고 커다란 흥분에 넘쳐있는 군중대회장으로 들어섰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공화국창건의 나날에 하신 그 뜻깊은 말씀을 언제나 명심하고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이 땅우에 기어이 조국통일의 그날을 앞당겨오기 위해 더 과감히 투쟁해나갈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된 조국에서 세세년년 행복만을 꽃피워갈것이다.

김금옥

어제날의 평범한 농민을 세계적인 작가로(1)

박춘택

소설가 천세봉의 한생을 놓고 우리는 위대한 수령을 모실 때 작가의 재능이 만발하게 꽃필수 있으며 작가의 삶도 조국과 더불어 값높게 빛날 수 있다는 진리를 깊이 간직하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는 창작적재능과 지혜로 당의 위업을 높이 받들어나가는 충실한 방조자가 되여야 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사랑하는 작가 천세봉은 재능있는 소설가로서 소설창작으로 당을 받든 충직한 작가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자양분으로 작가로서, 인간으로서 성장하였으며 인생과 문학을 꽃피운 작가이다.

천세봉은 자기의 어느 한 수기에서 이렇게 썼다.

《내가 혁명문학을 할수 있는 작가로 된 로정은 우여곡절이 많은 로정이였다. 그것은 새 아기가 태어나는 진통기와도 같은 심각한 자기 혁명화의 과정을 동반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나의 혁명화과정이란 내가 가지고있는 모든것, 인식과 자각, 열정과 사랑의 거울인 자기 창조물을 세상에 내놓는 한 작가의 혁명화과정이다. 그렇기때문에 이 혁명화과정은 나 자신의 심혈을 쏟아붓는 창작과정과 떼어놓고는 생각할수 없으며 그러한것으로 하여 그 과정은 더없이 간고하고 심각하다.

실로 나는 나의 생애에서 하나의 큰 획을 긋는 것 같은 자기 혁명화의 로정을 통하여 오늘 경애하는 수령님의 전사로 혁명문학을 할수 있는 작가의 길에 들어섰다.

아버이수령님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내가 체험한 다함없는 사랑을 이야기하자면 지금도 목이 메고 눈굽이 뜨거워난다.

천세봉은 주체4(1915)년 2월 함경남도 고원군 덕지리의 가난한 농민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독서열, 향학열에 불타던 천세봉은 여섯살되던 해에 마을서당에 들어가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천세봉의 아버지는 집안살림은 몹시 어려워도 아들 하나만은 어떻게 해서라도 꼭 공부시켜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주체13(1924)년 천세봉을 보통학교에 입학시켰다. 그러나 천세봉은

다섯달이나 월사금을 내지 못하여 공부하던도중 4학년에서 퇴학당하였다. 이때부터 그는 어려운 《생활전선》에 나섰다. 그는 머슴살이도 했고 나무를 해다 파는 일도 하였다. 나이들면서부터는 당시 덕지강하천공사장이나 수리조합공사장에서 토공일도 하였고 평원선철도공사장에 가서는 힘겨운 석공로도 하였다.

이러한 생활과정에 천세봉은 나라잃은 민족의 슬픔을 체험했고 인간생활의 여러 측면들을 알기 시작하였다.

천세봉은 글을 모르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글을 배워주었다. 그러면서 그는 열정의 독학가가 되여 책들을 읽었다. 고전소설들과 신소설들을 많이 읽었고 신문과 잡지들도 애써 구해 읽었다.

작가 천세봉이 수기 《작가수업 40년》에서 쓴 하나의 일화는 그의 독서열의, 문학의 지향이 어떠한가를 알게 한다.

그는 스무살에 장가를 갔는데 안해는 보통학교 때의 스승의 딸이였다. 그러면 천세봉이 어떻게 되여 그와 결혼하게 되였는가.

장인은 식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에게는 세계문학선집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의 문학서적들과 력사책들이 많았다. 이것이 천세봉의 마음을 끌었다. 저 많은 책을 어떻게 하면 다 볼수 있을가. 책빌리러 가면 선생은 친절히 빌려주군 하지만 한편으로 미안한감도 들었다.

선생의 딸과 결혼하면 그 집의 책들을 다 볼수 있지 않을까. 그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천세봉은 마침내 용단을 내려 선생에게 청혼의 뜻을 전달하였다. 그후 스승의 딸과 결혼하였다.

여기에 천세봉의 문학에 대한 열정과 작가의 모습, 그의 인간적모습이 비껴있다.

8.15조국해방은 천세봉의 생활에도 새로운 전환을 가져왔다.

해방직후 천세봉은 아버지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농민조합을 조직하는데 발벗고 나섰고 그 자신이 한개 면의 농민조합조직을 책임지고 각 부락으로 돌아다니며 농조를 무었다.

이 시기 천세봉은 군자치위원회 재정과장도 했고 력사적인 토지개혁법령이 발표되자 군내 한 지역에 나가 토지개혁사업을 직접 말아하기도 하

였다. 그때 그의 아버지는 1, 200평의 땅을 분여 받았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천세봉은 고원인민유격대에 들어가 《유격대통신》 편집사업도 했고 전투들에게도 참가하였다. 이때의 공로로 하여 그는 주체 40(1951)년 공로메달을 수여받았다.

조국해방전쟁이 끝난 후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농업협동화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천세봉은 마을에 협동조합을 내오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내오고 그자신도 준비위원회성원으로 되었다. 그때 그의 집은 모임장소로 되었다. 처음으로 조합을 맺는것만큼 애로와 난관도 한두가지가 아니었는데 안타까울 때마다 마을사람들은 그를 찾아와 스스럼없이 사업을 의논하곤 하였다.

천세봉은 작가로 되기까지 고향에서 농민들과 한가마밥을 먹으면서 생활한 실제상의 농민이었다.

그는 고향에서 머슴살이와 고용로동으로 잔뼈가 굳어졌고 새 조국 건설과 조국해방전쟁, 농업

협동화의 직접적참가자였으며 투쟁과 생활의 정확한 길을 걸은 이 나라의 훌륭한 공민이었다. 이러한 사이에 그의 몸에는 저도 모르게 흙내가 배이게 되었고 고향과 땅에 대한 사랑이 깊어갔다.

고향, 땅, 천세봉, 소설가는 이렇게 련결되었다. 고향을 떠나 천세봉이 없고 땅을 떠나 작가로서의 그가 없다. 그는 생활적으로, 아니 운명적으로 이렇게 깊이 련결되었다.

작가 천세봉은 해방전 머슴살이와 고용로동을 통하여 나라 잃은 민족의 설움과 고통을 사무치게 느꼈고 해방후 인간으로서 참된 삶을 누리면서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고마움을 심장으로 느꼈다. 그는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총을 메고 원수를 치는 싸움에서, 농업협동화시기 역시 그 직접적참가자, 집행자의 소중한 체험속에서 혁명의 진리, 투쟁과 생활의 진리를 배웠으며 그속에서 작가수업을 했고 소설가로 자라나게 되었다.

(다음호에 계속)

☆혁명일화☆

새로 찾아주신 혁명사적지

몇해전 3월 중순이었다.

혁명사적부문의 일군들은 뜻밖의 소식에 접하게 되었다.

어느 한 인민군부대를 현지도하시고 돌아오시던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룡악산에 오르시어 50여년전 어버이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를 모시고 룡악산에 오르시어서 취를 뜬어 씹을 싸잡수시던 일이 잊혀지지 않는다는 감회깊은 말씀을 하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일군들의 생각은 자못 깊었다. 오래전의 일도 그이께서 잊지 않고계시였기때문이었다.

동시에 얼굴이 뜨거워나기도 했다.

지금까지 룡악산과 관련한 혁명사적사업을 구체적으로 하여오느라고 하였는데 이런 빈틈이 있을줄은 미처 몰랐기때문이었다.

이날부터 일군들은 룡악산일대의 사적자료들에 대한 재발굴고증사업에 달라붙었다.

이 과정에 주체37(1948)년 5월 중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과 함께 룡악산을 찾으신 력사적인 사적자료가 새로 발굴고증되었다.

력사적인 그날 백두산녀장군께서는 어버이수령

님께서 룡산인민학교(당시)학생들과 담화하시는 사이에 경애하는 장군님과 함께 룡악산에서 취를 뜬어다가 수령님께서 점심식사를 하실 때 취쌈을 싸잡수시도록 하시였던 것이다.

어느 한 인민군부대의 일군들과 군인들은 한결 같이 떨쳐나 새로 발굴고증된 이 혁명사적지를 원상대로 훌륭히 꾸려놓았다.

주체89(2000)년 12월말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 부대에 찾아오신 기회에 새로 꾸린 혁명사적지를 돌아보시었다.

그이께서는 사적지가 공원화되지 않고 원상대로 잘 꾸려진데 대하여 크나큰 만족을 표시하시며 지금도 어머니님과 함께 수령님을 모시고 룡악산에 와서 취를 뜬어 점심식사를 하던 일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그때에는 이곳에 취가 많았기 때문에 밥과 고추장만 가지고오면 되었다고 감회깊이 말씀하시었다.

이처럼 50여년전의 일도 잊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상하고도 정확한 기억력에 의하여 예로부터 《평양의 금강산》이라고 불려온 룡악산이 고이 간직하고있던 또 하나의 이야기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박봉운

황금산의 소원

송해경

올해에도 나에게는 갈 곳이 많았다.

지하에 갇힌 3일간의 투쟁을 통하여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에 대한 충신의 변함없는 자세를 보여준 귀중한 탄부들이 있는 탄전에도 가고싶었고 광물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돌격전을 벌리고있는 정든 광부들이 있는 그 광산에도 가고싶었으며 서해간석지건설자들의 발자취도 더듬어보고 어느 한 산골굴에서 자체로 건설한다는 식료공장건설장에도 몸을 꼭 잠그어보고싶었다.

그러나 나의 한해의 그 모든 열망들을 하나로 대신해주는 지점이 있었으나 그것은 내가 나서자란 고향, 나를 작가로 키워준 은하방이었다.

깊은 골짜기, 숲을 흔드는 바람소리와 골개물 소리만이 소연한 이 산골이 단지 나서자란 고향이라는 이유때문에 내 마음을 이리도 강렬히 끌어당기는것은 아니었다. 그 골짜기에 태를 묻고 자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일처럼, 기쁜 명절처럼 잊지 못하는 그날이 있었으니 주체36(1947)년 9월 29일, 조국이 해방된지 두해째 되던 그 가을에 아버지수령님께서 산간마을 인민들의 생활이 걱정되시여 바쁘신 나라일도 다 뒤로 미루시고 양덕군 은하리 구지골을 찾으시였던 바로 그날이었다.

머루, 다래덩굴이 우거진 길아닌 오솔길을 헤치고 구지골에서도 막바지 리로인네 고삭은 귀틀집을 찾으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닳아진 명석자리우에서 목침을 베시고 산골의 긴긴 가을밤을 지새우시었다.

그밤 등잔불심지를 돌구어가시며 구지골사람들에게 산을 잘 리용할수 있는 방도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신 수령님께서서는 이튿날 새벽 찬이슬에 옷자락을 적시시면서 해발 천여미터를 헤아리는 치마대등판에 오르시었다. 발밑의 깊은 골짜기에서 솟아오르듯 불끈 치솟는 아침해와 더불어 고원우에 무연히 펼쳐진 기름진 초원을 바라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치마대에서는 소와 양을 기르고 척박한 땅이라도 잘 다루어 농사도 짓고 온갖 산중부원을 말끔히 거두어들여 수입을 높인다면 산골사람들도 능히 도시별방 부럽지 않게 잘살수 있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하늘아래 첫동네 깊은 산골에 소문도 없이 찾아오시여 대대로 가난에 시달리던 부대기인생들을 따듯이 품에 안아 행복의 상상봉으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그 은정이 너무도 고마와 귀틀집 리로인은 그날의 그 영광을 대대손손 자손들에게 물려주려는 념원에서 어느해 어느날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자기 집에 들리시였었다는것을 목책에 토박토박 적어넣었다. 그러자

수령님께서서는 그보다도 모든 산에서 황금을 따내라고 적어서 자손들에게 물려주는것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말씀하시었다.

그날에 리로인에게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그 말씀은 오늘도 구지골의 산골짜기들마다에서 메아리쳐 울려오는듯싶었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구지골을 떠나시기 앞서 헤여지기 아쉬워하는 사람들에게 은하리사람들이 잘살게 될 때 편지를 하면 다시 찾아오시겠다는 말씀을 남기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녀가신 뒤 은하리에는 초가집, 귀틀집, 동기와집들이 자리를 털고 문화주택으로 변모되었으며 골짜기마다 뽕밭이 들어앉아 누에고치가 쏘아지고 산파실가공공장에서 만든 포도술과 오미자시럽, 도토리단묵 등 여러가지 산파실가공품들은 온 나라 방방곡곡으로 실려가 양덕의 자랑으로 되었다. 하지만 은하리사람들은 그 행복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 30년세월이 흐르도록 편지를 드리지 못하였다. 좀더 무엇인가 큰것을 해놓고 편지를 올리고싶어 선뜻 붓을 들지 못하고있었다, 은하리인민들의 그 소원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의 은하리현지지도 30돛이 되는 해에 은하방에 태어난것이 바로 은하청년분조였다.

40대의 담임교원과 함께 20여명의 은하중학교 졸업반처녀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영원히 빛내이고저 고향땅에 뿌리내릴 결심을 한 뒤 그들은 정당 1톤도 못내던 자갈밭과 모래밭에서 7톤이상의 수확을 내고 자기들의 첫 분배몹과 함께 은하리가 이제는 잘살게 되었다는 그 약속의 편지를 위대한 수령님께 삼가 올렸다.

몸소 그 편지를 보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너무도 기쁘시여 은하청년분조원들에게 돌우에도 꽃을 피운 동무들이라는 분에 넘치는 평가와 함께 회답편지까지 보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린 그들의 소행이 너무도 기특하시여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친아버지심정으로 그들의 결혼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관심을 돌려주시였으며 그들에게 후대들이 태어나 소학교에 입학하는 그날에는 교복과 학용품일식을 보내주시고 그 고마움을 토박토박 적어드린 입학생의 편지를 보아주시고는 친필서한까지 보내주시여 후대들의 앞날까지 축복해주시었다.

황금산의 새 력사와 더불어 그 행복의 절정에 올라 생의 환희를 누려가는 은하방의 후손들인 은하청년분조는 오늘 수백명의 대오로 자라났다. 양덕땅은 물론 평양과 지방의 각지에서 중학교졸

업생들과 근로청년들, 제대군인들이 탄원해오고 있다. 새 세기에 들어서면서 은하땅에는 2세대 은하청년분조가 탄생하였다. 1세대 은하청년분조의 아들딸들이 부모들의 뒤를 이어 또다시 고향땅에 뿌리내렸던 것이다. 이것은 부모와 자식간의 생의 계승을 뛰어넘어 사랑과 념원, 생활과 투쟁, 삶과 번영의 공통된 지향으로부터 이루어진 신념과 의리, 순결의 고귀한 계승이었다.

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축복 속에 소박한 농촌처녀들이 조선로동당원으로, 농장의 초급지휘일군, 관리위원장,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서 성장한 은하청년분조는 사랑하는 자식들이 뒤를 굳건히 이어나감으로써 자기의 자랑스러운 이름을 세상에 다시금 소리높이 떨칠수 있었다.

나 또한 은하청년분조의 이름속에서 자라난 작가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은하청년분조원들에게 보내주신 회답편지를 해빛밝은 교실에서 함께 받아안고 중학시절 꿈꾸어온 희망을 보다 크나큰 희망으로 바꾸며 은하땅에 달려나온 나를 은하청년분조는 소중히 받아안아 억세게 다듬어서 작가로 내세워주었다. 오늘도 나의 작품의 주인공들은 그 어디서 살며 일하건 고향땅을 가꾸는 농업전선의 청년분조원들이며 나에게는 마지막בות을 놓을 때까지 청년분조시절에 체험한 생활과 랑만을 헌신으로 그려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생의 충동과 열망으로 내가 배낭을 메고 달려갔을 때 1세대 은하청년분조원들의 중학시절 담임교원이었으며 이후에는 청년분조세포비서로 사업한 민명심선생님은 나를 두팔벌려 맞아주었다.

《우리 청년분조작가가 또 왔구만!》

《예, 또 왔습니다. 선생님, 수령님께서 찾아주셨던때로부터 60년이 되는 올해에 그리고 우리 청년분조가 조직된지 30년이 되는 올해에 제가 어떻게 이 땅으로 오지 않을수 있겠습니까!》

《그래. 와야지, 써야지. 이 골짜기가 깊듯이, 저 산악의 메부리가 높듯이 이 은하땅에 깃든 사랑과 보답의 이야기도 높고 깊은거야.》

몇해만에 은하땅을 다시 밟아본 나의 감동은 컸고 새로웠다.

밤나무골 옛마을은 간 곳이 없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현지도의 길에 들리시어 높이 평가해주신 어느 농장의 문화주택을 그대로 옮겨놓은듯한 문화주택 새 마을이 한쪽의 그림처럼 펼쳐졌다. 멀리서 보면 날개를 접고 내려앉은 한무리의 하얀 학떼같고 가까이에서 보면 그 아담함과 이채로움에 누구나 경탄을 금치못한다. 하지만 그것은 놀라움의 시작에 불과했다. 치마대를 거점으로 일떠선 대규모축산기지는 그 방대성과 실리성에 있어서 경탄을 자아내는 것이었다.

사시절 바람이 세차고 겨울에는 몹시도 추운 치마대의 자연기후적특성에 맞게 치마대와 점벌,

재룡산기지들은 소와 양들의 《여름철휴양소》로 꾸려졌고 그대신 안온한 골짜기바닥의 세바우축산기지는 소와 양들의 《겨울철정양소》로 모든 건물과 시설들이 현대미를 자랑하며 일떠섰다. 이 모든 거창하고 현대적인 창조물들을 은하청년분조원들이 앞장에 서서 일떠세웠다니 그 무궁무진한 창조적힘의 원천은 바로 60년전에 이 산촌에 비쳐든 태양의 따사로움에서 시작된 것이리라!

그뿐이 아니었다. 토지정리를 하고 꽃밭처럼 가꾸어놓은 푸른 강냉이포전들은 흐뭇하도록 작황이 좋은데 청년분조원들은 한낮의 무더위속에서도 숙소앞에 양여장과 온실을 건설하느라 땀을 흘리고있었다.

《양여장엔 정각도 세우고... 온실은 태양열에너르기온실이라네. 자 어때, 우리 은하청년분조 2세대가?! ... 이 모든걸 다 책에 쓰라구. 경애하는 장군님을 고향땅에 모시고싶은 간절한 소원을 안고 살며 일하는 우리 은하청년분조원들이 펼쳐가는 감동깊은 이야기들을 쓰고 또 써달라구!》

민명심선생님은 무한한 공지와 한생의 보람, 크나큰 소원이 뒤엎긴 눈물어린 웃음을 함뱌고서 나의 팔을 잡아흔들었다.

《이 산촌의 60년의 소원을 써달라구!》

그렇다! 60년의 소원이다. 구지골귀틀집에 찾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무릎우에 앉았던 세살잡이 리로인의 손자가 70나이를 바라보는 오늘까지 반세기가 넘는 세월속에서 커만가는 행복과 함께 생의 년륜처럼 다져온 이 은하땅의 소원,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황금산의 새 력사가 남은 가장 귀중한 산아인 은하청년분조가 대를 이어가며 절절히 품어안은 하늘같은 소원이다, 아버지 장군님을 이 은하땅에 모시는것은!...

그것은 또한 청년분조출신작가인 나의 소원이기도 하다. 갓 스물 어린나이에 황금산에 대한 첫 소설을 발표하였을 때 나를 축복해주던 민명심선생이 머리속에 떠오른다.

《이제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은하땅에 오시면 너의 그 성과도 꼭 말씀드리자.》

그날 민명심선생님은 나에게 이렇게 속삭였었다

그렇다! 그 어디에 가도, 그 무슨 일을 한다 해도 나는, 우리는 은하땅의 후손이며 오늘도 변함없는 은하청년분조원이다! 세월의 광풍이 제아무리 세차고 세기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휘날려온 저 붉은기가 솟아 빛나는 은하청년분조숙소에 잠시나마 짐을 풀어놓았던 사람이라면 그는 오늘날도 그날의 헌신으로 살아야 할 것이며 웅심깊고 수려한 황금산의 60년의 소원을 안고 살아야 할 것이다!...

나는 후더위오르는 가슴을 애써 녹잡히며 어디라없이 60년의 소원이 차넘치는듯 한 은하땅의 전변의 모습을 끝없이 바라보았다.

원화리의 전설

박정애

땅

조용히 나를 불러세우는가
가슴 울렁이게 하는 원화땅
걸음걸음 밝히는것은 흙이건만
흙기는 걸음조차 서슴어져
나도 몰래 흙 한줌 움켜쥐니
그 흙 알알이 그대로 글발인듯...
이랑이랑은 그대로 글줄인듯...

그 어이 혼하디 혼한 흙이라 하라
이 땅을 위해 한평생 바쳐오신
수령님의 낮과 밤
수령님 맞으신 눈과 비
이 흙속에 다 스며있고 다 어려있는
땅이라도 원화땅은
인민사랑의 위대한 전서는 아닌가

벼짚단우에 었어지는 생각

농민들의 단잠을 깨울세라
집뜨락에서 날 밝기를 기다리시며
아버이수령님 깔고 앉으셨던
이슬에 젖은 그 벼짚단 정히 쏘어보니
벼짚단에 소리없이 었어지는 생각
인민의 아들로 평생을 살아오신 수령님
피어린 빨찌산시절의 추억어린
오, 백두산의 찬서리 댄 그 락엽만 갈아...

반나절

가서야 할 곳 그 얼마나 많으랴
기다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으랴만
병고에 시달리는 한 농가집할머니 머리말에
오래도록 계시는 수령님

주름많은 이마를 살뜰히 짚어주시는
그 손길의 따스한 온기 온몸에 흘러들었는가
할머니눈가에 물기어리고
팔목의 맥박수 가늠해주시며
이어주신 육친의 숨결에
다시 높뛰는 심장의 박동소리

백약이 무효이고
긴병에 실망했던 할머니
봄물이 오르듯 밭그레 흥조어린 얼굴로
수령님 옷자락 부여잡고 일어서누나

아 반나절 수령님의 반나절
아버이의 한평생에
얼마나 많은 고목에 꽃을 피웠으랴

원화리의 하늘이야기

땅은 이야기하고...
나는 땅의 이야기를 듣고...

하루에도 그 몇차례
하늘에 돌아치던 놈들의 비행기
줄폭격 퍼부으며 날아지나던
전화의 날 이야기
수령님의 그 봄날이야기

까마귀무리처럼 하늘가에
놈들의 비행기 떼지어 날치건만
농민들과 함께 모를 내시던 수령님
전쟁을 잊으신듯 말씀하시여라
-누가 더 빨리 모를 쫓는가 내기합시다

그 시각
온 나라 하늘땅은 불구름에 덮였어도
수령님을 모신 여기 원화벌은
전승의 첫 봄들판인양
땅우엔 싱싱한 푸른 모
머리우엔 푸른 하늘
오늘도 전해지는 원화리의 하늘이야기

땅은 이야기하고
땅의 이야기를 나는 듣고
그날과 더불어 하늘은 푸르고

탄 복

가을날 불벌에 타들어
이삭을 살찌우는 물소리도 멈췄는가
하늘에 떠가는 구름소리도 들릴듯
해빛이 뜨거운 밭머리에 서신

아버이수령님
 누런 벼이삭의 알수를 세여보시는데
 수정기에 비가 많이 내려
 벼알들이 여물지 못했다는
 관리위원장의 대답을 들으시고
 웃음어린 시선으로 말씀하시여라

-사람의 눈에 티가 들어가면
 눈을 감았다 뜨는것처럼
 벼도 순간적으로 해빛만 보면
 생리적으로 수정이 됩니다
 올해 벼농사의 수확고가 떨어진것은
 고온의 피해를 심히 받은것때문이요

친근한 음성으로 일깨워주시는
 수령님을 우러러 관리위원장은 탄복했네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통찰하시고
 애국의 귀로 만물의 속삭임을 들으시는
 그분께 어찌 땅이 아뢰이지 않았으랴
 그분께 그 어찌 이삭들이 아뢰이지 않았으랴

저금통장이야기

여기에 있구나
 원화리사적관에 있구나
 저금통장...
 생각도 깊어지는
 우리 수령님의 저금통장!

수수한 조합원으로 받으신 그 분배돈
 저금통장에 오를 때는
 수령님의 존함으로
 쓰일 때에는
 오, 쓰일 때에는 인민의 이름으로

진정 저금통장이 말해주지 않느냐
 천만금이라 억만금이라

가사

전선길에 벼이삭 설레이네

령을 넘어 또 넘어 야전차 달리는네
 풍요한 대지에 벼이삭 설레이네
 금나락 물결우에 추억을 실으시는
 장군님마음에도 뜨겁게 설레이네

불빛없는 마을지나 가시던 전선길
 준엄했던 그 나날을 눈앞에 그리시네
 쪽잠마저 미루시며 천지개벽 구상 펼친

날마다 누리는 인민의 행복
 흥하는 내 나라 인민의 재부
 우리 수령님의 저금이 아니었던가고

원화리

논둑이 넘쳐날듯
 이삭이 무르익는 벌에 서니
 안개 자오룩한 벼바다 저 한끝에 계시는
 꿈결에도 그리운 수령님 뵈울듯

스적이는 벼잎에 옷자락 스치시며
 두렁길을 걸어나오실듯
 찬이슬 털어주시며 남먼저 밭머리에 나오시고
 마지막포전까지 돌아보시고 떠나시던
 못 잊을 수령님 그 모습

전화의 그날에는
 최고사령부의 프락처럼 찾으신 교장
 전후의 나날에는
 협동화의 농장으로 꾸리차고
 몸소 농장원이 되어주신 땅

보탑을 잡으시고 갈아빈진 땅에
 거름을 내시고
 씨앗을 묻어
 가을날 들에서 이삭을 걷어들이지 않았더냐

사랑의 추억으로 뜨거웁고
 그리움의 마음으로 끝이 없는
 원화리 원화리는
 수령님의 정든 교장인가 정든 집인가
 인민들과 한식술로 계시여라
 어버이로 계시여라
 위대한 농민으로 계시여라

김충기

사회주의대지우에 벼이삭 설레이네

불구름을 모르는 내 나라의 하늘아래
 탐스런 이삭들이 파도쳐 설레이네
 차창가득 승리의 신념을 담아실고
 야전차는 저 멀리 전선길을 달리네

아 전선길에 벼이삭 설레이네

백두산위인들의 숭고한 후대관을

칭송한 감동깊은 시형상

-서사시 《백두산줄기는 영원히 푸르리》에 대하여

김 학

올해 9월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불후의 고전적으로 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신지 30년이 되는 뜻깊은 이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이 불멸의 교육대강이 세상에 발표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교육은 나날이 더 높이 발전하게 되었고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마음껏 배우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다 모르고있다. 누구나 평범하게 여겼던 교과서에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 굽어치고있는가를...

서사시 **《백두산줄기는 영원히 푸르리》** (김승도 작)는 이에 대해 일정한 형상적해답을 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을 형상한 작품은 사람들에게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인식시키고 그들을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도록 교양하는데서 힘있는 무기로, 혁명의 교과서로 된다.》

서사시는 주체교육의 찬란한 새 역사를 펼치신 백두산3대장군들의 업적가운데서 교과서에 깃든 뜨거운 사랑의 역사를 시적으로 펼쳐면서 위인들의 숭고한 후대관을 감동깊이 보여주고 백두산줄기로 영원히 푸르를 우리 혁명의 줄기찬 명맥과 강성대국의 휘황한 미래를 금지높이 확인하였다.

혁명의 좌우명

억만금의 재부보다 더 귀중한것, 조국의 운명과 관련된 이것이 후대들을 위한 교육사업이며 교과서는 지식의 가없는 세계에 손잡아 이끌어주는 선생이고 그 나라의 지능과 문명의 표본이라는것이 백두산장군들의 한생의 좌우명, 혁명의 좌우명이라는데 서사시가 밝히고저 하는 사상정서적행의 하나가 있다.

혁명에서 교육이 그렇게도 중요하고 교육에서 교과서가 그렇게 필요하기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조선혁명의 씨앗을 뿌리시던 카툰과 오가자, 고유수에서 밤길도록 등잔불의 심지를 돌구시며 학생들의 교과서를 집필하시였다. 력사의 그 나날에 조선혁명을 위한 첫 교과서가 태어났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집필하신 그 교재를 손에 드시고 향

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인민교육의 첫 교단에서 아동단원들에게 혁명의 뜻을 심어주시였다.

주체교육의 력사적시원을 금지높이 읊조리며 서사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교육사업에 달렸다고 주체34(1945)년 11월 우리 당을 창건하신지 한달 보름만에 교육도서출판사를 창립해주시고 첫 북조선립시인민위원회의 의정으로 연필문제를 상정시키신 감동깊은 사연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병세가 심하여 몸은 피로왔지만 애써 아픔을 감추시며 교육도서출판사를 찾으신 력사의 추억을 눈물속에 더듬는다.

교육이 없으면 혁명의 오늘도 래일도 없다, 때문에 언제나 교육사업을 모든 사업의 앞자리에 놓아야 한다, 이것이 백두산3대장군들의 교육관이다. 하기에 전화의 그 불길속에서도 아이들의 교과서는 전선으로 수송하는 총탄과 함께 군용차에 실려 교사를 찾아갔고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까지 교과서문제가 토의되었던것이다.

1960년대가 저물어가던 어느해 여름날에 있었던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전하는 시인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있다. 현지지도의 먼길을 이어가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 어느 산골길에서 아이들을 보시자 차를 멈춰세우시고 다정히 이야기를 나누신다. ...교과서를 함께 나누어봐서 학습반이 좋다는 아이들의 철없는 그 조잘거림이 우리 수령님의 심중에 무겁게 맺혀있는줄 그 누가 알았으랴. 그리하여 며칠후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가 열리고 그 정치위원회를 **《학부형회의》**로 선포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절절한 음성이 장내를 울렸다.

...새 학년도에 새 교과서를 받아보는 재미가 아이들에겐 제일 즐거운 일인데 우리 학생들이 그 재미를 보지 못하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학부형이 아닌가, 오늘의 이 정치위원회는 학부형회의와 같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를 소박한 학부형회의로, 자신을 평범한 학부형으로 여기시며 교육문제를 대하시는 그 풍모에 바로 우리 수령님의 그토록 특출한 후대관의 깊이가 있고 위인상의 높이가 있다. 서사시는 언젠가 웰남의 호지명주석

이 나는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아이들에게서 돈을 받고 공부시킨다고, **김일성**동지는 아이들을 무료로 공부시키시니 그것이야말로 아이들에 대한 진짜사랑이라고 하면서 그 많은 돈이 어디에서 생기는가고 물을 때 우리가 돈이 많아 돈을 안 받고 아이들을 공부시키는게 이니라고 하시는 우리 수령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육의 혁명적성격과 인민적본성에 대하여 소리높이 노래하고있다.

...

세상에는 얼마나 많던가
교육사업이 하나의 기업이 되고 상업이 되어
인민의 고혈을 짜내고
아이들이 길거리를 방황하는 그런 나라들

허나 우리 수령님에게서
억만금의 재부보다 더 귀중한것은
후대들에 대한 교육사업
그것은 만경대가문의 천품이였고
대를 두고 이어오는
한생의 좌우명
혁명의 좌우명이였어라

...

그렇다. 한생 교육사업을 중시하신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께서 그러하셨고 우리 수령님의 한생이 그러하였으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좌우명이 그것이였다. 서사시는 《만경대가문의 천품》을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품모에서도 찾아보면서 일반화의 심도를 한층 강화하고있다.

어느해 초여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100여부나 되는 소학교, 중학교의 교수안을 며칠밤을 새우시며 보아주시면서 하신 말씀은 우리 가슴을 세차게 흔든다.

...

—이 많은 교수안을 꼭 보아야 하는것도
후대교육사업을 한결음 늦추면
조국의 전진이 열결음 백결음 미치기때문이다

...

서사시는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아버지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와 함께 경애하는 장군님은 오늘을 바쳐 미래를 꽃피우시는 미래를 위한 위대한 정치가, 우리 혁명의 훌륭한 계승자, 담당자들을 한품에 안아키우시는 자애로운 스승이시라는것을 깊은 서정으로 밝혀내었다.

교과서— 《총》

서사시는 백두산위인들의 숭고한 후대교육의 세계를 선군의 시대정신으로 노래하면서 우리의 교과서가 가지는 시대력사적지위를 철학적으로 밝혀냄으로써 시형상의 무게를 더욱 크게 하고있다.

어느날 나라의 종이사정으로 하여 교과서의 부수를 줄일데 대한 문건을 보신 우리 장군님께서 일군들에게 준절히 말씀하신다. —어머니들을 생각해보라, 천이 없으면 자기의 단벌옷이라도 뜯어 자식들에게 옷을 해입히고 쌀이 없으면 자기의 머리태라도 잘라 팔아서 자식들에게 밥을 해먹이는것이 우리 어머니들이 아닌가, 후대들을 위해서는 타산을 앞세우지 말라, 바로 이것이 우리 수령님의 산수였고 나의 계산방법이다. ...

...

—우리는 모두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여
나라의 일군으로 자라나지 않았는가
아이들에게 교과서를 못 주는것은
병사들에게 총을 못 주는것과 같다
응당 해야 할것을 하지 못한것과
생사판가리하라

...

정녕 우리 장군님에게는 타산을 전혀 모르는 다른 세계가 있었다. 행복한 날에나 준엄한 날에나 변함이 없는 그것은 자식을 키우는 천만어머니의 세계이며 혁명과 미래를 책임진 위대한 령도자의 사랑의 세계이다. 그 사랑의 세계는 아이들의 교과서를 병사들의 《총》으로 보시고 후대교육의 마당을 생사판가리하는 《결전장》으로 여기시는 그이의 가늠할수 없는 후대관의 정화이며 절정이다.

교과서문제, 교육문제를 《총》과 《결전》의 가장 운명적인 문제와 결부시켜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특출한 후대관은 불비 쏟아지는 전화의 나날 총포탄을 수송하는 군용차에 교과서를 함께 실어 아이들에게 보내주신 아버지수령님의 후대관 그대로이고 백두의 설한풍속에서도 우리 수령님께서 손수 집필하신 교재들을 밤새워 등사하여 아동단원들과 유격대원들에게 안겨주시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후대관이다. 백두산3대장군들의 이처럼 특출한 후대관을 탐구하여 형상한데 서사시의 발견이 있고 철학이 있으며 시대성이 있고 폭넓은 일반화가 있다.

서사시는 우리에게 오늘이 어려워도 래일에 대한 희망이 있고 우리는 일시적이며 눈가림식의 변화가가 아니라 영원한 인민의 변화가를 건설하

자고 한다시며 유치원과 소학교, 중학교와 대학에 이르기까지, 사회과학으로부터 자연과학, 문학 예술부문에 이르기까지 진리성으로 빛나는 주체의 교과서들을 품들여 마련하시고 모든 학생들에게 교과서가 다 차례진것이 제일 기쁘다고 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영상에 대한 풍만한 시적형상을 통하여 한평생 후대교육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백두산3대장군들의 위대한 풍모를 한껏 부각시키고있다.

《백두산교과서》

우리의 교과서는 단순히 지식이나 가르치고 문명을 전달하는 《책》인것만이 아니라 주체의 념을 심어주고 혁명의 진리를 깨우쳐주는 《백두산교과서》이며 따라서 우리의 교육은 한갓 과학기술인재만을 키우는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주체혁명의 대를 믿음직하게 이어갈 계승자들을 훌륭히 키워내는 성스러운 위업이다. 서사시는 백두산위인들의 후대관에 깃든 이러한 깊은 뜻을 심오히 밝혀내는데도 웅당한 관심을 돌려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야전차를 따라 백두산지구 밀림속에까지 이른 시인은 그이께서 지피신 우등불 앞에서 또다시 장군님의 내면세계에 삼가 들어선다.

...

한알의 군감자로 시장기를 달래시며
그이께선 말씀하시여라
-배움의 길이 막혔던 항일투사들에게
우리 글을 배워주고
주체의 념을 심어주시여
우리 혁명의 억센 골간을 키우신것은
수령님의 혁명업적중에서도

가사

영원히 병사로 살자

잘 가시라 사랑하는 나의 전우야
우리 서로 헤어진다 생각지 말자
떠나가도 마음만은 초소에 있어
순찰길을 걸을 때면 그대 그리리
아 인생길에 추억난길 벗이 많아도
병사시절 맺은 전우 잊지 못하리

잘 있으라 잊지 못할 전우들이여
어델 가도 동지들을 추억하리라
한가마밥 먹으면서 훈련길 걸은

가장 큰 공적입니다
수령님께서 항일의 나날
백두의 념이 어린 우리 식 교과서를
처음으로 집필하시고
그 교과서로 아동단원들을 가르치신
어머님을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야말로
백두산교과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

그렇다, 우리의 교과서는 그것이 사회과학교과서이건 자연과학교과서이건 문학예술교과서이건 모두 백두산3대장군들의 뜻이 어리고 숨결이 흐르는 혁명의 교과서, 《백두산교과서》인것이다. 거기에는 최첨단과학기술의 명마루를 향해 힘껏 펼쳐가는 비약의 나래, 이 땅우에 보란듯이 일떠세울 강성대국 그 장엄한 건설의 지름길이 있다.

하기에 서사시가 《그이는 가고계신다/새 세기를 이끄시는 그 걸음으로/종이우에 붓으로가 아니라/세계의 판도우에 백두의 혁명정신을 새겨가시며/걸음걸음 백두산교과서를 적어가신다》고 소리높이 웨칠 때 그것은 우리 교과서의 혁명적성격과 고귀한 전통에 대한 력사의 확인이며, 백두산3대장군을 운명의 태양으로, 삶의 스승으로 모시고 사는 끝없는 행복에 대한 시대의 례찬이며 휘몰아치는 광풍속에서도 더 아름답게 가꾸어지고 더 순결하게, 더 억세게 자라는 우리의 후대들, 백두의 후손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다.

서사시는 시종일관 경애하는 장군님의 내면세계의 개방으로 서정흐름을 이끌어가면서 립체적인 구성으로 백두산위인들의 후대관을 칭송하고 있는것으로 하여 인식교양적의의가 큰 감화력있는 작품으로 되고있다.

김승현

그 자옥에 이 마음을 고이 남기리
아 사람마다 청춘시절 추억 많아도
전호속에 남긴 추억 잊지 못하리

헤어지면 말은 초소 서로 달라도
병사시절 마음으로 값있게 살자
초소떠나 천리 먼 곳에 있어도
마음속의 군복만은 벗지를 말자
아 총대처럼 굳은 마음 간직한 시절
세월가도 변함없는 병사로 살자

합창음악의 60 년사에 대한 불멸의 서사시적화폭

-서사시 《혁명군가와 함께 천만리》를 보고-

김창조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아래 만발하는 주체
문학의 화원을 장식하며 창작된 서사시 《혁명군
가와 함께 천만리》(최준경 작)는 우리 합창음악
의 60년사를 노래한 또 하나의 우수한 작품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문학창작의 총적인 방향은 온 사회의 주
체사상화와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우리 당의 성
스러운 위업을 형상하는데 있다.》**

서사시는 많은것을 추억하고 많은것을 사색케
하는 작품이다.

서사시는 사람들속에 아직은 잘 알려지지 않은
공훈국가합창단의 력사에 깃든 선군령장의 위대
한 자욱을 력사적인 화폭으로 전개하였다.

시인은 서사시에서 《이 땅우에 터져오르는/2월
의 축포성》과 함께 그와 다른 《포성》을 감각하
였다. 그것이 바로 공훈국가합창단의 《합창음악
포성》이었다.

서사시는 백두산위인들의 품속에서 태어나 혁
명군가의 장엄한 메아리로 울려퍼진 력사의 첫
기슭이 2월이라는데서 서정의 출발점을 찾고 뜨
거운 걱정으로 세기와 세기를 이어온 력사의 년
대들에 깃든 합창음악의 60년사를 감회깊이 더듬
고있다.

합창음악의 오선지는 무엇을 노래하는가

오늘 이 땅우에 합창의 메아리로 울려퍼지는
하나하나의 노래는 선군시대의 숨결이며 위대한
령장의 빛나는 선군사상, 선군정치의 반영이다.

일찌기 음악은 자신의 첫사랑이라고 하시며 뛰
여난 음악적천품으로 선군음악의 대를 세워주시
고 친아버지의 손길로 합창단의 군가포성을 마련
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령도를 시에서
는 추억의 서정으로 뜨겁게 노래하고있다.

서사시는 합창음악사의 잊지 못할 첫 기슭으로
서정의 노를 저어간다.

...

《남산의 푸른 소나무》 노래로
력사의 새벽길을 열고
《조선의 별》 노래로

수령찬가의 첫 음률을 터친 우리 혁명

《유격대행진곡》으로

항일대전의 승리를 떨치고

백두밀림의 《사향가》로

조국해방의 봄을 안고온 우리 혁명

성스런 력사의 그 전통 이어

해방조선의 첫 문학예술산아들이 태어나고

잊지 못할 보안간부훈련대대에서

정규적혁명무력과 함께

합창음악도 첫 고고성을 터쳤어라

...

신념과 의지로 불타는 우리 혁명의 력사의 새
벽길에 메아리친 《남산의 푸른 소나무》로부터 시
작하여 수령칭송의 선물로 첫 음률을 떼고 반일
항전의 기백있는 톨조로 혁명승리를 떨친 위대한
혁명음악로정과 더불어 고고성을 터친 합창음악
의 선물은 다름아닌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
성장군의 노래》였다. 그리고 아버지수령님을 몸
가까이 모시고 불멸의 혁명송가를 터쳐올린 예술
인들은 다름아닌 《망국노의 쇠사슬을 풀어헤친/
짚신발의 배짱뽀이출신》 군인들이였다.

이로써 서사시는 우리의 혁명적인 합창음악의
력사는 해방후 조선인민군협주단의 예술인들에
의하여 수령칭송합창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긍지
높이 노래하고있다.

서사시의 서정이 합창음악사의 첫 기슭을 더듬
는것은 무엇때문인가.

사실 서사시는 합창음악의 60년사를 빛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송축하기 위한 목적
에서 창작되였다. 물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
성을 송축하는데서 반드시 력사적순차성에 따라
서정을 펴나가야 한다는 법은 없다. 하지만 위대
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에서 가장 중요한것이
합창음악사와 더불어 길이 전할 아버지수령님의
영광의 사적이다. 공훈국가합창단의 력사적지원
을 밝혀주신분이 다름아닌 경애하는 장군님이시
다. 공훈국가합창단의 어제와 오늘을 혁명적수령
관의 견지에서 보시고 그 영광스러운 력사를 밝
혀주신데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이 있다.

서사시는 합창음악사에 새겨진 경애하는 장군님
의 위대성을 아버지수령님의 업적을 빛내여가시
는 장군님의 위대한 세계에서 찾고 그를 형상적
으로 밝히려는 목적과 의도에서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로부터 시작된 해방후의 나날을 더듬는것으로 서정의 출발점을 떼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령님의 령도밑에 수령칭송합창으로부터 시작된 합창음악사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하다면 서사시가 제기한 형상적과제는 무엇인가.

서사시는 공훈국가합창단의 영광스러운 전투적로정과 성격, 불패의 위력과 영원불멸성에 대한 문제를 기본문제로 제기하였다.

서사시의 주제해명에서 시원문제가 형상적으로 밝혀짐으로써 합창단의 영광스러운 전투적로정의 첫 시발점문제가 해명됨과 동시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세계가 노래되었다.

서사시에서 노래된바와 같이 2월의 봄날에 태어난 합창단의 영광은 《떠나온 길》도 《영광의 언덕에 두고/수령의 노래 심장으로 부르며/가야 할 혁명의 천만리길에/승리만을 펼쳐가라고 믿어주신》 위대한 령장의 축복에 있다.

서사시는 활달한 백두산서체의 글발로 보내주신 영광넘친 불멸의 친필서한에 대한 주정토로와 함께 세상에 류례없는 합창음악포성을 울리게 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이렇게 노래하고있다.

...

가슴부루는 그 순간
합창단은 당중앙청사의 지붕밑에
결사옹위의 성새를 쌓고
방사포사격진지를 차지했다는
소개자의 씩씩한 인사말과 함께 시작된
합창공연을 주의깊게 보아주신 장군님
얼마나 만족해하셨던가

-오늘 합창단의 공연은
첫 인사말도 좋고
작품들의 사상에술성도 높았습니다
합창단은 내가 하고싶은 말을 다 하는
합창단입니다!
나는 앞으로 공훈합창단을
국가합창단으로 발전시키고
내가 직접 지도해주려고 합니다!...

...

공훈국가합창단의 성격과 지위가 력사적사실에 대한 서사적화폭을 통하여 감명깊게 노래되었다.

서사시는 선군음악합창의 선율은 평범한 음률이 아니라 선군령장의 목소리이고 호소이며 부름임을 정서적으로 감득하게 하고있다.

이로 하여 합창단의 영광스러운 전투적로정에 대한 일반화의 심도를 보장할수 있는 가능성이 보장되었다.

합창음악사의 갈피에 잇든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로고와 헌신을 서사시는 이로써만 보여주지 않았다.

적들의 어지러운 자유화바람의 잡음우에 더 높이 올려주신 합창단의 음악포성, 음악과 정치의 결합, 군가와 총대의 융합으로 내세운 선군나팔수의 역할, 악기편성과 배합음색의 작은 공간도 꿰뚫어보시고 값지게 엮어주신 예지, 전선행 야전차에 한덩이 차디찬 쥬기밥과 함께 실린 합창단의 공연종목과 새 노래악보, 구름너머 먼곳에 서도 안겨주신 고귀한 가르치심 ...

서사시는 이러한 시적일반화를 통하여 혁명군가포성이 울리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노래함과 동시에 민족의 어버이를 잃고 비애에 잠겨있던 군대와 인민을 혁명군가의 힘찬 합창으로 붉은기수호전으로 불러일으켜 이땅우에 태양의 력사가 영원히 흐르게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격이 높게 시화하였다. 바로 그로 하여 총대와 함께 공훈국가합창단의 합창음악이 위대한 령장의 선군정치실현의 보검으로 되었음을 다시금 천명하였다.

론리적으로 볼 때 두분의 위인의 형상선은 서사시에서 계승적련관을 보장하였으며 비약의 공간도 문제해결을 위한 일반화의 과정으로 무리없이 엮여졌다.

이로부터 합창단의 공연무대와 혁명군가에 대한 규정적해명이 부각되고있다.

...

진정 합창단의 공연무대는
《정일봉의 우뢰소리》
《조국보위의 노래》들로
백두의 거봉들이 번개치고
영웅의 고지들이 일떠서는 무대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선군의 기치따라 계속혁명 한길로》 노래들로
격전전야의 화약내가 풍기고
강성대국건설의 북소리가 울리는 무대
선렬들의 피와 같은 붉은색바람에
백번 싸우면 백번 다 이기는
선군조선의 혁명정신이 차넘치는 축도

...

공훈국가합창단의 혁명군가는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생명으로 간직한
총대철학의 선군가
붉은기철학의 신념가
인생철학의 영생가

...

서사시가 제기하고있는 근본문제에 대한 해명이 비로소 밝혀지게 된다.

서사시는 주제적과제에 대한 설정과 그 해명을 통하여 공훈국가합창단의 력사는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생명으로 간직하고 흘러온 력사이며 혁명의 천만리길에서 선군정치와 오선지우에 선군조선의 빛,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충정과 헌신, 로그가 새겨진 력사이라는 사상을 밝히고있다.

혁명군가의 독특한 성격에 대한 해명

락동강을 넘은 로배우들로부터 혁명의 3세, 4세가 성벽처럼 어깨걸고 부르는 공훈국가합창단의 군가는 절세의 위인의 숭고한 풍모에 매혹된 군대와 인민이 하나의 목소리로 부르는 장엄한 노래이다.

서사시의 총적인 주제를 해명하기 위해 시인은 합창단이 부르는 혁명군가의 성격에 대한 문제를 하나의 장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사시는 2장에서 격정없이 들을수 없는 10년전의 이야기를 펼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기념일을 맞이하던 그날에 우리 수령님께서 《백두광명성찬가》를 지으신 후 창작가들이 피로와한것은 《왜 아직 그이앞에 불멸의 태양송가를 지어드리지 못했는가》하는 죄송함이었다.

그리하여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지었던만...

...

-우리 나라에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있는데

또 무슨 장군의 노래가 필요한가

동무들의 성의는 고맙지만

나는 절대로 허용할수 없소!

그러나 드디어 용단을 내린 창작가들은 주체86(1997)년 2월 15일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경축공연의 첫 곡목으로 합창하였다.

...

격정에 젖으신 그이의 음성!

...

-내가 왜... 그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그 노래는 내가 그만두라고 그만쯤 말했는데

오늘 합창단이 부른것을 보면

나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충정이

얼마나 높은가를 잘 알수 있습니다

나는... 그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

...

몇백몇천마디로도 표현할수 없는 심오한 의미가 있다.

실제로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에 깃든 뜻깊은 사연은 2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거의다 말고있다.

무엇을 보여주려는것인가.

다름아닌 《최고사령관과 전사들사이에/민음과 충정으로 맺어진》, 《일심동체의 참모습》을 합창단의 력사속에서 보여주기 위하여 선택된것이다.

《공훈국가합창단의 혁명군가소리는/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다!...》고 하시며 오히려 합창단에 모든 영광과 민음을 다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끝내 합창단이 부른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들으시고 《그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고 하시며 자신에 대한 노래를 정 내겠으면 《<로동신문>하단에 소박하게 발표하》라고 하신 장군님.

《자신의 존귀하신 이름자대신/<당>, <조국>, <인민>자로》 가필해주시고 《이 땅우에 병사들에 대한 노래》가 더 높이 울리도록 해주신 어버이사랑에 열정의 심장 불태우며 련이어 써낸 절세위인찬가들...

이 가슴뜨거운 사실들은 자신에 대한 요란한 찬양의 노래보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의 노래를 더 중시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풍모를 일반화하며 동시에 령도자를 믿고 따르는 군대와 인민의 열화같은 마음이 어떤가를 보여줌으로써 합창음악사로 우리 혁명의 일심단결을 노래하려는 시인의 목적과 의도로부터 형상되었다.

이로 하여 위인의 숭고한 세계의 격이 높아졌다.

위인의 숭고한 세계와 군대와 인민의 충정의 세계가 하나로 엮여진 화폭은 위인형상론리에 부합되는것이며 그만큼 독특하다.

2장의 문제해명의 중심에 《김정일장군의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놓고 시정연설, 신년사, 새 노래들에 깃든 위인의 숭고한 풍모에 대한 시적일반화는 합창단이 부르는 혁명군가의 성격문제로서의 서정을 자연스럽게 이끌어간다.

하나의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기본으로 한 2장에서 보여주는것은 오직 수령님과 조국, 당과 군대와 인민을 자신보다 앞에 내세우시는 장군님의 숭고한 풍모로 하여 수령관이 정수로 된 혁명군가는 《일심단결의 동지가/조국수호의 애국가/성새, 방패의 정신가》로 되었다는 주장이다.

총적으로 서사시의 2장에서는 합창단이 부르는 혁명군가의 성격은 장엄성과 숭고성이라는것이다.

즉 합창단의 혁명군가는 시대와 력사를 선도해나가는 장엄한 포성, 수령찬가의 숭고한 포성이라는 독특한 성격의 의미를 해명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위인세계를 군대와 인민의 충정의 세계와 결합시켜본데 시인이 남달리 감수한 위대성형상의 독특한 발견이 있다,

혁명군가포성의 위용

서사시는 1990대의 시련에 찌든 나날들을 추억한다.

강성대국의 려명이 밝아온 오늘 혁명군가와 함께 천만리를 달려갈 시인이 지나간 나날, 그것도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를 추억하는것은 무엇때문인가.

서사시의 3장에서 시인은 총대를 앞세워 전진해온 우리 혁명의 추동력이 무엇인가를 가슴뜨겁게 토로하고있다.

...

원수들의 고립압살책동과
황포한 자연의 피해도 겹쳐
사람들 연기없는 랑돌집의 창가에서
숨죽은 공장들을 하염없이 바라보던 그때
무엇이 번쩍 앞길을 열었던가
무엇이 쿵쿵 가슴을 쳤던가

그것은 하늘의 구름장을 가르는 번개처럼
장군님 높이 드신 선군의 총대섬광
그것은 산밭을 날리는 대발파소리처럼
합창단이 터쳐올린 혁명군가포성

자연의 리치상에서 볼 때 번개가 치면 우뢰가 따르는 법이다.

마찬가지로 선군의 총대섬광이 있어 혁명군가의 포성이 울렸다.

시에서 《장군님 높이 드신 선군의 총대섬광》은 총대로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신념과 의지, 의도와 배짱을 번개로 형상한것이다.

또한 《합창단이 터쳐올린 혁명군가포성》은 장군님의 선군사상에 호응하고 그를 시대정신으로 확인한 혁명군대가 웨치는 호소를 의미하는것으로서 우뢰로 형상되었다.

결국 3장의 첫머리에서 서사시는 총대를 앞세워 전진해온 우리 혁명의 추동력은 위대한 선군령장이 선군시대의 앞장에 내세워준 공훈국가합창단의 혁명군가포성이라는것을 명백히 밝히고있다.

이를 위해 서사시는 그 우뢰—혁명군가포성의 위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상적론리의 요구로부터 가장 어렵고 간고했던 《고난의 행군》시기를 더듬고있다.

함박눈이 내리던 설날에 주신 최고사령관동지의 특별감사.

—오늘 진행한 공훈국가합창단 공연은
방사포의 일제사격과도 같이
정신이 번쩍 드는 공연이다
합창단은 신통히도 백두산을 닮았다

오늘 공연은 만점이 아니라 억점
이런 합창단을 가지고있는것은
민족의 자람이며 영광이다
합창단의 위력한 노래포성은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심장속에
무적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안겨줄것이다!...

방사포의 일제사격을 위해 새로운 《사격진지》들이 생겨났다.

최고사령부별동대—합창단은 위대한 명장의 결심을 실현하기 위해 공연무대를 《고정된 극장과 화려한 무대》로만 쓰지 않았다.

국가행사의 큰 회의장, 전승탑앞마당, 개선문광장등은 《항일빨찌산식야전공연활무대》였고 최전연고지들과 군함, 활주로, 섬방어대들은 《50년대 화선식중군공연활무대》였으며 우리 장군님의 발자취를 따라 설정한 이 나라 방방곡곡이 곧 공훈국가합창단—최고사령부별동대의 전투진지였다.

사실 서사시는 종횡무진인 사격진지를 가진 공훈국가합창단의 변화무쌍한 《전법》, 《전술》을 노래하였다.

서사시에서는 《재청공연》에 대한 이야기로 합창포성의 위용에 대한 문제를 심화시켜 이끌어내고있다.

무더운 중복날과 겹친 전승기념일에 선풍기도 없이 병사들과 함께 보신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관람은 《장군님과 병사들사이》에 한치의 간격도 없는 자리로서 《의자도 같은 의자 군인좌석》, 《심정도 같은 심정 군인감정》이었다.

희천의 로동계급과 함께 보신 공연도 역시 같았다.

군인들과 함께 보실 때 재청해주신 《내가 지켜선 조국》이나 로동계급과 함께 자리를 같이하시고 재청해주신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에 대한 이야기가 보여주는 의미는 자못 혁명군가포성의 위용에 대한 구체적의미를 심화시켜준다.

방사포의 일제사격의 총치휘자가 되시여 일제사격의 목표까지도 정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용모속에서 불타는 조국애와 피끓는 적개심으로 만장약된 방사포의 일제사격 하나하나가 곧 선군령장의 의지와 신념의 발사이며 불발이나 편차를 모르고 승리만을 확신케 하는 노래포성의 위력으로 되었음을 형상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이로부터 희세의 령장 김정일장군님의 특이한 성품이 일반화되고있다.

...

우리 장군님은 문무지략에
음악을 활용하시는 천하제일명장
총과 함께 노래를 벗삼고
역경과 화를 순경과 복으로 바꿔주시며
혁명의 총체를 도약시키시고
지구의 공전을 촉진시키시는분

...

《...사거리/총칼도 미치지 못하는 무한대》이고
《...위력은/지구를 뒤흔드는 용암분출의 불가
항력》을 가진 혁명군가의 합창포성은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배짱과 담력임을 서사시는 열정적으로
확신하였다.

혁명군가—합창포성의 위력을 백두의 천출령장
의 담력과 배짱과의 형상적연관속에서 보고 그를
예술적으로 해명한데 3장이 가지는 중요한 의의
가 있다.

서사시는 군가합창단의 전투적로정에 대한 력
사적화폭을 통하여 공훈국가합창단의 력사는 백
두산위인들의 슬하에서 백승의 승전가를 불러온
영광의 력사로 되었으며 영원히 총대와 함께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필승불패의 음악
포성으로 받들어 갈 승리의 력사로 될것이라는
사상을 힘있게 천명하였다.

혁명적수령관이 구절마다에 맥박치는 서사시는
예술적인 측면에서 자기의 독특한 면모를 보여주
고있다.

서사시는 구성을 합창음악의 시원과 전투적로
정, 혁명군가의 독특한 성격, 합창포성의 위용에
대한 문제로 구분하여 사상주제적과제를 설정하
고 해명하였다.

이를 위해 1장에서는 공훈국가합창단의 시원과
창립날자설정에 대한 이야기, 2장에서는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에 대한 이야기,
3장에서는 재청공연이야기를 설정하고 주제사상
적과제에 맞게 집약화, 집중화를 보장하는 한편
일반화의 심도를 높이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력사문헌적설명으로 될수 있
는 부족점을 극복하고 예술적형상의 깊이를 보장
하였다.

서사시는 또한 언어문제에서 이채로운 특징을
보여주고있다.

서사시의 언어문제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보게
되는것은 시대어의 능동적인 활용이다. 서사시의
시대어는 선군시대의 성격이 표현된 어휘들로서
구체적으로 군사술어와 음악술어의 결합으로 나
타나고있다.

《합창음악포성》, 《총대뿔》, 《군가포성》, 《총
대가수》, 《혁명군가포성》, 《합창포성》, 《음
악방사포성》, 《음악방사포부대》, 《합창방사포》,
《혁명군가발사대》 등은 서사시의 사상적내용과
일치하고 뜻폭을 넓혀주는 시대어로서 시인에 의

하여 새롭게 탐구된 이채로운 어휘들이다.

이와 함께 서사시의 어휘표현에서 규정성이 강
하게 보여지고있는것도 특색이 있다.

1장에서 공훈국가합창단의 혁명군가를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생명으로 간직한/총대철학의 선군
가/붉은기철학의 신념가/인생철학의 영생가》라고
규정하고있다. 2장에서는 혁명군가를 《수령결사
옹위의 심장에서 터져오른/일심단결의 동지가/조
국수호의 애국가/성새, 방패의 정신가》라고 규정
하였다. 3장에서는 혁명군가를 《수령위업의 승리
를 멀쳐가는 계속혁명의 총진군가/강성대국건설
의 총동원가/반미대결전의 총결사전가》로 규정하
였다.

어휘표현에서 이러한 규정성은 매 장의 주제적
과제와 련관되어있고 장별 사상적의도를 재인식
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한편의 서사시 《혁명군가와 함께 천만리》로 보
는 공훈국가합창단의 력사는 우리에게 다만 공훈
국가합창단의 력사적전투행로만을 보여주는것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의 독창적인
정치와 노래로 승리해온 우리 혁명력사의 전모를
예술적으로 감득하게 한다.

선군의 내 조국과 더불어 수령칭송의 격조가
높이 울리는 혁명군가에 대한 서사시의 노래는
끊임없이 계속될것이며 군대와 인민은 영원히 그
노래들과 함께 당을 따르는 혁명의 천만리길을
승리로 이어갈것이다.

경구, 격언

○ 《어떤 사상이나 형상을 표현하기 위해 열가
지, 열다섯가지, 스무가지 말들이 떠오를수 있는
데 그중에서 최대의 진실을 표현하는 한가지 말
을 선택하는것이 피땀을 요하는 작가의 언어작업
이다》

○ 《피땀을 흘리는 노력을 요구하는것은 언어
에 대한 작업 즉 당신이 본것과 당신의 의식속에
웅고된것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려는 지향이다》

○ 《언어, 이는 사유의 도구이다. 언어를 되는
대로 다룬다는것은 되는대로 사유한다는것을 말
한다》

○ 《언어의 순결성, 의미성, 정확성, 예리성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은 문화의 도구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이다》

○ 《언어-이는 병사의 총과 같은 무기이다. 무
기가 좋을수록 그 병사는 더 강한것이다》

○ 《말은 모든 사실들과 모든 생각들의 옷이
다》

○ 《짧막한 말이 더 내용이 깊고 더 강한 인상
을 남긴다》



김영희

내 나서자란 고향을 동자동마을이라 부른다.

그림같이 아름다운 고장이다. 멀리 북쪽에는 운무에 휘감긴 수리산과 박죽산이 우렁이 솟아있고 룡마봉, 시루봉, 복주개봉이라 불리우는 높낮은 산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빙 둘러싼 아늑한 곳에 마을이 오붓이 들어앉았다. 마을을 에돌며 파란 비단필을 휘감아놓은듯싶은 남강이 흐른다. 상류에서 가파로운 골짜기들을 성급하게 치달아 내린 강물은 예와서 우리 고장의 아름다움에 취한듯 느슨한 흐름을 이루며 해맞이산의 깎아지른듯 한 절벽 밑에서 한참이나 섰돌다가 어쩔수 없는듯 유유히 흘러간다.

하지만 뭉니뭉니해도 우리 마을에서 제일 멋스러운 풍경은 해맞이산 절벽우에 허리를 구부치고 강물을 내려다보는 동자바위와 그 아근에서 깃을 치며 노니는 왜가리떼일것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동자바위전설을 옛말로 들으며 자랐다.

옛적에도 우리 마을은 풍치 아름다운 고장이어서 린근의 량반, 벼슬아치들은 물론 멀리 서경과 개경의 대감, 꽃감님네들까지 말타고 교자타고 모여들어 음풍영월로 세월을 보냈다 한다. 산이 좋고 물이 맑아서인지 이 고장 너인들의 인물 또한 절색이어서 《해서의 색향》이라 불리웠다니 량반님네들이 왜가리구경만 온것이 아니었을것이다.

어느날 한 내인이 원님행차에 음식시종들려 불러왔다가 술취한 원님 성화를 이기지 못해 벼랑우에서 강물로 풍덩 몸을 던졌다 한다. 너인의 어린 아들은 벼랑우에서 엄마를 찾으며 하염없이 울고울다가 바위로 굳어져버렸다.

이듬해에 동자바위 아근 물가에 이상한 새들이 나타났다.

흰 대가리뒤에 검은 깃털장식을 한 날개는 재빛이고 가슴부위는 하얀 새가 긴 목을 꼬부리고 물가에 외롭게 서있었다. 문득 새는 푸드득 동자바위우로 날아오르며 통곡하듯 액액 거센소리로 울어대었다. 마을사람들은 죽은 너인의 혼백이 새가 되어 아들을 만나러 왔다고 하였다.

해마다 봄이 오면 새들은 어김없이 동자바위 물가로 날아왔다. 처음에는 한두마리가 날아오더니 점차 무리지어 날아왔다. 재빛날개를 가진 새 무리속에는 온몸이 백설같이 하얀 새도 있었고 울긋불긋 깃장식을 한 멧쟁이새들도 있었다. 마을에선 그 새들을 통털어 왜가리떼라고 하였다. 하여 우리 마을은 일명 왜가리촌으로도 불리우기 시작하였다.

마을에는 왜가리령감이라고 불리우는 할아버지가 살고있었다. 대추나무집 봄순이 할아버지를 그렇게들 불렀다.

마을에서 새벽별을 이고 대문을 나섰다가 저녁별을 이고 집으로 돌아오는이가 왜가리령감이였다. 농장원도 아닌 할아버지가 종일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수가 없었다. 삼을 메고 산에서 내려오는가 하면 강녘에서 찜뽕거리는 할아버지를 띄여보기가 일쑤였다. 늘쌍 무릎까지 걷어올린 정쟁이는 별에 타고 흙에 절고 물에 부풀어 거뒀한 고기비늘같은것이 덮여있었다.

우리 고장 토배기농사군인 할아버지는 분조장이라도 《장》 자리를 해본적이 없다지만 동리에서 제일 《센》사람이였다. 누구에게라없이 욕을 퍼붓곤 하였는데 우로는 농장일꾼들과 아래로는 마을조무래기에 이르기까지 지청구를 듣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엄마들은 우리 개구장이들을 신칙할 때면 《왜가리령감이 알았단파라. 가만두지 않을게다.》하고 울려대곤 하였다.

정말 룡강집 용삼이가 할아버지한테 되게 혼난 일이 있었다. 그 애한테는 켜히 개구리를 못살게 구는 나쁜 버릇이 있었다. 어느날 버들가지에 켜 개구리꺾미를 들고 우쭐대며 돌아오던 용삼이가 할아버지 눈에 걸렸다. 할아버지는 다짜고짜로 용삼이 바지를 벗기더니 솔뚜껑같은 손으로 엉덩 짹을 철썩철썩 갈겨대었다.

《에끼 못된 녀석, 해로운 벌레를 잡아먹는 개구리를 그렇게 못살게 굴겠느냐?》

용삼이는 개구리처럼 다리를 쭉 뻗고 엉엉 울었다. 용삼이 엄마가 달려와 사정해서야 그 애는 할아버지손에서 풀려났다. 《떡장구가 뭐라고 애한테 손찌검을 한담.》하고 웅알거리며 종종 걸음을 치는 용삼 엄마에게 할아버지는 엄하게 소리쳤다.

《애를 그렇게 길러선 못쓰오. 체고장 풀잎 하나, 개구리 한마리를 귀히 여길줄 모르는 애가 이다음 커서 제 부모 중한줄 알겠 갈소.》

그후 용삼이의 별명은 《떡장구》가 되었다. 우리 뒤집 길수는 까투리를 던치다가 할아버지에게 엉덩짹을 맞았다. 그 애의 별명은 물론 《까투리》로 되었다.

우리는 할아버지에게 혼난 분풀이를 봄순이에게 해대군 하였다.

《봄순아, 너네 할아버지보구 왜 《왜가리령감》이라고 한단니?》

《그건 왜 나한테 묻니?》

《너야 <왜가리손녀>가 아니가, 액액 고아대는 <왜가리손녀>. 꼬꼬 꼬자쟁이.》

우리가 허바닥을 날름거리며 놀러대면 봄순이는 새파래서 돌맹이를 집어들었다. 물론 우리는 돌팔매가 날아오기 전에 다람쥐처럼 내뺌군 하였다.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찍하면 나에게 딱한 심부름을 시키군 하였다. 《대추나무집에 꽃강냉이를 가져다줘라.》, 《봄순이한테 올감자맛을 보여라, 완두콩지짐을 가져다줘라.》

할아버지네 집에는 터발이 없었다. 앞마당의 터발에다가 무슨 나무모를 잔뜩 심었는가 하면 돌각담을 헐어내고 참외밭을 일구었던 곳에까지 나무모밭을 만들었다. 터발이 없으니 온 마을에 꽃강냉이 삶는 내가 구수무레 퍼질 때 봄순이는 침만 꿀꺽꿀꺽 삼켜야 하였다. 나는 꽃강냉이그릇을 들고 서둘러 대추나무집으로 달려가군 하였다. 그러면 봄순이는 반가와할 대신 오히려 비죽거렸다.

《우리 터발에선 감이랑 잣이랑 왕밤이 날테니까 걱정말어.》

우리 할머니는 늘 입버릇처럼 말하였다.

《사람은 후회될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런데 나에게는 봄순이를 놀려먹은 일을 후회하게 되는 날이 왔다.

내가 소학교에 입학하던 해 봄이었다. 그 봄에

우리 아버지네들이 북청회의정신을 받들고 새로 일군 과원에 사과꽃이 만발하였다. 복주개봉마루에는 과원을 지키는 파수인듯 늙은 소나무 한그루가 서있었다. 마을에서 옛적부터 신령스런 소나무로 받들리우던 그 나무결에다는 큼직한 파수막을 지어놓았다. 여름 한철 점심참이나 저녁이면 동리어른들이 이 파수막으로 모여들었다. 장기도 두고 한담들도 하였다. 아직 봄바람이 쌀쌀하건만 이 봄에는 청년들이 씨클련습을 한다며 저녁마다 예와서 풍작거렸다. 봉봉거리는 손풍금소리, 처녀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 재담군들의 익살, 온갖 구경스런 일이 이 늙은 소나무밑에서 벌어지는것이어서 조무래기들도 저녁술을 놓기 바쁘게 여기로 모여들었다.

우리는 일찌감치 와서 어른들의 눈을 피해 소나무우에 계바라울라가 채간껏 숨어있군 하였다.

아슬한 소나무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고향풍경은 얼마나 아름다웠던가.

불빛이 환한 집집의 창문들이 부러운듯 나를 올려다보는가 하면 절벽아래 강물을 하염없이 내려다보는 동자바위도 아슬한 발밑에 있었다.

해맞이고개우로 늦쟁반같은 둥근달이 봉식 솟아올랐다. 연연한 달빛이 쓰다듬자 산과 강, 나무들은 금시 생명력을 가진듯 부드럽게 번쩍거렸다. 하얀 꽃이 만발한 과원은 어찌나 깨끗하고 은은하고 아름다운지 숨이 콕 막히는듯 하였다.

달빛에 하얀 땀기오리처럼 선명한 오솔길로 처녀들이 깔깔거리며 올라오고있었다. 하얀 오솔길엔 손풍금의 느린 곡조가 구슬프게 깔리었다.

금시 깔깔거리던 처녀들은 사뭇 서글픈듯이 눈을 내리깔고 고수머리손풍금수결으로 모여들었다. 낮동안에 흘린 땀과 오른 먼지를 말끔히 씻고 새옷을 갈아입은 그들에게선 분내와 향수내가 물씬 물씬 풍겨왔다.

파수막에 다달으자 손풍금수는 경쾌한 곡을 치기 시작하였다. 처녀들의 구슬픔도 씻은듯이 사라져버린듯 캐드득거리고 밀치닥거리며 파수막으로 올라왔다.

발성련습이 시작되었다. 꼭 매미합창 같았다. 한참 소란을 떨더니 잠잠해졌다. 손풍금이 서정적으로 울더니 꺾꼬리가 우는듯 한 청아한 녀성고음이 벌들이 웃고있는 담청색하늘로 날아올랐다.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에 심었소

심었더니 마을에 꽃이 피었소

...

오솔길 저끝에 한무리의 총각들이 나타났다. 그네들은 신명이 나서 처녀들의 노래에 화답하였다. 웅글면서도 힘찬 중음이였다.

아- 처녀들 아침낮에 꽃보며 웃고

저녁에는 저녁에는 꽃속에서 노래부르오

이어 처녀들의 바스라지는듯 한 웃음소리가 밤의 고요를 조각조각 깨뜨렸다. 총각들이 나타난게 저리도 좋을가. 처녀, 총각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에 파수막은 금시 무너질듯 흔들거렸다.

별안간 쇠가마가 깨지는듯 한 소리가 울렸다.

《이제 무슨짓들이냐!》

나는 와들 놀라 왜가리처럼 목을 빼들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어깨가 딱 바라진 봄손이 할아버지가 파수막앞에 버티고 서있었다. 흰 장미에 덮인 크지 않은 눈이 달군 쇠조각처럼 어둠속에서 황황 타고있었다.

《왜 그러십니까, 할아버지?》

손퐁금수가 파수막에서 뛰어내리며 묻는 말이였다.

《자네들에겐 저 소나무꼭대기에 있는게 안보이나?》

손퐁금수가 목을 빼들고 나무우를 올려다보았다. 파수막안에 있던 처녀, 총각들도 일시에 고개를 내밀었다.

나는 꼭 탐조등에 걸린것 같아 고개를 움츠리였다. 《떡장구》의 씹씹대는 숨소리가 천둥소리처럼 들려와 속이 오마조마하였다. 《까투리》는 분명 머리만 처박고 궁둥이는 하늘로 쳐들었을것이다. 다행히도 둥근 달이 점점이 널린 구름사이로 얼굴을 감추었다.

할아버지는 필시 우리때문에 노했을것이다. 나무 웃초리에 올라앉은 우리들이 낭끝에 놓인 새알처럼 위태롭게 여겨져 달려온것이 분명했다. 그런데도 형, 누이란것들은 히히 호호거리며 노래만 부르고있으니 할아버지가 어찌 성을 내지않으랴.

《형감님, 소나무꼭대기에 뭐가 있다구 그리 노발대발이십니까?》

재담수인 《까투리》네 형이 비위살 좋게 늘어붙으며 하는 말이였다.

《임자들 눈엔 저 나무우에 있는 새둥지가 안보이나?》

나는 얼굴을 가리웠던 술가지를 젖히고 아슬한 우듬지를 올려다보았다. 우듬지 짝지발가지에 큼직한 새둥지가 매달려있었다. 비바람에 고삭은 낡은 등우리였다.

《새둥지가 어쨌다는겁니까. 새들은 노래를 싫어하는가요?》

《어쨌다는건가구? 저건 왜가리등우리올시다.》

할아버지도 재담수처럼 뒤집을 지고 응수하였다.

손퐁금수가 아직도 아리송한지 할아버지에게 다가서며 은근한 투로 물었다.

《그야 빈 왜가리등우리가 아닌가요. 노래소리에 설마 빈 둥지가 떨어져내리겠습니까?》

《차 이런, 젊은이가 영 담벽이로군.》

할아버지는 기가 차다는듯 제 무릎을 치더니 불거져나온 소나무뿌리우에 주저앉았다. 재담수가 얼른 담배를 권하였다. 어둠속에서 담배불이 빠르게졌다. 푸하고 내뿜는 뿌잇한 연기, 불끈했던 할아버지 속이 그렇게 타는듯 하였다.

《이 사람들아, 예전에는 저 동자바위아래 물가에 해마다 왜가리떼가 날아와 하얗게 덮이곤 했다네. 전쟁통에 그것들은 보금자리를 판곳으로 옮긴가보이. 산천이 불타고 이 산골에도 매일 폭탄이 떨어졌으니 새들이 깃을 들일데가 없었지.

전쟁도 끝나고 불탄 산에 나무도 어지간히 자랐는데 새들은 아직도 오지를 않는구만.》

늘 청청하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구슬프다못해 처량하게 들리였다. 담배불이 빨갛게 어둠을 태우더니 굴뚝같은 연기가 타래쳐올랐다. 할아버지 속이 얼마나 타면 저리실가.

《왜가리는 소나무나 밤나무, 참나무를 좋아한다네. 그것들이 이 늙은 소나무를 무척도 좋아했어. 꼭 예다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아 새끼를 깨웠어. 지금은 그것들이 날아와 알을 낳아 품을 때라네. 그런데 나무밑에서 풍썩거리면 그것들이 어떻게 둥지에 깃을 들이겠나. 왜가리가 날아오다가도 놀라서 달아날걸세.

어-유, 올해에는 그것들이 꼭 움직했는데...》

할아버지의 갈린 음성에는 얼마나 큰 슬픔이 어려있었던지 나도 울고싶어졌다. 왜가리가 없는 동자동마울은 꼭 자식없는 집처럼 허전하게 느껴졌다. 허리를 구뭇하고 물속을 하염없이 들여다보는 동자가 왜 오늘은 그리도 측은해보이는것인지...

사위가 하도 고요하고 밤공기가 어찌나 맑은지 손퐁금수가 죄스러워하는 속삭임조차 또렷이 들려왔다.

《할아버지 심정을 저희들이 미처 몰랐습니다. 사로청(당시)에서도 왜가리가 날아오도록 힘쓰겠습니다.》

《고마우이》

마을청년들은 발자국소리마저 죽이며 파수막에서 떠나갔다.

우리도 살금살금 나무를 내리였다. 딱! 마른나무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늦양푼 깨지는 소리만치나 요란하게 밤공기를 찢었다. 미웁쟁이 용삼이가 일을 쳤을것이다. 《어느 녀석이나.》 금방 할아버지의 고함소리가 터지는가 했는데 사위는 여전히 괴괴하였다. 남빛하늘에서 파란 별 두개가 새알처럼 동그란 봄손이의 눈처럼 비웃음을 띠고 반짝이고있었다.

굵은 고기비늘같이 터슬터슬한 소나무줄기를 타고 내려오니 할아버지는 여전히 나무뿌리우에 묵묵히 앉아있었다.

우리는 주뭇거리며 할아버지곁으로 다가갔다.

《나 다신 떡장구 못살게 굴지 않을래요.》

용삼이가 고개를 떨군채 웅얼거렸다.
 《오냐, 그래라.》
 나도 할아버지곁에 다가앉았다.
 《우린 왜가리둥지를 들추려 나무에 올라간게 아니야요. 거긴 알이 없는데요 뭐.》
 《안다.》

할아버지는 나와 용삼이 머리를 쓰다듬어주었다. 우리는 할아버지 겨드랑이밑으로 바싹 다가들었다. 할아버지의 옛말을 듣기 위해서였다.

《옛날 동자동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있었다. 어느날 소년은 파르스름한 새알 세알을 잠뱅이 앞설에 싸안고 집에 들어왔단다. 왜가리알이었지, 그 애 아버지는 아들을 사정없이 매질하였다. 그 애는 울면서 집을 뛰쳐나갔다.》

사실 그 애는 앓는 어머니 병구완을 하려고 위험한 나무 옷초리에 기여올라가 새알을 꺼내왔더라. 그러나 사람에겐 제 어머니보다도 더 중히 여겨야 할것이 있다는걸 아직 몰랐겠지. 아버지는 그걸 깨우쳐줄 대신 무작정 매질부터 해뒀구나.》

할아버지는 으스스리게 나를 꺼안았다.

《그 애는 후에 어떻게 됐나요. 집으로 돌아왔나요?》

《오지 못했다.》

구름속에 숨었던 달이 얼굴을 내밀었다. 주름진 할아버지 두볼로 눈물이 흐르고있었다. 피처럼 진한 눈물이었다.

나는 한평생 그 눈물을 잊지 못한다.

이튿날 저녁 나는 강가에서 할아버지를 만났다. 할아버지는 수수대로 엮어 만든 발을 강기슭 풀쭉에 물어주고있었다.

《할아버지. 그건 뭘하는거나요?》

《고기가 알쓰는 때여서 알쫄이터를 만들어준다.》

강에 물고기가 많으면 왜가리가 날아든다고 하던 할아버지 말이 생각키웠다.

나는 반두질로 잡은 물고기를 슬그머니 물에 놓아주었다. 알쫄이철에 물고기를 잡는건 부끄러운짓이다.

할아버지는 하던 일을 마치고 강쪽으로 올라서더니 나를 뉘큼 들어 목말을 태웠다.

《우리 해동이가 기특두 하지. 그 고운 마음이 기뻐서 할아버진 널 업고 다니겠다.》

목말을 타고 돌아오며 나는 할아버지께 물었다.

《할아버지 다리엔 왜 물고기비늘같은게 생겼나요?》

《왜가리가 울수만 있다면 내가 물고기가 된대도 나쁠게 없지.》

용삼이며 길수가 달려왔다. 그 애들도 목말을 타게 해달라고 할아버지께 졸라댔다.

《해동이처럼 좋은 일만 해라. 내 너희들을 다

목말래워줄테다.》

나는 으쓱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봄순이가 대문께 나와서서 새초롬한 눈으로 뻔히 올려다보고있었다.

×

봄순이가 전학을 간다고 하였다. 그의 아버지가 평양 가서 인민경제대학에 다니고있었는데 졸업을 하고 도급기관에 배치를 받았다는것이다. 학급애들은 도회지로 가는 봄순이를 부러워하였다. 그러나 나는 코웃음을 쳤다. 우리 동자동마을이 얼마나 좋은가,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동자바위도 있고, 우리 아버지는 전쟁때 전선에 나가 싸우며 훈장이랑 탔지만 도회지가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왔다, 봄순이 아버지만 못한것이 무엇인가.

봄순이와 헤어지는것은 섭섭하였다. 입이 뽀족한 그 고자쟁이와 헤어지는것이 어째서 서운한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어머니와 할머니는 오늘 종일 봄순이네 집에 가서 이사짐 꾸리는 일을 도와주었다. 봄순이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통 생각이 나지 않았다. 《너 좋았구나.》 하기는 싫고 섭섭하다는 말은 더구나 하기가 어색하였다.

나는 종일 강물에 낚시대를 드리우고 엉치에 굳은살이 박힐 정도로 앉아있었다. 물고기는 한마리도 잡히지 않았다. 물밑에선 송사리며 종개 따위들이 떼지어다니고 간혹 물우로 날치나 잉어가 푸들쩍 뛰어오르기도 하였으나 미끼는 앙큼스레 물지 않았다, 그것들도 나를 끌려주려 작정을 한것 같았다. 물고기를 잡아들고 봄순네 집으로 가보려던 궁냥도 허사가 되었다. 나는 봄순네 집이 뻔히 내려다보이는 등성이에 올라가 버들피리를 만들어 뽁뽁거리며 할일없이 덩굴었다. 그러나 정작 이사짐을 실은 자동차가 부릉부릉 떠날차비를 할 때는 참지 못하고 달려내려갔다.

봄순이 어머니가 굴뚝모퉁이에서 울고있었다. 역시 울가망이 된 봄순이가 어머니를 위로하는듯 하였다. 남편이 있는 도회지로 가는데 왜 우는지 모를 일이다. 나를 띄여본 봄순이는 새알같이 동그란 눈을 조프리더니 머리를 돌려버렸다. 에잇, 꾀한 계집애.

이튿날 학교에 나가보니 봄순이는 여전히 책상에 앉아 산수문제를 풀고있었다.

나는 반가와 소리쳤다.

《봄순아, 너 가지 않았구나.》

봄순이는 할짓 쳐다보더니 새침해서 공책에 얼굴을 수그렸다.

공부가 시작되었으나 나는 그날 선생님의 설명을 하나도 귀담아듣지 못했다. 봄순이가 왜 안갔을가 하는 생각만 머리에서 뱅뱅 돌았다. 수업

이 끝난 후 나는 재빨리 봄순이를 뒤쫓아갔다.

《봄순아, 너 왜 안 갔니?》

《왜? 내가 있는게 너한테 시끄럽니.》

《체, 바보같은게.》

나는 공연히 억울해서 눈뿌리가 화끈해졌다. 팔끄러운 성미나 령리한 봄순이는 어느결에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찰흙처럼 찹차분해졌다.

《할아버지가 안 간다고 버터서 어머니만 떠나 갔어. 할아버질 돌봐주라고 날 떨귀놓고 갔지 뭐. 이제부턴 내가 물긴구 불때구 밥을 해야 돼.》

나는 입이 팔자루처럼 헤벌어졌으나 일부러 꼴살을 찌프리고 속에 없는 말을 하였다.

《너네 할아버진 왜 도회지를 좋아 안할까?》

《나도 몰라. 할아버지는 동자동마을을 못 떠나 데. 예서 기다리는이가 있다나.》

그야 물론이지. 할아버지가 없는 마을은 얼마나 쓸쓸할까. 그러나 시치미를 따고 물었다.

《기다리는이라는건 또 뭐인가?》

《나도 모른다는데.》

봄순이는 증을 내며 팩 돌아서더니 제 동무들을 따라 달랑달랑 뛰어갔다.

왜가리할아버지가 기다리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 나는 어려운 숙제에 맞닥들렸을 때처럼 궁궁거렸으나 도무지 알도리가 없었다.

저녁에 온 식구가 밥상에 모여앉았을 때 나는 참지 못하고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는 듣다 첫소리라는듯 나에게 되물었다.

《봄순이 할아버지가 그래 안 갔던?》

할머니의 밥숟가락이 입언저리에서 멎었다. 술을 든 손이 가늘게 떨리는것 같았다.

구수한 내를 풍기는 감자장사귀를 들고 들어오던 어머니가 부쩍 호기심이 동해서 아버지에게 물었다.

《여보, 왜가리령감이 기다린다는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요?》

《글쎄.》

아버지는 통명스레 한마디 하고는 마른명태를 찢어넣고 끓인 감자장을 푹푹 떠서 맛스럽게 잡숫기만 하였다. 어머니가 무슨 발견이나 한듯 눈을 반짝거리며 아버지 귀에 대고 속살거렸다.

《그 령감이 재취를 하려는건 아닐까요?》

《실없는 소리.》

아버지는 삼삼한 성미인 어머니에게 언제 봐야 통명스럽다.

《아니 왜요. 그 령감이 아직도 정정하고 기력이 보통 아니던데요. 초봄에도 나무를 심을 때 그 령감을 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버지도 그럴사 한지 덤덤하였다. 어머니가 바짝 다가들었다.

《봄순이 어머니가 친딸은 아니지만 령감님을 친아버지로 모시는 그 마음이야 가늠하지요 뭐. 그러나 진짜효녀는 홀로 난 아버지에게 로친을

얻어주는거래요.》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봄순이 어머니가 할아버지의 친딸이 아니라는건 또 뭐가.

할머니가 숟가락 뒤등으로 밥상을 푹푹 두드렸다.

《화는 입에서 나온다더라.》

우리 집에서 할머니의 말은 교과서나 같은것이였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내려가더니 오래도록 들어오지 않았다. 어머니가 눈짓을 하길래 부엌에 나가보니 할머니는 없었다. 깜짝 놀라 마당에 나가니 할머니가 조각달빛아래서 터밭김을 매고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놀라서 마주보았다. 마주친 눈길들이 오래동안 내가 모르는 무슨 얘기를 저들끼리 주고받는듯 하였다.

오늘은 수수께끼만 한삼태기 쏟아진 날이다. 나는 이불속에서 마저 궁궁거리다 잠이 들었다.

×

해맞이산 양지에는 해마다 제일먼저 풀이 돋아나고 봄꽃이 피어난다. 냉이, 달래는 더 말할것도 없고 먹기 좋은 참나물, 기름진 싸리나물, 씹쌀한 삽주싹, 맛좋은 두릅나물 등 갖가지 산나물이 날 좀 뜯어주 하고 자라난다.

하루공부가 끝나면 나는 염소를 먹이러, 봄순이는 나물을 캐러 여기로 오곤 하였다.

봄순이는 저네 염소를 초피나무 밑동에 매여놓고 저만 아는 곳에 있는 두릅나물을 뜯으러 골짜기쪽으로 달려갔다. 그 애를 쫓아다니기는 멧적은 일이여서 나는 염소들이 풀을 뜯는 언덕에 벌렁 나가누웠다.

간밤에 내린 봄비에 파랗게 씻기운 하늘은 맑기도 하였다. 풀밭에 다문다문 피어난 노란 민들레며 보라빛제비꽃에서 알싸한 향기가 코를 찔렀다. 이름모를 새들이 화살모양의 대형을 지어 유유히 날아가고있었다. 그것들은 우리 마을 하늘을 지나쳐 가물가물 사라져갔다.

올해도 동자바위물가로 왜가리는 오지 않았다. 알쏭달쏭한 의문을 풀지 못한채 한해가 지났다.

며칠전에 나는 녹두망질을 하는 할머니를 도와 주다가 슬쩍 물었다.

《할머니, 봄순이 어머니가 할아버지의 친딸이 아니란건 무슨 소리나요?》

할머니는 또 교과서적인 대답을 하였다.

《아이들이 어른들 일에 간참하면 못쓰느니라.》

할머니는 녹두지짐을 지져서 따끈따끈한것을 늦바리에 무독히 담더니 식기 전에 얼른 봄순네 집에 가져다주라고 하였다. 나는 우정 심술을 부렸다.

《싫어요. 애들이 날보고 뭐라는지 알아요? 해

동인 왜가리령감손자래요.》

《그게 뭐 나쁘냐.》

나는 펄쩍 놀랐다. 아리송하던 의문이 무슨 실마리가 잡힐듯 하였다. 언제인가 봄순이 할아버지가 우리 집 굴뚝 개자리를 봐주러 왔을 때 할머니는 햇숨을 두고 만든 명주조끼를 입혀주며 《오라버니, 꼭 맞누만요》 하고 여간만 곰살궂게 굴지 않았다. 그네들도 나와 봄순이처럼 한마을 앞뒤집에서 자랐다 한다. 지금도 오랍누이처럼 다정하였다. 그렇다면 혹시?!... 에이, 모르겠다. 할머니 말대로 어른들 일에는 간참 않는게 좋을지 모른다.

염소가 매-매 죽는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나는 생각에서 깨어나 벌떡 일어났다. 봄순이네 염소가 무슨 일인지 네굽을 하늘로 뻗치고 당장 숨넘어가는 시늉을 하고있었다.

나는 봄순이를 소리쳐 불렀다. 골안 깊숙이 들어가있었던지 한참후에야 봄순이가 헐떡거리며 나타났다.

《봄순아, 너네 염소가 독출 먹은것 같애. 몸통을 뒤트는걸 보렴.》

봄순이는 뾰족한 입을 비죽거리더니 태연히 말했다.

《독초는 무슨 독초. 봄철풀은 독이 없어. 새끼를 낳으려고 그래. 염마들도 저렇게 매섬질을 하다가 애기를 낳는데.》

봄순이는 동자질이랑 하더니 제법 어른티를 낸다.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어미는 네발을 바들바들 떨며 죽겠다고 태질을 하는데 배안으로부터는 새끼 두마리가 대가리를 뺄끔히 내밀고 구슬알같은 눈으로 바깥 세상을 또릿또릿 넘보고있었다.

행길쪽에서 자동차경적소리가 들렸다. 애기염소들은 위험을 느꼈는지 대가리를 움츠러뜨렸다.

사람들이 빼곡이 타고있는 자동차적재함에서 몸이 부한 녀자가 소리쳤다.

《애들아, 여기 뱀산이 어드메 있니?》

《그런 산은 이 아근에 없어요.》

나는 기분이 언짢아 소리쳤다.

《아니, 뱀이 많은 산 말이다.》

뱀이 많은 산이라면 독산을 찾는것 같았다. 할아버지는 뱀이 많이 서식하는 독산이 있어 왜가리떼가 좋아라 우리 고장에 날아온다고 했었다. 나는 불안스러워 서둘러 물었다.

《독산은 왜 찾나요?》

《오, 너 관리위원장 아들이구나. 난 군식료공장 지배인이다. 뱀산인지 독산인지 거기 뱀이 우글거린다지. 뱀술을 만들어 팔면 동자동마을사람들도 돈날가리에 앉게 돼.》

몸이 부한 녀자의 말에 적재함에 가득찬 녀자들이 하하 웃어대었다.

그 순간 자동차운전칸에서 흰 저고리에 까만 주름치마를 입은 중발머리녀자가 강중 뛰어나

더니 나에게로 달려왔다.

《네가 관리위원장 아들이니? 난 평양서 오는 기자란다. 아버지 어디 가면 만날수 있니?》

오늘은 찾아오는 사람이 왜 이리도 많담. 반갑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가운 손님도 있다. 반갑지 않은 식료공장 자동차는 어느새 해맞이고개 굽인돌이로 사라지고있었다.

그찰나 염소가 무섭게 비명을 질러댔다. 새끼염소가 뛰쳐나올 차비로 앞발을 내밀었던것이다.

처녀기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염소가 왜 저러냐?》

《해산의 진통이라나요.》

내 말에 기자는 까르르 웃어댔다. 그 순간에 새끼염소가 앞발을 쭉 내뻗치더니 어미배에서 튕겨어나왔다. 뒤미처 다른 놈도 강중 뛰쳐나왔다. 염지는 흐뭇해서 함치르르 젖은 새끼들의 몸통을 정겹게 활아주었다. 새끼들은 어미 젖통에 매달려 달콤한 어미자양을 암팡지게 빨아댔다.

《아이참, 고것들 정말 깜찍하네. 난 새끼염소들이 제발로 어미배에서 뛰어나오는줄은 감감 모르고 살았어.》

너기자는 손뼉을 치며 강중거렸다. 쳇, 헛내기구나. 나는 시뚏해서 앞서 걸었다. 봄순이와 너기자는 새끼염소를 한마리씩 안고 무어라 조잘거리며 따라오고있었다.

아버지는 마침 관리위원회사무실에 있었다. 봄순이가 먼저 쪼르르 달려들어가 염소새끼자랑을 하였다.

《우리 마을 식구가 또 늘었구나.》 하며 아버지는 서둘러 속보를 써주었다. 나는 그것을 들고나가 벽보판의 《우리 마을 소식란》에 압정으로 눌러붙였다.

《대추나무집 염소가 새끼 두마리를 낳았다.》

기자는 속보내용을 소리내어 읽으며 손뼉을 찰싹 쳤다.

《정말 재미있네. 마을에 좋은 주인이 있는게 분명구나.》

너기자는 우리 마을 전망계획도 앞에 오래도록 서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자랑이었다. 아버지는 독산과 시루봉에도 과원을 꾸리고 남강기슭을 따라가며 퇴적지에도 논도 풀 계획이었다. 벌써 몇 천평의 논을 개간하였다. 이 전망도를 보면서 도나 군에서 내려오는 일꾼들이 관리위원장이 궁냥도 통도 크고 제깍손 있는 일꾼이라고 칭찬하는 말을 나는 여러번 들었었다. 감동어린 너기자의 눈빛을 보며 나는 어깨가 으쓱해졌다.

어느덧 해는 수리산너머로 기울고 빨간 노을이 하늘을 절반이나 물들였다. 집집에서 이는 저녁연기가 대추나무며 살구나무가지에 흰 날개옷이 걸린것처럼 얹히었다.

술술바람이 강물우에 금빛물결을 일으키고 강기슭에 심은 왜싸리며 실버들가지를 살래살래 흔들었다. 락조에 물든 동자바위는 청동빛조각상처

럼 번쩍였다.

닭시대를 드리우고 풀숲에 숨어있던 내쪽으로
너기자가 빨래감을 들고 다가왔다. 그 너자는 너
력바위우에 선채 시를 읊조리듯 속살거렸다.

《아이, 어찌든 좋아. 진달래 핀 동산이 강물에
비꼈네. 강물은 어찌면 이리도 많을가. 흰 저고리
를 담그면 금시 파란 물이 들것 같네.

난 참 운이 좋아. 첫 취재를 나왔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고장에 왔거던. 사람들도 훌륭하구. 관
리위원장에 대해 쓰면 꼭 좋은 기사가 될거야.
난 참 운이 좋다니까.》

그찰나에 고기가 미끼를 건드렸다. 나는 어쩔
수없이 닭시대를 잡아챘다. 물린것은 종개따위였
으나 노을빛에 금빛잉어처럼 멋져보였다.

《어마나, 아이 기막혀.》

너기자는 무에 그리 놀라운지 연방 탄성이다.

《산골이 뭐가 좋아서 그러나요.》

나는 짐짓 심드렁해서 물었다.

《산을 보아도 물을 보아도 좋고 사람들은 더욱
훌륭하군요. 해동인 아버지를 사랑하겠죠?》

그야 물론. 나는 씩 웃으며 넌지시 중편보았다.

《우리 아버지가 신문에 나오나요?》

너기자는 방그레 웃으며 눈을 끄떡했다.

《사진도 찍나요?》

《그럼.》

복숭아꽃이 만발한 아래쪽 과원에서 꽃가루물
허주기를 하는 너인들의 은근한 노래소리가 들려
왔다.

노래소리 하늘 멀리 울리어가니

여기가 락원인줄 알아나주소

...

《아이참, 기막혀라.》

너기자는 발을 동동 구르더니 빨래감을 너력바
위에 놓아둔채 과원쪽으로 달려갔다.

그제야 나는 깜박기에 정신을 모았다. 꼭 잉어
를 잡아 너기자에게 맛보이라고 할머니에게 드려
야지. 마을에 오는 손님은 다 내 집 손님으로 여
기고 식사대접을 하는 할머니는 내 영뎡이를 두
드려줄것이다.

《해동아, 큰일났다. 왜... 왜가리가...》

달콤한 내 꿈을 박산내며 달려오는것은 《까투
리》길수였다.

《왜가리가 어쩔다는거야?》

《식료공장 자동차가 왜가리할아버질 꺾아버리
려고 해.》

이건 무슨 아닌밤중에 흥두께같은 소린가. 나
는 닭시대고 뭐고 다 팽개치고 길수를 따라 언덕
길로 달려올라갔다.

아니나다를가 독산에서 내려오는 언덕길에 할
아버지가 두팔을 뻗치고 떡 막아서있었다. 한손
에는 삽을 들고 다른손에는 어린 나무모를 권것

을 보니 어디선가 나무를 심다가 달려온것 같았
다. 바지가랭이를 걷어올린 정깡이에서 고기비늘
같이 러슬러슬한 살이 푸들거렸다.

그앞에는 식료공장 자동차가 두눈을 똑 부릅뜨
고 당장 끝받이를 할듯 부릉부릉 다가들고있었다.
운전사가 꼴이 나서 소리쳤다.

《아바이, 정 이러겠소. 넌장.》

《안돼, 못 가.》

할아버지는 길가운데 박힌 천연바위처럼 버티
고선채 벽력같이 소리쳤다.

불상사를 예감했는지 뚱뚱한 지배인이 날듯이
달려와 할아버지 팔에 매달렸다.

《로인님, 관리위원장과 다 약조가 있어 한 일
입니다. 농장원들의 부수입을 높이자는건데 왜
이러시나요.》

할아버지의 술진 눈섭이 털벌레처럼 꿈틀거리
고 작은 눈썹에서 번개불이 평긋거렸다.

《관리위원장이?! 주광호 이놈!》

《주광호 여기 있수다.》

어느결에 왔는지 할아버지 뒤편에서 아버지가
나직이 응수하였다. 아버지는 태연한것 같았으나
낮빛이 하얗게 질리고 입귀를 가늘게 떨고있었
다.

나는 숨이 꺾 막혔다. 이렇게 격노한 할아버지
도 처음 보거니와 이렇게 무서워진 아버지도 처
음 대하는터였다. 하긴 식료공장사람들앞에서 아
버지체면이 무엇이 되였는가.

아버지는 역시 아버지였다. 농장일군답게 낮빛
을 고치며 나직이 물었다.

《할아버지,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그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었다.

아버지쪽으로 뒤걸음 다가선 할아버지는 삽을
쥔 팔을 공중에 휘둘러대며 소리쳤다.

《대들보 뽑아 절구공이 만들 시라소니같으니.
돈 몇푼 얻자고 제 어미의 비너를 뽑아가는 아들
놈은 없어.》

울을 치고 돌러선 사람들이 어안이 병병해졌다.
식료공장 지배인이 아연하여 두사람사이에 끼여
들었다.

《아이고, 뺨 몇마리 잡은게 어머니 비너하구
무슨 상관일가. 로인님두 너무해요.》

할아버지는 지배인을 거들떠도 보지 않고 아버
지에게 다가들었다.

《임자생각엔 자네 아이적에 떼지어 날아오던
왜가리가 왜 오지 않는것 같은가?》

《또 왜가리타령이시우. 뭐 청년들이 저녁마다
파수막에서 노래를 부르기때문에 왜가리가 안 온
다고 했다면서요. 로망이웨다.》

《뭐가 어드래?! 임자도 아이적에 보았을테지.
저 소나무 잔가지에 뱀껍질이 주련이 걸렸던걸
말일세. 먼데서 보면 수십마리의 뱀이 소나무 꼭
대기에서 우글거리는것 같아보이지 않던가. 그제
다 새끼를 품고 앉은 둥우리로 사람들이랑 맹금

들이 거절 못하게 하자는거라네. 그런데 소나무 밑에서 풍작거리는게 옳은 일인가.

오늘일도 그렇지. 뱀이 많은 독산이 있어 왜가리가 우리 교장에 날아오던거야.》

아버지는 애가 마른다는듯 발을 탕탕 굴렀다.

《야-참, 왜가리가 안 오는게 어디 이 관리위원 장타입니까. 미국놈들때문이지.》

《자네 부끄럽지도 않나. 미국놈들이 폭탄을 마구 들부어 산을 불태워 새들이 깃을 들일 곳을 없앤거나 자네가 파수면적과 부침땅을 늘인다고 야산을 마구 벗기구 돈 몇푼때문에 제교장 뱀까지 씨를 말리려는거나 뭐가 다른가.》

《뭐 ... 뭐!...》

아버지는 아예 재빛이 되며 입을 항 벌린채 우들우들 떨기만 하였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사정 없이 도끼질을 해댔다.

《임잔 허파에 바람이 찼어. 관리위원회 앞마당에 요란스레 내붙인 전망도라는것도 따져보면 빛 좋은 개살구야. 뭐 독산밑에다 파수원을 만들어? 거긴 습지여서 과일이 되질 않아. 강변 퇴적지에다 논을 푸는것두 한두해는 덕을 볼지 몰라도 큰 물이 나면 오히려 더 많은 땅을 잃을거네. 거기다는 버들이랑 왜싸리랑 심구 수초가 무성하게 해야 땅도 보호하고 물고기가 알을 쓸어 왜가리들이 모여들게 된대네.》

《령감님, 내 두손 버쩍 들었수다. 이젠 제발 잔소릴 그만하구 딸네 집에 가서 여생이나 편히 보내슈. 제발됩니다.》

아버지는 언덜머리를 치며 두손을 쳐들기까지 하였다.

할아버지는 삽자루를 으스러지게 틀어쥐더니 아버지앞으로 바투 다가서며 들릴락달락한 쇠소리로 내뿔었다.

《내가 왜 가. 난 예서 눈을 감는 날까지 잔소릴 하겠네.》

주광호, 자네도 전장에 나갔던 사람이지. 이 한치의 땅, 한그루의 나무를 어떻게들 지켰나. 피는 얼마나 흘리고 생명은 또 얼마나들 바쳤나. 한포기의 풀이 돌고 한마리의 새가 깃드는 한치 땅값이 얼마게 자네 명예를 위한 밀천으로 다루는가. 어떻게 지킨 땅이게 감히 헐값으로 다루는가.

그래두 내가 잔소릴 그만둬야 하는가. 뭐 자네 같은 사람을 신문에다 낸다구?? 내 천리라도 쫓아가서 말리려네.》

《천리를 갈것도 없수다. 저기 기자선생이 있지 않소.》

아버지의 목소리는 영 판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리었다. 사람들 틈에 끼여있던 너기자는 황황히 자동차 뒤쪽으로 몸을 숨기었다.

나는 맥이 풀려 터벌터벌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서는 기사를 데려다 저녁을 함께 나누겠다고 어머니와 할머니가 지지고 뉘고 야단이였다. 나는 불이 부어 웅얼거렸다.

《다 걸어치우랴요. 기차는 오지 않아요.》

《건 또 무슨 소리가?》

어머니가 눈이 울롱해서 되물었다. 내가 고개마루에서 있던 일을 대충 이야기하자 어머니는 아연하여 할머니를 뵈히 쳐다보았다. 할머니는 얼른 시선을 피하더니 장작이 활활 타는 아궁이를 골뎠히 들여다보는것이였다.

저녁을 대충 먹고 숙제장을 펼쳐놓았으나 눈앞에선 의문부호만이 까불거렸다. 할아버지는 왜 우리 아버지가 신문에 나는걸 뱀이 풀려 하는걸가.

학습장에 었드린채 잠이 들었던 나는 매캐한 담배연기에 기침이 나서 잠을 깨었다.

담배연기는 옷방 문짚에서 꾸역꾸역 밀려나오 고있었다. 아버지가 여직 주무시지 못하고 애꿎은 담배만 피워대고있는 모양이였다. 어머니의 상냥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젠 그만 주무시랴요. 그 령감 성미가 워낙 그런걸 별걸 가지고 다 고민을 하시는군요. 오죽 피벽하면 왜가리알 세알때문에 친아들을 집에서 내쫓기까지 했겠나요.》

《저리 비키지 못하겠어.》

아버지는 애꿎은 어머니에게 화만 버럭 내었다. 어머니는 마냥 속이 웅해서 웅웅거렸다.

《남의 잔치상에 채를 뿌려도 분수가 있지. 참 패썹한 령감이라니까.》

나는 잠이 훌쩍 달아났다. 그러니 할아버지가 옛말로 들려주던 왜가리알을 꺼내온 소년이 그의 친아들이었던 말인가. 할아버지가 얼마나 되게 욕을 했으면 집을 뛰쳐나간 후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가.

새록새록 패썹한 생각이 덧치는지 마냥 똥알거리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령감이 왜 당신한테 그렇게 승치를 먹고 우욱거릴가요. 저... 흑시...》

《또 또 새빠진 소리.》

《그 령감 병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왜가리미친 중.》

진료소의사인 어머니는 제법 병명까지 꼬집어 대더니 자리에 눕는지 부시력거렸다.

《그런게 아니다.》

마치 방바닥이 짹 갈라지면서 울려나오는듯 한 절절한 할머니의 목소리였다.

《해동이 애비랑 다 내려오너라.》

할머니는 비너를 입에 물고 머리를 다시 쪽지더니 옷방에 대고 엄하게 분부하였다.

나는 이불속에 머리를 움츠리고 자는척 하였다. 옷방문이 드르렁거리고 아버지의 어쭙은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다른게 아니구 너희들이 봄순이 할아버지에 대해 잘 모르는것 같아서 그런다.》

할머니는 버릇처럼 한숨을 내그었다. 회억은

늘상 마음을 구슬프게 하는상싶었다.

《해방직후의 일이니라. 수봉이 (왜가리령감의 아들 이름이다.) 아버지는 그때 이 고장을 뜨려고 작정을 했었다. 그럴 사정이 있었어.》

할머니의 말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슬픔에 흐리마리해졌다. 그러나 이내 마음을 다잡고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수봉이네는 고모가 사는 남포로 가기루 작정을 했었다. 수봉 아버지는 가산을 올려놓은 지계를 지고 떠나다가 간밤에 내린 소낙비에 무너진 강쪽을 보자 예라, 마지막으로 이거나 손질해주고 가자고 지계를 벗어놓았다누나.

한참 뚝손질을 하는데 복주개봉 오솔길로 길안 내자인듯싶은 사냥군차림의 젊은 사람을 앞세우고 군복에 장화를 신은분들이 올라오시더니 스므나무밑에서 다리섬을 하시더라.

그중 한사람이 수봉 아버지한테 다가오더니 이 마을에 국수집 같은게 없는가고 묻더라누나. 피앗농사나 고작인 우리 마을에 그런게 있을락이 있니. 수봉 아버지가 미안스러워 어쩔줄 모르는데 강물우로 잉어란 놈이 푸들쩍 뛰어올랐다누나. 이걸 보자 젊은 사냥군이 잉얼 잡아 어죽이나 썬볼가 하며 사냥총을 쏘나들더라. 그러자 스무나무밑에 앉아계시던 다른분이 다급히 만류를 하시더라누나.

<그러지 마오 총소리에 저기 왜가리들이 놀라겠소.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이요. 우리가 이 아름다운 강산을 다시 찾자고 얼마나 멀고 험한 길을 헤쳐왔는지 동무는 아마 다는 모를거요. 강물우에서 왜가리 노니는 풍경이 얼마나 기막히오. 나는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구만.》하시더니 수봉 아버지한테 오시여 참 좋은 일을 한다고 하시더라.

수봉 아버지는 넋을 잃고 그분을 바라보았다누나. 그렇게 환한 존안은 처음 보았다질 않니. 림름한 기상이 법상치 않아보는 젊은분이드래.

그분은 곁에 있는 분들에게 이 외진 산골마을에도 제땅을 살점처럼 여기는 좋은 인민이 있는데 건국도 어려울게 없다고 하시며 저 수리산쪽으로 올라가시더라누나.

수봉 아버지는 강뚝손질을 마치고 길을 떠났는데 험레벌떡 달려오는 면당위원장과 마주쳤다누나. 면당위원장한테서 그 젊은분이 김일성장군님이신 줄 알았다.

수봉 아버지는 동리로 되돌아왔지. 그래 수봉 아버지는 수봉이가 왜가리알을 들고 들어왔을 때 그렇게도 노해서 아픈 매를 든거야.

20년을 백두산 설한풍속에서 싸우다 돌아오신 김일성장군님께서 그동안의 피로가 다 풀리신다고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고 하신 풍치가 아니냐.》

방안에는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만치 고요하였다. 아버지의 거센 숨소리만이 그 정적을 깨뜨릴뿐이었다.

밖에서는 비가 오는지 처마끝에서 락수물 떨어지는 소리가 간간이 들려왔다.

나는 할아버지 생각으로 온밤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

그밤 보슬비가 내렸다. 옷도 마음도 다 적서주는 봄비였다.

할아버지는 베자루를 메고 비속으로 달리고있었다. 길은 질척거리고 넘적고무신에는 진창이 찰떡처럼 달라붙었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험레벌떡 달렸다.

간이역까지는 30리길이였다. 열차는 한밤중에 산간역에 잠깐 멈춰선다.

할아버지가 숨이 턱에 닿아 역에 들어섰을 때는 밤열차가 도착하기 방금전이었다.

너기자는 가는 보슬비가 솔솔 내려붓는 외등아래서 상념에 잠겨 오락가락하고있었다.

《기자체네.》

《아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너기자는 온몸이 땅에 떠서 김이 문문 피여오르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놀라움에 차서 바라보았다.

《그렇게 가는 법이 어데 있나?》

너기자는 미안스럽기도 하고 실패한 첫 취재가 안타깝기도 한듯 울가망이 되어 긴 살눈섭을 슬벅거렸다.

《이보라구, 기자체네. 우리 관리위원장을 꼭 신문에 내달라구. 일을 많이 한 사람이야 일욕심도 있고 정열도 있고 능력도 있는 일군이지. 난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더 좋은 일군이 되라고 욕을 한다네. 그 사람을 신문에 크게 내달라구.

기자선생, 할수만 있으면 그 글에다 피로써 지킨 땅을 피보다 더한걸 쏟아부어 가꿔야 한다는걸 꼭 써주게나.》

《할아버지.》

너기자는 감동에 차서 목메여 부르짖으며 할아버지의 가슴에 와락 안겼다.

로인의 심장이 아직도 숨가빠 툭툭 뛰고있었다.

《할아버지두, 그때문에 비오는 밤길을 허위단심 달려오셨는가요.》

로인은 너기자의 어깨를 정답게 어루만졌다.

《그보다두 체네가 우리 고장에 대해 흐린 인상을 가지고 가는게 더 참을수가 없었지.》

《할아버지, 고마와요. 동자동마을을 잊지 않겠어요.》

열차가 들어섰다. 너기자가 승강대에 오르자 발차신호가 울렸다. 덜컥, 차가 움직일 때 로인은 들고있던 베자루를 승강대우에 올려던지며 소리쳤다.

《가을에 다시 오라구. 우리 집 대추가 별맛이야.》...

이것은 내가 펴 후에 들은 이야기였다.

×

강우에는 새벽녘에 안개가 내렸다. 희뽀히 밝아오는 새벽빛에 우렷하던 동자바위절벽도 안개에 묻혀 형체가 없어지고 해토무렵의 강우에도 짙은 안개가 가벼운 숨이불처럼 덮였다.

나와 봄순이 할아버지가 몸을 숨기고 앉은 마른 풀덤불주위에도 안개는 그물그물 기여들었다. 새벽랭기에 몸이 오싹 떨어났다. 할아버지는 명주숨둥거리를 벗어 나에게 씌워주었다.

《난 춥지 않아요. 아이하고 장독은 엄동에도 얼지 않는대요.》

《네가 뭐 아이냐.》

하긴 그렇다. 나는 벌써 중학생이 되었다. 유년 시절은 푸른 실토리가 풀리듯 거침없이 흘러갔다.

우리는 지금 정찰을 나왔다. 왜가리척후대가 나타날 것이라는 정보를 받은것이다. 정보는 물론 할아버지가 수집하였다. 할아버지는 동료정찰병으로 나를 지명하였다. 이걸 알면 봄순이는 뽀로통해서 입이 더 뽀족해질것이다. 나는 할아버지 거드랑이에 바짝 다가붙으며 물었다.

《왜가리척후대가 와서 뭘 정찰할가요?》

《고것들한테야 먹이감이 많은가가 첫째고 그담은 알랑이조건이 어떤가 하는거지.》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엔 느슨한 미소가 어리고 솟덩이같은 눈섭밑에서 실눈이 장난군아이처럼 반짝거렸다. 오늘은 할아버지의 명절인듯싶었다. 여직 풀지 못한 수수께끼는 이런 때 슬쩍 물어보는것이 상책일것이다.

《할아버지, 그... 옛말의 소년은 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가요?》

할아버지의 영채일던 눈이 금시 뿌옇해졌다. 나는 공연히 아픈데를 다쳤다고 후회하였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나를 껍 껴안으며 엄숙히 말하였다.

《우리 수봉이는 꼭 돌아온다.》

나는 할머니에게서 집을 뛰쳐나 남포에 있는 고모네집에 갔던 수봉형이 전쟁이 일어나자 나이를 속이고 전선으로 나갔다는것을 알아내었다. 수봉형은 전선에서 희생되었다. 전사통지서는 오지 않았으나 함께 싸운 전우가 찾아와 소식을 전해주었다는것이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아직도 수봉형이 희생되었다는것을 믿지 않고있는것인가. 아, 아 그러니 할아버지는 아직도 아들이 살아 돌아오길 기다리고있었던 말인가. 이걸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어른들의 속은 저 동자바위벼랑밑 소처럼 바닥을

알수 없는 심연이었다.

동녘이 푸름푸름 밝아오고있었다. 푸르푸레하던 하늘이 진보라빛으로 변하더니 다시 서서히 피빛으로 물들기 시작하였다.

처절한 전장이 아직도 저 하늘끝에 남아있는가. 거기에 수봉형이 쓰러져 피를 흘리고있는것은 아닐가. 저하늘은 어쩌서 저리도 고운 진홍빛으로 타는것일가.

나는 더운 숨을 뿜으며 나직이 부르짖었다.

《할아버지는 아직도 수봉형을 기다리지요.》

《그럼, 기다리구말구.》

미구에 해가 솟을 동녘을 주시하던 할아버지는 태연히 대꾸하고나서 품속에서 세모꼴로 접은 편지를 꺼내주었다.

《읽어라.》

누렇게 색바래고 나들나들해진 종이에 보라색 화학연필로 쓴 글자가 우렷하였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지금 송도원 백사장에서 이 글을 씁니다. 발부리에선 파도가 철썩이고 솔숲에선 향긋한 송진내가 풍겨옵니다.

이제 여기서는 솔숲을 불태우고 짓몽개며 전투가 벌어질것입니다. 우린 무성한 소나무숲에 전호를 깊숙이 파고 다가올 결사전을 기다리고있었습니다. 방금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이 전달되었습니다.

-송도원의 소나무를 상하게 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여기 개팔지대인 백사장에서 밀려드는 적을 쓸어버릴것입니다. 아마 여기서는 살아남기가 힘들겠지요. 그러나 마음은 훈훈합니다.

아버지, 부디 철없던 이 아들을 용서해주십시오.

정말 보고싶습니다. 고향의 모든것이... 내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 해도 아버지, 이 아들은 내 고향의 왜가리를 위하여, 송도원의 푸른 소나무한그루를 위하여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다 바쳐 싸웠다는것을 믿어주시십시오.》

아, 저 피같이 빨간 선홍색아침노을은 수봉형의 붉은 마음을 담은것이 아닐가.

이 편지는 누가 가지고왔을까? 봄순이 어머니가 가져왔다 한다. 간호원이었던 그 녀자의 무릎에서 수봉형은 숨을 거두었다. 편지를 전해주려왔던 그 녀자는 수봉형대신 대추나무집 딸이 되었다는것이다.

《할아버지!》

이름할수 없는 승엄한 걱정이 복받쳐 내 작은 심장도 벅차게 고통쳤다. 내 고향의 아침노을이 어쩌서 저리도 붉고 아름다운지 이제야 알것 같았다.

할아버지가 온몸을 부르르 떨며 부르짖었다.

《온다!》

나는 흰 땀기오리같은 오솔길쪽을 휩 돌아보았

다. 정말 군복입은 수봉형이 배낭을 메고 씨엉씨엉 걸어오는듯 한 환각이 떠올랐다.

《어딜 보는거냐. 해쓷는쪽을 봐라.》

할아버지가 내 머리를 잡아돌렸다.

동컨에선 기막히게 고운 노을이 타고있었다. 미구에 사파알갈이 붉은 해가 봉긋 솟아올랐다. 뜨는 해를 배경으로 까만 점이 아른거리고있었다. 그것은 점점 커지더니 날개를 퍼덕이는 새의 모양으로 또렷해졌다. 목을 S 자형으로 구부린것이 왜가리가 분명하였다. 그것들은 동자바위쪽으로 점점 다가오고있었다. 하얀 이마에 뒤통수의 까만 깃장식, 노을빛에 불그스레해진 재빛날개.

《봤다. 왜가리가 왔다.》

나는 벌떡 일어나 날뛰었다. 할아버지의 갈퀴같은 손이 내 잔등을 덮쳐눌렀다.

《쉴! 저것들은 정찰나온 척후대야.》

나와 할아버지는 풀덤불속에 까투리처럼 머리를 틀어박았다. 풀덤불밑에선 싹쓰레한 봄썩의 향기가 코를 찔렀다.

동자바위를 쓰다듬듯 스치며 맴돌던 왜가리들은 파랗게 씻기운 하늘로 높이 날아올랐다가 절벽아래 물가로 서서히 내려앉기 시작하였다.

《저것 봐라. 저것 봐. 꼭 잠자리비행기 내리는 형용이구나.》

할아버지가 기쁨을 참지 못해 아이들처럼 소리쳤다.

《조용하라고.》

이번에는 내가 할아버지의 옆구리를 내질렀다.

정말 왜가리들이 발가락을 꼭 벌린 긴 다리를 앞으로 뻗 뻗치고 내려앉는양은 직승기가 땅에 착륙하는 모습과 신통히도 같았다. 누군가 왜가리가 땅에 내려앉는양을 보고 직승기를 창안했는지도 모른다.

바람이 일자 안개는 흔들리며 덩이덩이로 흩어져 강우로 그물그물 떠다녔다. 아침해살이 엷은 빛을 뿌리자 신선하고 향기로운 입김처럼 절벽에 휘감겼던 안개는 슬깃슬깃 사라져갔다. 수목화갈던 주위의 산밭이 뚜렷해지고 고요하던 숲에서 이름모를 새가 우짚었다. 물가에 드리운 오리나무가지며 묵은 새초잎에서 이슬이 무수한 구슬처럼 아롱거렸다.

안개흐르는 물가에 긴 다리를 박고 사위를 두릿거리는 왜가리의 자태는 기막히게 멋들어졌다. 어쩐지 허전했던 동자바위물가에 왜가리가 나타나니 그야말로 만점짜리풍경이었다.

왜가리 한놈이 긴 목을 서서히 뻗치더니 대가리를 위엄있게 구부리고 거드름스레 서있었다.

《저건 이 아군이 자기네 령지라는걸 과시하는 자세야.》

할아버지가 또 참지 못하고 부시럭거렸다.

다른 놈은 물속에서 냉큼 버들치를 잡아 푸들썩거리는것을 삼켜버리더니 목을 길게 뽑았다가 웅크리는 동작을 련속 반복하였다.

《저건 암컷을 꼬이는 수작이다. 얼른 동우리로

올라야겠는데...》

할아버지는 《까투리》갈수처럼 잔뜩 엉치를 쳐들고 잠시도 진정을 하지 못했다.

《야, 할아버지두. 저것들이 놀라서 달아나겠어요. 무슨 정찰병이 그래요.》

나의 편잔에 할아버지는 선생한테 꾸중들은 아이처럼 어줍어했으나 좀후엔 또 몸이 쭈시는지 마냥 안달아하였다.

《저것들이 왜 잠잠하고.》

나무줄기와 마른 잎들을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늘어지기도 하고 밀려가기도 하는 안개때문에 왜가리들이 보이지 않자 할아버지는 마른 풀숲을 와실령거리며 물가로 엉금엉금 기어갔다.

목을 빼들었다 웅크렸다 하며 솟기를 보이던 솟놈이 아직도 재세를 하는 암놈에게 다가와 주억거리더니 무슨 약조가 되였는지 푸드득 깃을 치며 날아올랐다. 그것들은 늙은 소나무우로 유유히 날아올랐다.

두마리의 왜가리는 선발대임이 틀림없었다.

얼마후 왜가리떼가 무리지어 날아들었다.

그날 할아버지는 내 작은 가슴에 백발을 묻고 향소울음을 터뜨렸다.

《수봉아, 네가 돌아왔구나. 끝내 돌아왔어.》

×

나는 15년후에야 고향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신문에 소개된 후 순풍에 돛단듯 발전의 길을 걸었다. 처음에는 군에 소환되였다가 도로, 중앙급간부로 선발되였다. 인민군대에 나갔다가 대학추천을 받고 돌아온 나는 김일성종합대학 생물학부를 졸업하였다.

배치를 앞두고 생각이 착잡하였다. 고향에 마음이 끌리기도 했지만 선뜻 용단을 내릴수가 없었다. 도시생활과 마음에 드는 직업에 대한 유혹이 나를 못 견디게 괴롭혔다.

그무렵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신문을 보시던 아버지가 느닷없이 물었다.

《너 장차 어찌하려느냐?》

신문에는 인민군부대를 시찰하시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몸소 산에 나무를 심으시는 사진이 실려있었다. 아버지는 피로게 한숨을 쉬었다.

《난 고향에 갈 면목이 없구나. 몇해전에 거기선 큰물이 났다더라.》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고싶어하는지 나는 알았다. 신문을 보자 내 결심은 확고해졌다. 마음속에서 눈뜬 할아버지의 녀이 나를 부르고있었다.

도에서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에서 교편을 잡은 봄순이는 그동안 내내 나를 기다려주었다. 그러나 내가 고향으로 내려갈 결심을 했다는것을 알자 얼굴색이 창백해졌다.

우리의 길은 여기서 갈라졌다. 각자에겐 자기의 길이 있으니까. 그것을 강요할수는 없는것이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나의 걸음은 가볍지 않았다. 입이 뾰족한 고갯이 그리도 오래동안 내 마음속에 틀고앉아있을줄이야. 그러나 내 생활에서는 봄순이 할아버지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있었다.

할아버지에게 빈손으로 가고싶지 않았다. 나는 금야군에 가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말씀이 계신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얻어가지고 고향으로 떠났다.

차창밖으로 봄이 깃드는 산천이 흘러갔다. 야산들에는 봄철식수사업에 펼쳐나선 사람들이 한 벌 덮여있었다. 그들속엔 붉은넥타이 소년단원들도 많았다. 할아버지에게 자손들이 많다는 생각해 나는 눈곱이 시큰해졌다.

할아버지는 이미전에 세상을 뜨시었다.

고향은 그새 많이 변모되었다. 《고난의 행군》의 시련은 산천에도 흔적을 남기었다.

아버지의 창조물은 남아있지 않았다. 새땅찾기를 잘 했다고 크게 평가받은 강변의 논들은 큰물이 쓸어가고 그녘의 땅마저 몽청 잘라먹었다.

할아버지는 이 모든것을 내다보고 아버지를 그렇게 채책질했는지도 모른다.

내 걸음은 저도 모르게 빨라졌다.

시루봉 소나무숲에서 할아버지가 나무를 심는 듯 흰옷자락이 열른거렸다. 마른 수초가 와실렁거리는 물가에서 째버덩거리는 소리가 났다. 걸어들린 정갱이가 고기비늘처럼 러슬러슬한 할아버지가 구부정하고 알쓸이터를 만드는데 같았다.

나는 숨이 꺾 막혔다. 수초가 무성한 여기서 나는 할아버지와 척후병 왜가리를 맞이했었다.

누렇게 말라든 물우에 나는 주저앉았다. 동자바위는 변함없이 허리를 구부치고 벼랑아래를 내려다보고있었다. 강물우엔 진달래가 망울을 터치는 산풍경이 어려있었다. 고즈넉한 정적이 깃든 산촌은 돌아온 아들을 너무나 묵묵히 맞이하는듯 하였다.

별안간 늙은 소나무가 있는 쪽에서 왁웁거리는 새들의 귀익은 울음소리가 돌려왔다. 푸드득 재빛깃을 너울거리며 왜가리들이 날아와 물가에 우아하게 내려앉았다.

《할아버지-》

나는 목메여 부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고향사람들은 모진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수봉형의 넋을, 할아버지의 넋을 지켜낸것이다.

나는 농장기사장으로 일하다가 2년후에는 관리위원장이 되었다. 나는 강냉이밭을 일구었던 산에 나무를 심고 남강의 흐름을 따라 제방뚝을 다시 쌓는 일부터 시작하였다. 물가에는 할아버지 뜻대로 마름과 꿀풀, 넓은잎별수염풀을 많이 심었다.

5년이 어느결에 지나갔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어머니는 빨리 장가들라고 성화가 불갈았으나 처녀생각을 할새가 없었다.

다섯번째로 맞는 가을이었다.

그해 농사작황은 괜찮았다. 내가 연구한 생물비료가 은을 낸것이다. 더욱 기쁜것은 해맞이산 아래벌에 새로 조성한 키낮은 사과나무 과원에 첫열매가 익은것이다.

이 가을에 우리 마을로 기자가 찾아왔다. 나이지속한 풍채좋은 녀기자였다.

관리위원회 앞마당에서 나는 녀기자와 수인사를 나누었다.

《아니, 이게 누구예요.》

녀기자가 놀라며 안경을 벗어들었다.

《날 모르겠어요?》

나는 의아해서 너부죽한 얼굴의 살집좋은 중년녀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 능청스런 미소가 흘렀다.

《대추나무집 염소가 새끼를 두마리 낳았다.》

그럼 봄순네 염소가 새끼를 낳던 날 해맞이산 너머에서 만났던 그 녀기자란 말인가. 하얗고 상큼한 목언저리에서 중발머리가 살랑거리던 햇내기기자가 이렇게도 변하였는가. 하긴 나도 그새 장정이 되었으니 세월이란 참...

우리는 감격적으로 다시 인사를 나누었다. 기자는 애뜻한 정회에 잠겨 다소 구슬픈 어조로 속삭였다.

《난 꿈에서조차 남강의 푸른 물과 동자바위를 보곤 했어요. 여긴 내 기자생활의 첫자욱이 찍힌 잊지 못할 곳이에요. 사회생활의 첫자욱이...》

감상적인 성미는 여전한듯 했다. 무슨 일로 왔느냐고 구태여 물을 필요는 없었다.

녀기자는 왜가리령감네 집에 가보자고 하였다. 할아버지는 안계신다고 하니 그래도 그에 가보자고 하였다.

그 집에선 다른 사람들이 살고있었다. 할아버지도 봄순이도 없고 마당에 있는 대추나무만이 여전하였다. 나무에는 류달리 알이 굵고 검붉게 익은 대추가 아지가 휘게 열려있었다.

대추나무를 올려다보던 녀기자는 한알을 따서 입에 넣었다. 그 달큰한 맛에 눈귀를 쪼프리기까지 했다. 별안간 서느러운 검은 눈에 눈물이 핑어렸다.

녀기자는 들가방에서 낚은 베자루를 꺼냈다.

《할아버진 여기다 말린 대추와 두릅나물을 넣어가지고 30리나 되는 간이역으로 날 찾아왔었어요. 가을에 꼭 다시 오라고 했는데 난 이제야 왔군요.》

피로써 지킨 땅을 피보다 더한걸 쏟아부어 가꿔야 한다던 할아버지의 부탁이 내 피와 살로 되기까지에는 이렇게도 많은 세월이 걸려야 했어요.》

녀기자는 눈물을 감추려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우리는 약속이나 한듯 할아버지의 묘소로 향했다. 묘는 복주개봉 정수리에 있었다.

명랑하고 다양한 가을의 색조가 깔린 오솔길을 우리는 말없이 걸었다. 선들선들 불어오는 바람

결에 어느새 수업이 마르기 시작한 강냉이잎새들이 무슨 서글픈 노래라도 부르듯 스르륵거렸다. 파원에는 빨간 사과가 무르익었다. 소솔바람이 가을의 무르익은 향기를 가슴 그들먹이 채워주었다. 남강을 휘감고 돌아간 피나무풀너머에서는 애들이 왕밤나무를 터는지 간간이 웃음소리, 말소리들이 들려왔다. 맞은편 박죽산에서 장평이 끼이끼이 울자 늙은 소나무우에서 왜가리가 푸드득 날아올랐다. 그것들은 남쪽으로 갈 때가 되었는데도 이땅을 떠나기 아쉬워하는듯 했다.

너기자는 길옆에 피어 흐트러진 들국화며 긴 가지끝에 까뭇한 열매를 매단 오이풀을 꺾어 다발을 엮으며 지나가는 말처럼 물었다.

《왜 여직 장가를 안 들었어요?》

나는 일순 당황했으나 싱그레 웃어보였다.

《꽃들이 다 시든 마가울에 이 산천에 꽃이 없다니 뭘말인가요 하는듯 찬서리를 무릅쓰고 피어나는 들국화와 같은 처녀를 기다리지요.》

《사랑은 기다리기보다 가꿔야 한다더군요.》

다행히 기자는 더 캐어묻지 않았다.

가을별이 호토포듯 내려찍는 남향에 할아버지의 묘소가 있었다.

《고 김익준 지묘》

꽃다발을 놓고난 너기자는 비석의 글을 소리내어 읽으며 깊은 숨을 내그었다.

《김익준, 좋은 이름이군요.》

그는 이제야 그 이름을 알게 된것을 한스러워하는것 같았다. 나 또한 여기 묘소에 와서야 할아버지 본명을 알게 되었다. 그런들 어떠랴. 우리

에게는 왜가리령감이라는 별칭이 더 친근한데야. 마을사람들은 김익준이라면 몰라도 왜가리령감이란 누구나 다 안다. 젊은 어머니들은 지금도 애들을 신칙할 때면 의례 《왜가리령감이 알면 널 가만둘것 같으나.》하고 울러댄다. 아마 그 애들이 크면 또 제 자식들에게 그렇게 말할것이다.

《사람이 한생을 살고나면 무엇이 남게 되는가요?》

깊은 상념에 잠겼던 기자가 느닷없이 묻는 말이었다.

무엇이 남게 되는가?! 할아버지는 이 땅에 저 왜가리를 남겼다. 그것은 로인이 한생 바친 피같이 진한 사랑의 응결체요 정의 응어리였다.

《무엇이 남는가요요, 피보다 더 진한 참사랑이 남지요. 사람들의 가슴에, 이 산천에 남는건 오직 그것뿐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고 이 산천에 다지는 아들의 맹세이기도 하였다.

이듬해 추석날, 할아버지의 묘소에서 내려오던 나는 늙은 소나무밑에 트렁크를 들고 서있는 한 처녀를 보았다.

봄순이었다.

너무도 뜻밖이어서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눈물을 머금고 소나무밑에 애련히 서있는 처녀의 머리로 왜가리들이 날아왔다.

왜가리들은 정녕 이 땅을 떠나기 아쉬운듯 늙은 소나무우 푸른 하늘을 자꾸만 감돌고있었다.

상식

그윽한 정서를 자아내는 코스모스

코스모스는 국화과에 속하는 한해살이화초로서 길가에 많이 심는 꽃인것으로 하여 일명 《길국화》라고도 불리우고있다.

꽃색은 붉은색, 분홍색, 흰색 등이며 꽃피는 시기는 원래 9~10월이나 올품종은 6월부터 꽃이 핀다.

코스모스는 해비침이 좋은 곳이면 어디에서나 잘 자라며 가을 늦게까지 꽃이 핀다.

코스모스는 꽃모를 자래워 옮겨심거나 제자리에 직접 심는다.

여름부터 꽃이 피는 올품종은 3월에 씨앗을 심어 꽃모를 자래워 옮겨심으면 6월 중순경부터 꽃이 피며 4월초에 심으면 7월초부터 꽃이 핀다.

가을에 꽃이 피는 늦품종은 5~6월에 심어 키를 작게 하여 꽃을 피우는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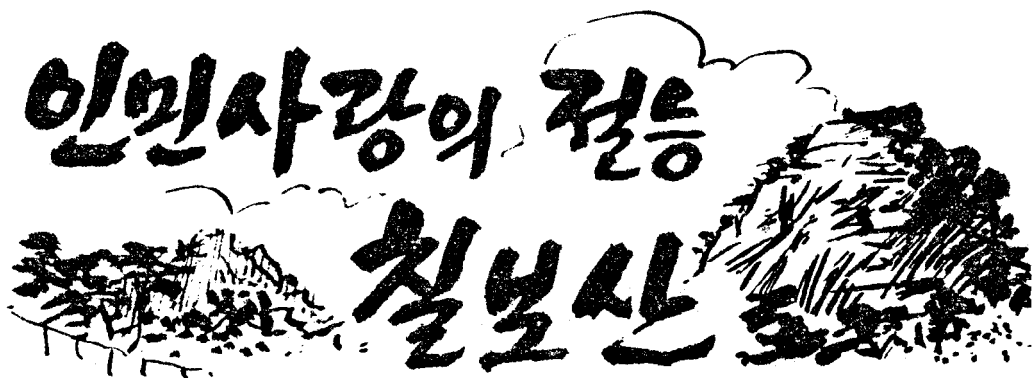
심는 간격은 40~50cm 정도로 한다.

30cm 정도높이에서 순치기를 해주며 장마철에 들어서기 전 7월경에 하는것이 좋다.

코스모스는 키가 크고 꽃과 잎이 산뜻하면서 이채로와 길가와 철길주변, 살림집과 기관건물의 벽면이나 울타리에 배경화초로 심는것이 좋다.

코스모스는 씨앗이 여름엔 쉽게 떨어지므로 씨앗이 검은 밤색을 띠 때 제때에 받아야 한다.

우리는 코스모스의 특성을 잘 알고 더 많이 심고 가꾸어 사람들의 정서교양에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리근지

2. 외칠보

다투듯 기세차게 솟아
런런히 뻗은 산발은
구름을 뭉쳐 끊고
만리창공에 날아가는듯
웅장한 기개 하늘에 뻗치고

아득히 펼쳐진 수림은
서슬푸른 기치창검으로
유리같은 하늘을 깨칠듯
폭풍을 불러 세찬 파도 일으켜
선군의 그 위용 용용히 흐르네

넘어질듯 한 바위우에 엮힌 돌
소슬한 바람결에도 날려
금시 머리우에 떨어질듯
마음은 조마조마해
저만치 비껴서는데

등산길 안내하며
앞서 뛰어가던 노루
아름다운 두뿔 번쩍 들고
우거진 꽃속 바위쥬에서
어서 오라 긴목 빼들고 소리치네

×

계곡을 따라 흐르는 물은
고운 단풍잎 싣고
섯돌며 땀돌며 좁은 벼랑새로
요리조리 돌아 들어가니
산골짜기가 살아 움직이는듯

위태롭다 저 바위끝에 앉은 매
금시 억센 나래 펴고 덮칠듯
날카로운 부리를 쳐든 모양은

우리 인민의 기상같다 하시며
매바위라 그 이름 지어주신 장군님

바쁘신 전선길에도
인민에게 절승을 안겨주시려
바위바위 산산을 찾으시여
고운 이름 지어주신 그 은정
깊은 골마저 아름다움 펼쳤구나

티티새, 알락할미, 꿩...
노루, 청서, 청개구리 ...
천백으로 뒤섞인 새들 풀벌레들
특이한 목소리로 하나의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교향악을 연주하는가

주름잡은 바위허리에
가는 가지 드리운 오미자나무는
바람에 춤추듯 흔들려
빨갭게 익은 열매
홍보식을 주렁주렁 달아놓은듯

×

바위쥬에 둥지튼 새는
구름우에 우짖는데
날을듯 앓을듯
저 봉서암 수천마리 새는
어이하여 우짖는 소리 없네

몇천 몇만년을
칠보산의 아름다움 노래불렀기에
목소리마저 닫겨 우짖지 못하는가
우짖으면 칠보산 절승이
산산이 깨어질가봐선가

아서라
저 새무리 우짖으면
봉서암이 저리도 신기하고
칠보산이 절승으로
이처럼 신비할소나

어느덧 정취 풍만한
자연속으로 녹아들어가니
빛갈 가지각색 꽃들
걸음을 멈춰세우며
미풍에 가볍게 춤추고

×

이 동산손님 놀려보자
저 고슴도치는
바람에 떨어진 밤송이처럼
디굴디굴 굴러가며
깜찍한 재롱부리는네

천진하다
약삭바른 다람쥐
덥석 안았다가 가시에 찢려
아빨싸
두발 쳐들고 바르르 떠네

그 놀음에 나도 아이되는 마음
얹은 구름 가볍게 밟으며
청초한 풀냄새에 젖어
재밋길은 산길 오르고 올라
만물상에 닿았네

가관이로다 뛰는 놈 날으는듯 한 놈
기는 놈에 앉은 놈
쥐여놓은듯 빚어놓은듯
기기묘묘한 만물이 다 모여
제자랑 다툼이

×

그 어느 석공이
몇천년 다듬고 다듬어
조물주도 만들지 못한
세상 기이한 만물 예 만들어놓았는가
볼수록 생김생김새 웃음자아내누나

웃음에 걸음도 가벼워
산 넘어 굽이도니
방금 만나 잔치상에
날 청하던 저 새각시
언제 여기에 왔는가

반갑다 달려가던 걸음
아서라 문득 멈추네

랑군과 마주서서 정을 나누노라고
낮익은 나도 보는듯마는듯
꽃사랑에 수집음도 없구나

우리 장군님 저 부부바위전설 들으시며
우리 인민의 사랑은 예로부터 뜨겁고 깨끗했다고
호탕하시던 그 웃음소리 안고
등산객마다 저 돌부부사랑 되새겨보며
이 부부바위앞에서 웃음꽃 피우거니

아 장군님 하나의 바위전설에서도
우리 인민의 깨끗한 사랑을
동지애의 세계로
세상 으뜸 내세우시여
명승의 절승으로 꽃피워주시었어라

×

다가가면 저 부부 수집어 얼굴 붉힐듯
나에게도 저 젊은 시절 있었으니
축복의 마음 보내고
슬쩍 에돌아
푸른 길 따라 들어가네

벽계수는 바위에 부딪치며
굴러가는 옥이라 쟁쟁하고
숫아오른 뿔부리는 신기루속에
곧추 섰다 꺼꾸로 섰다 조화부리며
구름에 두둥실 떠가네

산천은 볼수록 절색이요
향기에 차고넘쳤는데
연연한 청산은 구름을 날려
청룡이 구불구불 바람 일쿠며
날아가는듯 위엄차구나

길은 하늘에 끝났는데
장수봉이 어데냐
가전다리 흔들흔들
봉서암, 만물상, 기묘한 산너머
저-어기 저-어기 가리키네

×

웅장히 줄지어선 봉우리는
천군만마 구름날리며 달리는듯
울울창창한 수해는
백천만 장병들 척진으로 돌격하며
창검을 비껴치고 내려치는듯

산을 타고앉은 저 장수
서슬푸른 칼에 바람날리며
바다건너 가리키는 불호령
가슴을 켜- 울리네

-왜놈쪽발이 한놈도 살려보내지 말라

오, 세월이 흐른들
잊을소냐 용서할소냐
치떨리는 40여년
내 나라 자원이며 력사유물
총칼로 락탈해가고 도적질해가고

이 나라 녀성들 순결한 정조를
일본군 《위안부》로 짓밟고
말과 성 이름까지 빼앗으며
민족의 녀과 얼을 말살하려는
철천지원수 왜놈쪽발이

×

바위바위 봉이봉이는
그 어떤 대적도 범접 못할
내 나라 억센 기상 시퍼렇게 뻗었구나
선군 내 나라 인민의 녀이 용용히 흘러

천하에 위엄차구나

수리개 날으는 하늘끝에
호기차게 구름을 타고
바다건너 대양건너 굽어보는

내 가슴속에 이글이글 끓는
화산같은 분노와 복수의 불덩어리

원수들과 총대로 계산하여야 하기에
장군님 쥐여주신 만탄창한 총구를
겨냥하여 웨치노라
-네놈들에게 흘린 피
우리는 기어코 천만배로 받아내리라!

(다음호에 계속)

한쪽의 유화앞에서

변정욱

내 늘쌍 오가던
정다운 모교의 복도 그 한벽에
한쪽의 유화가 숨엄히 안겨와라
조국의 촌토를 피로써 지켜싸운
인민군렬사들의 불굴의 투쟁화폭이

불구름 날리는 하늘가
귀중한 전우들은 다 어디에 갔느냐
군복은 피에 젖고 포화에 얼굴은 찢기였어도
오늘도 불사신마냥 억세게 서있는
아 포항의 8용사여

뜨거이 젖어오는 마음으로
내 조용히 네앞에 서면
결전의 고지우에 나도 함께 서있는듯
하많은 이야기 나누고싶구나

나누고싶노라
죽음을 각오한 최후의 순간에
저 멀리 그대들이 그려본것
총메고 떠난 고향집
다심한 어머니모습이더냐

건국의 마치고 새생활을 가꾸던
희열넘친 그 벽찬 나날이더냐

어쩌면 저 나이에
소중한 꿈도 많았을 애 어린 전사여

너의 그 작은 가슴에 간직된것은
푸른 꿈을 엮고 희망을 꽃피우던
정든 모교의 해빛 밝은 그 창문이더냐
승리하고 돌아갈 고향의 동구길이더냐

깊어지는 생각을 안고
내 다시금 바라보면
말하여주누나 불타는 저 눈빛들이
잊지 말라고 준엄했던 어제날을
이어가라고 렬사들의 숭고한 그 녀을

한쪽의 유화는 크지 많아도
내 그앞에서
열화같은 조국애를 받아안노라
영원한 삶의 진리를 새겨안노라

렬사들이 피흘려 지켜싸운
어제날이 없다면
이 정든 교정에 우리 누리는
오늘의 행복이 어이 있으랴

아 포항의 8용사가
청춘도 생명도 옷으며 바쳐 지킨 조국
인민의 행복한 이 락원에
또다시 준엄한 날이 온다면
조국수호전호에 내 자리를 내어달라
나도 그들처럼 용맹하리라
조국위해 이 한몫속 바쳐가리라

단시 묶음

강선이 들려주는 이야기

리창혁

세상사람들은 말합니다
천리마가 태어난 곳
여기 강선이라고
허나 강선은 말합니다
천리마는 다름아닌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심장에서
억센 나래를 폈다고

우리 집 가보

김현순

우리 집에 가보처럼
소중히 보관되어있는
아버지 어머니의 천리마휘장
그결에는 나란히 놓여있어라
내가 받은 3대혁명붉은기훈장이

아이들은 이 엄마의 얼굴을

빠끔히 쳐다보며 물어보노라
저것이 무엇인가고
그러면 나는 아들을 듄쪽 추켜안고
속삭여주노라
너희들의 웃음을 떠받든
이 땅의 주춧돌이라고

조국을 실은 천리마

김천

초소에 가보라
병사들의 행군길에
천리마의 나래침소리가 들린다
공장에 가보라
우렁찬 기계소리에서
천리마의 발구름소리가 들린다
과학의 전당에 가보라
달리는 글소리에서
천리마의 호용소리가 들린다

그렇다 천리마는
조국을 실었다

구월산의 진정

염득복

천년... 천년... 또 천년...
오늘을 기다려 단풍은 불탔느냐
구월산 굽이굽이 험한 령 넘어
월정사를 찾아주신 어버이장군님

험한 길 찾아오신 어버이장군님께
정중히 인사드린 월정사의 관리원
목메여 목메여 말씀드렸네
-어버이장군님, 수령님과 함께 오셨더라면
얼마나... 얼마나...

관리원의 채 맺지 못한 눈물젖은 말에
산천도 울고 인민도 울고
그리움에 단풍도 더욱 불타는데
먼산을 바라보시는 어버이장군님

그이의 눈가에도 맺혀흐르는 눈물
아, 좋은 날 좋은 길 좋은 곳에
인민을 언제나 앞세워 보내시고
자신은 언제나 곁은 날 험한 길 험한 령
앞장서 찾으시던 어버이수령님

이제 한번 꼭 가보겠다고
약속만 남기시고 오시지 못하셨으니
하여 월정사의 처마는 기다림에 높아지고
하여 구월산의 단풍은 기다림에 더욱 불타고

아, 월정사관리원의 진정은
구월산이 품어온 진정이었네
세월이 갈수록 더더욱 기다려만 지는
이 나라 명산의 진정이었네



진달래 피는 땅

최상기

어둠이 짙어졌으나 권영석은 종내 나타나지 않았다.

하루일이 끝난 저녁이면 의례히 의무적으로 탈곡장과 작업반실사이의 느티나무밑에 초급일군들이 모여 오는것은 어길수 없는 규률로, 제정된 일과처럼 되어있었다. 그날 사업을 간단히 총화하고 다음날의 사업을 포치하는 이 모임을 가리켜 반원들은 일명 《초급일군전원회의》 혹은 약하여 《전원회의》라고 즐겨 말하곤 하였다.

3분조포전쪽을 안타까이 돌아보던 김은금은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까지 이런 일이 한번도 없던 권영석이었다. 무슨 일이 생긴것일까. 은금은 무거운 기분에 싸여 모임을 끝마쳤다.

초급일군들이 헤어져 갔으나 은금은 그런듯이 앉아있었다. 하늘가에 떠있는 낮가락같은 초생달이 처녀로서는 원숙미가 느껴지는 은금의 수심에 잠긴 용모를 얼핏이 드러나게 한다. 가름한 두볼, 선이 꿈은 코마루, 크고 검은 눈동자...

은금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걸음은 저도 모르게 3분조포전쪽으로 향해졌다.

바람 한점 없는 5월의 대기는 몹시도 훈훈하다. 온 들판은 울음인지 노래인지 알수 없는 개구리들의 소연한 합창으로 떠나갈듯 하다. 전조등을 켜 트랙포르가 물레를 치며 은은하면서도 박력있는 동음을 울리는데 논고들에서 떨어지는 잔잔한 물소리도 자기나름의 음향을 연주한다.

은금은 마을옆의 나직한 야산을 돌아 낮은 언덕들에 둘러싸인 3분조포전에 이르렀다. 모내기가 시작된 논벌은 배미마다 관개수가 흘러들어 휘연하다.

은금은 모판포전막으로 다가갔다. 야산과 린접한 모판의 한가벽에는 분조의 포전휴계실인 자그마한 집이 있다. 산뜻하게 회칠을 하고 빨간 기와까지 올린 아담한 건물이다.

《누구예요?》

김은금이 포전막의 트랙에 들어서는데 등뒤에서 야무진 목소리가 날아왔다. 돌아보니 스무여 메터 떨어진 산기슭에 두 그림자가 오뚝 서있다.

《오, 반장언니예요?》

분조의 막내가 철미이다. 이름처럼 여물고 되알져 반원들의 류다른 사랑을 받는 처녀다.

《그런데 너희들 거기서 무얼 하니?》

은금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다른 때 같으면 강중강중 뛰어왔을 처녀인것이다. 은금은 그들이 있는쪽으로 올라갔다.

《우린 지금 심원한 세계에 잠겨있어요.》

《뭬?!》

은금이는 눈을 크게 떴다. 그 모양이 우스운듯 두 처녀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글썽 우리 분조장이 진달래에 대한 시를 써서 래일 랑송하라는 괴이한 과업을 주지 않아요. 머리에 잉크가 없다 했더니 중학교때 문학과목은 락제국만 먹었느냐며 진달래나무옆에 한시간쯤 앉아있느라하면 시상이 떠오를게다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뭘 어디...》

철미는 귀밀을 굵적거렸다.

은금은 그만 어처구니가 없어 웃어버렸다. 하면서도 그의 마음속엔 애뜻하고 따듯한 그 무엇이 몽클 치밀어오른다.

은금은 철미네 앞에 소담하게 자라있는 진달래나무를 조심히 어루쓸었다. 소나무와 가독나무를 비롯한 못나무들속에 이채롭게 뿌리내린 진달래, 이른봄에 활짝 피었던 연분홍꽃잎들은 그 모습을 찾을길 없다. 그러나 그 향기는 여전히 풍기는듯싶다. 은금은 그 향기를 한껏 들이켰다.

《분조장은 어데 갔니?》

《기계화반엘 갔어요.》

《기계화반엘?...》

《예. 오늘두 기본작업을 끝내고는 비료주는 장치를 가지고 씨름했어요. 잘되지 않아 분조장동지가 너무 속타하길래 우리가 한마디 했지요워. 고생을 사서 한다구요. 그랬더니 똥판지같이 진달래에 대한 시를... 참.》

은금은 포전을 돌아보았다. 모내기실적이 시원치 않다. 실망감과 안타까움이 가슴을 답답하게 했다.

모를 내던 현장에 이르니 기계뒤쪽에 붙어있는 비료주는 장치가 전부 해체되어있다. 처녀의 가름한 얼굴에 더 큰 그늘이 드리운다. 도대체 권영석은 어찌자는걸가. 분조의 모내기실적이 제일 뒤꼬리를 차지하고 그로 하여 작업반의 뒤다리를 잡아당기는데도 별로 가책을 받는것 같지 않다.

은금은 가늘게 한숨을 내쉬었다. 고집스런 사람, 기어이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시위하자는걸가. 결정적인 반격을 가하지 못하는 자신의 우유부단성에 대한 환멸감이 뚫어오른다. 작업반은 물론 분조장때부터 뒤자리에 서본적이 없는 은금이다. 그런데 농장적으로 꼬리에서 세번째를 차지하고있으니 그 수치감은 이루 말할수 없다.

오늘 작업반에 나왔던 기사장은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일이 힘들게 되는것 같구만.》

머리가 벗어지고 귀밑에 흰오리가 보이는 50대 중반기의 일군, 은금이의 성장에는 오촌숙인 이 기사장의 남모르는 뒤받침도 깔려있다.

《좀 분발해야겠어.》

저물녘까지 은금이의 귀전에는 기사장의 이 말이 떠나지 않았다. 그래 오늘 모임에서 날카롭게 문제들 세우리라 별렀는데 기본당사자로 되었어야 할 권영석은 나타나지도 않았다.

은금은 기계화반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처음 권영석이 논벼 사재배법의 전면도입을 들고나왔을 때 모두 아연실색했다. 군대에 나가기 전 농업전문학교를 마치고 1년남짓이 농사지은 노루꼬리만한 경력이 어벌 큰 욕망을 품게 했을까?

농장에 나와있는 벼재배연구사가 다년간의 고심어린 시험을 거쳐 완성한 사재배법이다.

시험포에서 거둔 성과를 현장에 도입하는 문제가 논의에 올랐을 때 은금은 술선 말아나섰다. 그는 시범적으로 한정보 받아들여 일정한 경험을 쌓았으며 이에 토대하여 올해에는 매 분조마다 한정보씩 계획을 받았다.

그런데 이것을 권영석이 부정해나섰다. 실리와 우월성이 확증된 이상 무엇때문에 살얼음판 건드듯 주저주저하는가. 대담하게 다 받아들이자.

은금은 웃어버렸다.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른다더니 꼭 그 격이다.

그러나 그것은 웃음으로 끝나지 않았다. 권영석이 너무 주장한탓에 관리위원회에까지 문제가 상정되었던것이다.

은금은 심각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무릇 하나

의 원리나 방법이 일반화되자면 일정한 세월이 경과되어야 한다. 사재배의 우월성이 공인된것은 사실이지만 일반화의 경지까지는 아직 거리가 멀었다. 새 재배에 맞게 기계를 개조하는것은 물론 제일 큰 난점은 비료주기를 혁신해야 하는것이였다. 지금까지는 질소를 포함한 여러가지 비료를 섞어빚어 말리운 자그마한 덩어리를 사람의 손으로 매 포기마다 묻어주었었다. 비료의 류실을 없애고 그 효과성을 최대로 높이며 적은 비료를 가지고도 알곡생산을 높일수 있다는 여기에 이 재배법의 장점들중의 하나가 있었다. 이것은 장점인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으로도 되였다. 말이 쉽지만 강냉이도 아닌 벼포기들에 덩이비료를 묻어준다는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였다. 이 난점을 해결하자면 비료주는 기계가 창안되든가 아니면 비료가 많아야 했다. 지금까지는 소수면적에만 재배한탓에 비료주는 기계에 대해서 그 누가 낫을 돌리지 않았다.

관리위원회에서 논의가 있는 날 저녁 은금은 권영석과 함께 마을로 향했다. 은금은 말없이 걸음만 옮기는 권영석의 옆모습을 훑쳐보듯 했다. 준수한 얼굴, 영채도는 눈... 은금은 이 사나이의 어느 구석에 우직한 성품이 숨어있겠는가를 의심해본다. 권영석이 너무 완강히 주장하는 바람에 은금은 어쩔수없이 관리위원회에 제기하였다. 자기가 뽕혹하게 막지 못하는것을 대신하리라는 기대감에서였다. 하지만 사태는 다르게 번져가고있다.

하고싶어도 누가 감히 나서지 못하는 일에 뛰어들려는 한 인간에 대한 감동, 공정, 기대와 믿음... 물론 다 그런것은 아니였다. 반신반의와 이도 안난 어린애가 콩을 먹으려 한다는 식의 빈정거림도 있었다.

하다면 은금은 어느쪽이었던가.

《영석동지.》

처녀의 갈린듯 한 목소리에 영석은 걸음발을 늦추었다.

《전면도입만은 제발... 고집하지 마세요.》

영석은 피곳 처녀를 돌아보았다. 인간의 진정은 때로 눈빛 하나만 보아도 알수 있고 말 한마디를 들어도 알수 있다. 영석은 지금 은금이의 가슴에 고괘치는 진심을 력력히 느끼고있다. 하지만...

권영석은 무거운 숨을 내쉬었다.

《난 반장동무가 사재배를 제일먼저 받아들인것으로 알고있소.》

은금은 고개를 숙였다. 그렇다. 파악도 깊지 못하고 경험도 적어 나서는 사람이 없었었다. 그것을 은금이가 선참으로 접어들었었다. 그런데 권영석은 은금이를 뛰어넘어 지나친 욕망을 부리고있다.

《하지만 전면도입만은 성격이 전혀 달라요. 얼마나 많은 난점들이 있나요. 그것이 담보되기 전에는 도저히 실행불가능해요.》

권영석은 한동안 묵묵히 걸었다. 마을앞에 이르러 헤어지게 되었을 때야 은금이를 돌아보았다.

《난 반장동무의 견해를 부정하지 않소. 그러나 내가 명백히 말해둘것은 시험포를 밟아보고 연구사를 만나는 과정에 더 크게 어깨를 들이미는 사람이 있어야겠다는것을 사무치게 절감했다는것이요.》

은금은 어둠속으로 멀어져가는 권영석을 야속한 눈길로 지켜보았다. 어찌하여 자기들은 얼굴을 붉히며 사업에 대해서만 다투어야 할가. 가슴속 깊이 품고있는 따뜻하고 친근하고 부드러운 감정들은 정녕 묻어두어야만 하는걸가.

며칠후에 론의는 끝을 보았다. 권영석의 분조는 절반 면적을 사재배계획으로 받았다.

씨뿌리기가 마감단계에서 다그쳐지고있던 어느날 은금이는 기사장의 전화를 받았다.

《어떻게 될것 같소? 3분조 말이요?》

은금이는 기사장의 말뜻을 어렵지 않게 알아들었다. 모든 일에는 만약이나 만일이라는 경우가 돌발적으로 작용하는것이다. 사재배의 대량도입을 두고 그 누구보다 걱정이 큰것은 다름아닌 기사장이었다. 이전보다 절반밖에 안되는 씨를 뿌려놓고 발판잡을 잘 농사꾼이 어데 있으랴. 직분상관계로 연구사의 사재배를 많이 관심하고 도와주던 기사장이었지만 전면도입만은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예비모를 좀 붓도록 하라구.》

전화가 끝나자 은금은 3분조모판으로 향했다. 세면이 야산과 언덕으로 둘러싸인 안침진 곳이다. 전야의 성곽과도 같이 네모반듯하게 일떠세운 바람막이바자를 내려다보는 처녀의 눈가에 짙은 회색의 빛이 비껴갔다.

바로 여기서 은금은 로동의 첫 자옥을 때였고 이 땅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키웠다. 이 불안과 더불어 흘러간 모판관리공생활은 그의 청춘시절에 가장 소중하게 간직되어있다.

삼삼오오 떼를 지어 퇴근길에 오른 분조원들이 은금이를 향해 미소를 보낸다.

은금이가 포전막에 이르니 노을이 곱게 비낀 프락에는 권영석이 홀로 앉아 깊은 상념에 잠겨있다. 가까운 산기슭을 여겨보던 그의 눈가에 반가운 빛이 확 어린다,

《무슨 생각을 하세요?》

애들처럼 순진한 표상이 은금의 마음을 개운케 했다.

《아, 반장동무요.》

은금은 입술을 내밀며 눈을 흘겼다. 공식적인 자리가 아닐 때에 그렇게 찾는것을 질색하건만 어투를 바꾸지 않는다. 그것이 둘사이의 간격을 말해주는듯싶어 은금은 좋지 않았다.

《진달래를 보니 감회가 깊어지누만.》

그제서야 은금은 권영석이 진달래가 있는쪽을 보고있었다는것을 알았다. 가슴이 후두두 뛰여온

다. 잊을수 없는 추억이 번개를 일으킨다. 찌릿한 전류가 온몸에 퍼져간다. 아, 진달래! 산기슭에 피어나는 진달래가 어떻게 봄씨앗이 움트는 버모판과 인연을 맺었으며 인연을 맺어준 주인공들은 누구였는가. 처녀의 마음속 호수가 그지없이 출렁인다. 애꿎었던 시절의 한토막이 눈앞에 다가온다.

...봄, 파아란 하늘에는 종다리들이 높이 떠 솟구치고 내리웃으며 설새없이 지저귄다. 발둔덕에 끊임없이 피어나는 눈부신 아지랑이, 산에 들에 움터나는 새싹들의 청신하고 어여쁜 모습... 이 유정한 대지의 한 지점에서 네명의 청춘남녀들이 진달래나무주위에 동그랗게 조약돌을 깔아준다.

《사람들이 웃지 않을까요?》

단발머리 은금이가 걱정어린 어조로 묻는다.

《웃긴, 제가 먼저 들떠서 노래하고는...》

애티가 짙은 권영석이 가볍게 핀잔했다. 가랑잎 굴러가는것만 보아도 웃는 시절이라더니 세 처녀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아침에 제일먼저 모판에 나온 은금이는 산기슭에 진달래 한송이가 피여있는것을 발견했다. 한달음에 달려간 은금이는 꽃송이를 이리 보고 저리 보며 진달래에 대한 노래를 불렀다. 동무들이 나오자 즉흥적인 감정을 담아 시를 읊었다.

...

오, 진달래 너는야 봄의 선구자

아, 나도 너처럼 살리라

이 대지에 봄을 안아오는

참다운 진달래가 되리라

작작그르 박수가 터져올랐다. 권영석의 제의로 하루일을 끝마친 저녁에 이들은 내가해서 조약돌을 골라왔으며 진달래주위에 정히 깔아주었다.

그날로부터 시작된 진달래의 《력사》는 해와 해를 이어오며 오늘에 이르렀다. 이제는 진달래가 있는 곳까지 오솔길이 닦아지고 그 주위에는 앓음터까지 꾸려졌다. 포전운반식사를 할 때에는 꼭꼭 이 자리에 음식을 퍼놓았으며 즐거운 춤판도 벌여졌다.

군대에서 돌아와 일터에 나왔던 권영석은 오래도록 진달래나무앞에 서있었다고 한다. 그때 권영석이 무슨 생각을 하였겠는지는 누구도 알수 없다. ...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서 은금은 기사장의 불안과 우려를 빌어 예비모에 대한 자기의 립장과 견해를 설명했다.

미소가 흐르던 권영석의 얼굴에 어둑한것이 서려돌았다.

《그러니 예비모를 붓자는거요. ... 반장동무, 왜 물우의 갈대처럼 자꾸 흔들리면서 그러오. 옆에서 그러니까 내 마음도 약해지는것 같소.》

영석의 어조에는 안타까움이 내뿜졌다.

모내기가 박두해오던 어느날 기계화반에서는 모내는 기계에 설치한 비료주는 장치의 시운전이

진행되었다. 농장의 기술집단이 추진시켜온 것이었다. 여기에는 권영석의 역할도 무시할수없이 깃들어있다. 처음이다보니 기계의 동작상태는 시원치 않았다. 들판에 나가면 더 어려워지리라라는 것도 모두 예감하고있었다.

하면서도 은금은 느껴지는바가 컸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했지만 결코 그렇게만 볼일이 아니었다. 권영석은 분조일을 하는 여가에 수없이 기계화반을 드나들며 사재배에 맞게 모내는 기계를 개조하였으며 비료주는 장치도 기본적으로 선을 보이였다.

모내기가 시작되자 권영석은 분조의 모내는 기계에 비료주는 장치를 설치하였다. 예견그대로 기계는 순조로이 말을 듣지 않았다. 하여 농장에서는 이전그대로 모내기를 하게 하고 차차 완성하기로 하였다. 그로하여 부족되는 벼모는 보충해주기로 약속이 되었다.

은금은 자신을 심하게 꾸짖었다. 권영석이 어떻게 나오든 예비모를 부었어야 했던것이다. 이제는 온 농장의 동정의 대상이 되고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에 이르렀다.

은금이의 이 애타는 심중을 아는지 모르는지 권영석은 여전히 미련과 기대를 가지고 여가마다 비료주는 장치를 안고 돌아친다. 철미네들 말따나 고생을 사서 하는것은 아닌지.

은금은 기계화반에 이르렀다. 그러나 권영석은 그곳에 없었다. 나이지속한 기계화반장장이 수리공과 함께 농기계작업소에 갔다고 알려준다.

은금은 힘없이 돌아섰다.

《왜 무슨 일이 있소?》

어깨가 처진 은금이의 정상이 눈길을 자극해서 인지 기술원은 넘르스레 물었다.

《아니예요.》

《어쨌든 은금반장은 좋겠어. 영석이란 사람이 지내보니 진국이야.》

은금이의 심정을 알리 없는 기술원은 동당지 않은 소리를 한다.

은금은 뜻 모를 웃음을 지었다. 그것이 자기와 어떤 련관이 있는지 알수가 없다.

2

군사복무를 마친 권영석이 제대배낭을 메고 들어서던 날 처음으로 그를 맞이한 사람은 은금이였다. 탈곡장에서 낱알털기를 하다가 해가 넘어가서야 들판의 벼단 꺼들인 정형을 돌아보던 은금은 길옆의 벼단무지앞에 앉아있는 군인을 발견했다.

은금의 심장이 후두두 뛰여왔다.

《혹시?...》

군인의 모습을 주시하며 너덧걸음 다가가던 은금은 자기도 모르게 부르짖었다.

《영석동지가 아니세요?》

군인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군모의 반짝이는 별이 처녀의 눈부리를 시게 했다.

《그렇소. 내 권영석이에요.》

군인은 성큼 일어섰다. 후릿한 키, 끼끗한 자세... 처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가에 황 불꽃이 타버렸다.

《은금이가 아니요?》

권영석은 성큼성큼 다가왔다.

《웁구만.》

권영석의 목소리는 걱정예 넘겼다. 그러나 싹 손운을 잡지는 못했다. 그의 눈앞에는 애리애리하고 연약하던 단발머리처녀가 아니라 너무도 성숙한 처녀가 서있었던것이다. 부드러움과 도고함이 엇갈려 내비치는 처녀의 세련된 외형은 눈부심을 자아냈다.

《정말 몰라보겠소.》

《영석동지두요.》

두사람은 마주보며 티없는 웃음을 지었다. 그 웃음속에서 그들은 떠나온 청춘시절의 첫 기슭을 애뜻한 마음으로 추억했다.

아름다운 시절이었다. 군복을 입게 된 권영석은 초급단체환송모임에서 처녀들의 꽃다발을 아름벌게 받아안았다. 그때 영석은 제일 마지막에 단발머리 은금이의 류다른 기념품을 받게 되었다. 붉고 희고 향기가 짙은 화려한 꽃다발들과는 너무도 대조되는 자그마한 모표땃개였다. 질기고 부드러운 천을 밑면에 두고 웃면에는 푸른 바탕에 연분홍진달래를 곱게 수놓은 특색있는 기념품이었다.

《고향을 잊지 마세요.》

영석의 눈시울이 후터워났다. 아직은 소녀에 더 가까웠던 처녀에게 이런 웅심깊은데가 있을줄이야.

건군절을 맞으며 은금이는 축하편지를 보냈다. 고향벌의 부드럽고 푸수한 흙내와도 같이, 진달래골박우물의 정가로운 샘물과도 같이 자자구구 향취가 넘쳐나던 편지였다.

병사는 회답을 보내여왔다.

《...아침마다 진달래가 수놓아진 모표땃개로 군모의 별을 닮을 때마다 나는 은금동무를 생각하오. 군모의 별에는 우리가 진달래와 더불어 심어가꾸던 무거운 벼이삭이 새겨져있소. 군모의 벼이삭은 고향과 조국에 대하여 그리고 이 땅을 지켜선 병사의 의무에 대하여 매일 매시각 자각케 하고있소. ...》

세월은 흘렀다. 많은것이 변했지만 권영석의 눈가에 유표하던 영채로움은 여전하다. 은금은 권영석의 림름한 자세를 흘린듯 보았다. 권영석이 제대명령을 받았다는것을 그의 누이동생을 통해 알고있던 은금이였다. 그날부터 은금은 캔스레 가슴이 설레이는 자신을 발견했다. 모표땃개에 곱게 수놓았던 연분홍진달래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가 보내왔던 편지의 구절구절들이 들려오기도 했다. 군인들이 나타날 때마다 은금은 권영석

이 아닌가 눈여겨보곤 했었다.

《그런데 무엇을 하세요? 빨리 집에 갈 생각은 않고...》

《오다가 보니 벼단 하나가 땅에 떨어져있는게 아니겠소. 이삭당알수를 세여보고픈 생각이 불쑥 들더군요만.》

은금의 가슴이 젖어온다. 로동의 첫자욱이 찍힌 이벌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배낭을 이리 주세요.》

《괜찮소.》

은금은 심갱이끝에 배낭을 뺏아 메었다.

그들은 어깨나란히 마을로 향했다.

머지 않은 곳에 저녁노을에 곱게 물든 마을의 전경이 안겨온다. 동구앞에 거연히 서있는 한그루의 느티나무, 그뒤로는 문화주택들이 들어앉았는데 집집마다 아지가 휘여지게 주렁진 감열매들이 석양에 더욱 빨강게란다.

권영석은 두눈을 습벅였다.

다음날 탈곡장에 나왔던 권영석은 낱알털기를 하는 반원들과 섞들려 일하다가 점심녁에 있는 작업반모임에도 참가했다. 그는 반원들앞에 나서 류창한 언변으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대책적인것을 강조하는 은금이를 경이의 시선으로 보았다. 아, 그날에 은금이를 주시하던 영석의 불타던 눈동자, 그것은 처녀의 심장속에 깊이깊이 흘러들었다.

날과 달이 흐를수록 그 빛의 여운은 더욱 강렬히 처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마을에서는 즐거운 소문이 쉬쉬 나돌았다. 권영석과 김은금이 이전부터 약속이 있었다는 소리, 편지가 자주 오갔고 제대될 때에는 은금이가 역에까지 마중나갔었다고 채색도 많이 했다.

은금은 웃어버렸다. 굳이 부인하려 하지 않았고 애써 감추려 하지 않았다. 일이 바쁘고 사업이 분주했지만 그 역시 청춘인 까닭에 뜨겁게 불타오르고있었다.

새해에 들어서며 권영석은 분조장으로 되었다.

거름실어내기가 한창이던 정월의 어느날 포전들을 료해하던 은금은 거름하차장옆의 시험포에서 생각깊은 눈길로 벼그루터기들을 쓸어보는 권영석을 보았다. 은금이를 띄여본 영석의 눈가에 웃음이 비껴갔다.

은금이라도 정겨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참 반장동무. 분조원들의 말을 들으니 이 사재배가 아주 멋쟁이던데 ...》

은금은 발밑을 내려다보았다. 다른 포전들과는 달리 벼그루터기들이 대단히 성글다. 대신 포기당대수는 엄청나게 많으며 대들의 굵기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사재배는 그 특성으로부터 포기당 빛받는 상태, 통풍조건, 영양물질보장정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생육후반기 고온과 습해에 의한 불리한 환경으로 여러가지 병의 피해를 받아 뿌리의 기능이 떨어지고 일의 빛합성능력이 낮아지는것을 막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종자, 비

료, 박막, 로력... 이의 절약은 적지 않은 수자에 이른다.

은금은 권영석의 얼굴에 진지한 빛이 어리는것을 보았다. 그의 학구적인 자세는 이미 단발머리 시절에 느꼈었다. 그로하여 더 마음이 끌리고 따르게 되던 그였다.

좋은점과 난점들에 대하여 은금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었다.

은금이를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영석의 눈가에 따뜻한것이 물결쳐간다. 처녀의 몸이지만 그것을 제일먼저 받아들인 의로움과 기개가 마음을 울린다. 고향에 돌아온 영석이에게 제일 감동을 준것은 진달래꽃에 실하게 자라오른 진달래나무였다. 얼마나 품들여 나무를 가꾸고 주변을 풍치나게 손질했는지 마치 잘 꾸러진 공원같았다. 그것이 다름아닌 은금이의 숨은 노력이라는것을 전해들었을 때 영석은 이루 형언키 어려운 격정에 휩싸였었다. 흥안의 시절에 말없이 소박하게 다진 언약을 처녀는 변심없이 지켜온것이다.

권영석은 신뢰감이 비껴나는 눈길로 처녀를 보았다.

《은금동무, 고맙소 앞으로 많이 도와주길 바라오.》

권영석은 진심어린 목소리로 부탁했다.

은금은 얼굴을 붉혔다.

《제가 무슨...》

《아니, 농사에서야 월등히 앞선 선배가 아니요. 채찍이 필요하면 채찍, 처벌이 요구되면 처벌, 은금이의 모든것은 다 달게 받아들이겠소.》

은금은 그만 자신을 잊고 큰소리로 웃었다. 눈물이다 질끔 나온다. 마음속엔 기쁨이 파도친다.

권영석도 함께 웃었다.

두사람의 청청한 웃음소리는 지평선 아득히 메아리쳐갔다.

3

이른새벽 관리위원회에 갔던 김은금은 해살이 퍼지기 시작해서야 작업반에 돌아왔다. 그의 뒤에는 스무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따라서고있다.

《여보, 은금반장.》

원고개의 가내반장이 느슨한 어조로 찾았다.

《말씀하세요.》

《난 말이요. 거 느티나무작업반이 제발로 걸어 나가는데서는 모범인줄 알았는데 이럴 때도 있구려.》

이는 그대로 은금이에게 고통스러운 침질로 되었다. 그랬다. 어떻게 해서라도 제힘으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강심을 먹은 은금이었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일해왔다. 이런 아픔을 감수당하기는 처음인것 같다. 그래서 은금은 드팀없이 지켜오던 신조를 버리고 남의 힘을 바라는 구차한 길을 택한것이다.

일행은 3분조포전쪽으로 향했다. 모내기를 하

던 본조원들이 얼떠름하여 맞이한다.

권영석은 기계가 돌아가는 맞은편 논두렁에 둘러앉아 그 무슨 부속을 주무르고있다. 얼마나 일에 집착했는지 은금이네가 나타난것도 못 알아차린것 같다.

은금이의 가슴에 일순 아픔이 스쳐갔다. 어제 밤12시까지도 돌아오지 않았던 그다. 하지만 그런 내색없이 새벽부터 논벌에 나왔다. 그것이 은금이의 마음을 약하게 했다. 아무리 무죄로 빚어졌다 해도 저렇게 일하면 쓰러지고말것이다. 이 애리애리한 마음의 금선은 은금이로 하여금 관리 위원회로 떠민 기본추동력으로 되었다.

은금은 잠시 영석이쪽을 보았다. 지칠줄 모르는 열정에 머리를 숙이게 되면서도 한편으론 노여움도 같마든다. 그만큼 쓴맛을 보고 겪었으면 돌부처도 마음을 돌렸을것 같다.

새벽에 마을앞에서 만난 권영석은 싱긋 웃었다.

《어제 미안하게 됐소. 기계화반에 갔다가 인차 온다는것이... 하지만 애먹던 원인은 비교적 찾은 것 같소.》

은금은 충혈진 그의 눈을 차마 마주보지 못했었다.

은금은 영석이쪽으로 다가갔다. 권영석이 분조의 모든 일을 전폐하고 부차적인데만 치중하는듯 싶어 불안해하고 언짢아났다.

《지원로력을 좀 데려왔어요.》

랭정하게 울리는 은금이의 목소리에 권영석은 놀란 눈길을 들었다. 논판에 가득 들어서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는 감동인지 불만인지 종잡기 어려운 표정이 떠돌고있다.

《이젠 다른 신경 쓰지 말고 모내기만 내밀자요. 영석동지가 해판데 정신을 파니 분조일이 뒤지고 있지 않나요.》

한동안 모내는기계의 작업모습을 지켜보던 권영석은 긴숨을 내뿜었다.

《50프로의 사재배는 해야 할게 아니요.》

은금은 답답해났다. 권영석이 이렇게 융통성이 없었는지. 그만큼 농장적으로 조절해준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일렸건만.

은금은 3분조에서 꼬박기 해를 지웠다.

작업반에 나왔다가 은금이의 이야기를 들은 기사장은 돌아가기 전에 권영석을 찾았다.

《영석동무, 이젠 단순히 사재배계획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요. 분조를 책임졌으면 그 책임을 다해야 하지 않올가, 주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문제도 객관적으로는 불가능한 경우가 어데 한두가지요. 첫째부터 일을 그르쳐보오. 분조농사가 거꾸러지는것은 물론 동무에 대한 견해가 완전히 달라지고 마오.》

권영석이 본조원들쪽으로 돌아가자 기사장은 어둑한 기색을 지었다.

《사람이 너무 골은목 같지 않나?》

은금은 대척없이 고개만 숙였다. 밭은 친척이 없는 은금이네 집안에서 오촌숙인 기사장은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있다. 그는 영석에 대해서도

종계 평가했었고 은금이와 말이 나돌 때도 이를 드러내지 않았었다. 조카딸의 배필문제를 두고 은근히 원심을 쓰며 여기저기 줄을 놓아오던 그가 다른 뜻을 내비치지 않은것은 영석이란 청년을 긍정한다는것이였을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은금의 마음속에 어설픈품이 깃든다.

그날 저녁 작업총화는 더없이 심각했다.

《...오늘 분조가 들은 수치는 전적으로 분조장인 저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병사라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서도 자기가 맡은 전호를 남들에게 지켜달라고 했겠습니까.》

본조원들의 뒤에 앉은 은금이의 머리속에 선평함이 인다. 은금이가 취한 조치는 진창에 빠져 헤메이던 분조에 있어 귀잡고 절을 할 소행이었지만 거기에 색다른 외피를 씌우니 본질마저 달라진다.

모두 퇴근길에 올랐으나 은금이는 그린듯이 제자리에 앉아있었다. 발치의 흙을 줍에 쥐었다가 주르르 흘리기를 그 몇번...

어둠이 온 대지를 뒤덮었다. 개구리들의 떠들썩한 소리만이 밤들판에 가득찼다.

《노여웠소?》

등뒤에서 울리는 푹푹하면서 일종의 파스함이 비낀 목소리... 처녀는 랭소를 지었다.

《그러니... 분조에 수치를 가져온 장본인은 저라는 소리지요?》

권영석이 어둠속에서 빙긋이 웃는것이 피부로 감촉된다.

《우리 느티나무반장이 이렇게 옹졸했는가.》

면전에서 모욕하고도 아닌보살한다.

《어쩌겠어요. 전 역시 여자이고 속이 넓지 못한걸요.》

권영석은 소리내여 웃었다.

《어쩔든 오늘은 고마웠소. 채찍정도가 아니라 몽둥이에 후려맞았으니까.》

《?!...》

두사람의 눈빛이 어둠속에서 번개를 일으켰다.

은금이의 가슴에 고요히 파도가 일기 시작한다. 오늘 은금은 분조의 평범한 로력이 되어 종일 논판에 있었다. 작업반장이 돌아보며 보채고 바로 잡아야 할 일이 한두가지였던가. 그러나 은금은 만사를 무시하고 분조를 떠나지 않았다. 그것이 무엇때문인가를 권영석은 깨달은것이 아닐가.

영석은 은금이옆에 스스럼없이 앉았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나는 남보다 앞서나가려 하는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롭게 느끼는것 같소. 우리가 처음 일을 배우던 시절에 모판관리를 하며 열성을 부리던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은금이의 뇌리속에 파문이 일어번진다. 모판관리공시절! 그 시절을 추억할 때면 그 무엇보다도 진달래가 떠오른다. 그 진달래를 가꾸며 은금이네는 애지중지 모를 키워냈다. 밤낮으로 모판에 붙어살며 사랑을 기울이고 정성을 쏟아부었다. 그 사랑, 그 정성의 열매인 줄대같은 모를 보려고 농장의 분조장이상 초급지휘성원들이 집단적으로 모판을 참관할 때 이들의 자부심은 하늘을

찌를듯 하였다. 정녕 그날의 진달래는 무엇이었던가. 청춘시절 한때의 들뜬 랑만이었었던가, 아니면 자연의 미에 대한 단순한 애착이었었던가. 아니었다.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넓이였고 지향이었으며 순결무구한 마음이었다. 그 넓, 그 지향을 안고 은금은 오늘까지 살아왔다.

은금이의 이 마음을 권영석은 잘 알고있다. 은금이의 성장과 산야에 무성하게 자란 진달래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있지 않는가.

그런데 지금 권영석은 은금이의 걸음을 돌부리에 채워 늦잡게 하고있으며 진달래와 더불어 아름답게 엮여져온 두사람의 생활에 그들을 실어오고 있다. 은금은 무엇보다도 이것이, 가슴아팠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다는것은 얼마나 힘든것인가.

4

트락트르의 선행작업을 위한 물보장때문에 새벽부터 앞벌에 나갔던 은금은 오전시간이 다 가서야 뒤벌에 들렀다. 3분조에 이른 그는 가슴이 철렁했다. 모내는 기계가 숨이 죽어 웅크리고있는것이 아닌가. 그 판에서도 분조원들은 왁작 떠들며 손모내기를 하고있다. 더욱 은금이를 자극한것은 어제까지 모낸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있는 것이었다. 기계는 권영석이 가끔 비료주는 장치를 시험하던 논판에 멎어있다. 또 그것을 배반당 한듯 한 쓰디쓴 감정이 처녀의 온몸을 엄습한다.

은금은 기계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철함속에 그득히 담겨있는 반죽비료가 매섭게 눈을 찌른다. 은금은 파르르 눈빛을 떨었다. 그토록 하소하고 부탁하고 강조했던만 소귀에 경읽히는 식이 되고 말았다.

《저...》

등뒤에서 갑자르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죄지은듯 한 인상의 철미다.

《아침일찍 한번 시험해본다고 하다가... 분조장은 용접을 하러 갔어요.》

은금의 흐려진 눈길에 작업장치이을축이 건너갔던 자리에서 경악했다. 부하를 받아 부러졌는지 별스레 웅하다.

은금의 머리속이 터져나갈듯싶다. 말 못하는 소도 한번 빠졌던 수렁에는 다시 안 빠지는데 큰 뭉둥이에 후려맞았다는 말은 결국 위선에 불과했는가. 이런 식을 답습하다가 분조가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리라는것은 강건너 불보듯 뻔한 일이다. 모내기의 적기를 하루라도 놓치면 그만큼 수확고에 영향이 미친다는것을 영석은 과연 모른단 말인가. 얼마나 많은 일이 앞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가. 기본면적의 모내기를 끝내고는 수확기에 이른 갑자와 밀보리가을을 속전속결해야 한다. 권영석의 시야에는 이 모든것이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뒤에서 다시 인기척이 들려왔다. 육중한 발걸음소리, 폐부에 미쳐오는 남다른 체취...

《미안하게 됐소.》

처음으로 듣게 되는 죄의식이 어린 목소리다.

은금은 뚫어오르는 가슴을 가까스로 억제했다. 생각 같아서는 마구 행패라도 부리고싶다. 타고 타버린 가슴속 채를 짱그리 펴보고싶다.

《들어갈 때 분조장들은 좀 모이겠어요.》

은금은 자기의 목소리가 너무도 작은데 놀랐다.

고개를 숙이고 두렁길을 걸어가는 은금의 뇌리속에 주먹같은것이 콕 쥐여진다. 단호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더는 수수방관할수 없다. 영석의 정열과 지향심, 그리고 두터운 친근감으로 하여 칼로 끊듯이 명백하지 못했던 은금이었다. 그것이 결코 옳은것이 아니었다. 영석을 위해 주고 도와주는것이 아니었다. 더 기울어지기 전에 일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영석을 구원할수 없으며 은금이라도 함정에 빠질것이다.

은금은 느티나무밑에 멈춰섰다. 일터에서 들어오던 초급일꾼들이 그옆에 모여앉았다. 전에없이 심각한 분위기속에서 은금이의 격한 음성이 느티나무를 울렸다.

《...그래서 전 모든 분조들이 3분조를 도와나서 자는것을 호소해요. 계획반지도 않은것을 하게 된다고 불만들이 있겠지만 할수 없어요. 분조들에 쪼개면 그리 많은것도 아니예요. 모든 분조들이 사재배부터 내밀어야겠어요. 기술원동문 예비모까지 합하면 사재배를 어느 정도 해야겠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면적을 펴구어야겠어요.》

은금이의 표정과 어조가 엄엄했던탓에 분조장들은 뼈꼭소리 한마디 못했다. 룡말식으로라도 불평과 걸고들기가 일쑤이던 키떡다리 4분조장도 목을 움츠리고있다.

느티나무밑에는 두사람만 남았다.

한동안 받으려는 황소의 자세가 되어 들판을 쏘아보던 권영석이 고개를 돌렸다.

《난 찬성할수가 없소!》

낮으나 고압적인 반발이 은금이의 뺨을 호되게 후려친다. 은금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려났다.

《그럼 어찌자는거예요?》

《난 물러설수가 없소.》

《물러선다구요? 왜 물러선다고만 생각하세요. 너무 강짜를 부리지 마세요. 지금 형편에서 아무리 날구편들 달라질거야 없지 않아요.》

처녀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들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사나이앞에 눈물을 보일것 같다.

은금은 힘없이 걸었다. 돌부리에 걸쳐여 몸이 비칠했다. 사람이 어쩌면 이럴수 있을까. 그에게는 가까운 녀성의 애타는 심정을 이해해줄 자그마한 아량도 없단 말인가. 은금은 끝없이 서글퍼졌다.

은금은 관리위원회에 전화를 걸었다. 마침 점심시간이어서 기사장이 나온다. 은금은 작업반이

취한 비상대책을 보고했다.

은금은 매 분조들의 모란을 돌아보았다. 기술원이 실무적인 수자를 산출해내겠지만 제 눈으로 속시원히 타산해보고싶다. 모들의 생육상태, 남은 모판수... 은금은 머리속에서 쓰고 지우고 했다.

3분조에 이른 은금은 심장이 비틀리는듯 한 모진 아픔을 체험했다. 권영석이 두세명의 분조원들과 비료주는 장치를 가지고 역사질하고있지 않는가. 억이 막힌다. 분함이 가슴속을 꽉 채운다.

허리를 굽히고 기계위를 따르던 권영석이 손을 높이 쳐든다. 손세를 써가며 큰소리로 웨친다. 기계가 다시 앞으로 나아간다.

누가 귀땀했는지 권영석이 뒤를 돌아보았다.

잠시후에 영석은 꼳꼳한 자세로 서리발을 풍기며 서있는 은금에게 다가왔다. 더는 피할수 없는 대결을 의미하듯 비장한 걸음이다.

은금은 권영석이 딛고선 땅을 쏘아보듯 했다.

《이 치마반장의 망치가 가벼운가보지요?》

《?!...》

《우린 지금 오늘 못하면 래일 해도 되는 그런 일을 하고있지 않아요.》

《반장동무, 기계는 지금 거의...》

《은금이라고 찾아주세요. 작업반의 질서도 바로 세우지 못하는 제가 무슨 반장자격이 있겠어요.》

권영석은 두눈을 흘렸다. 숨결이 거칠어졌다.

《그런것 같소. 제 사람들에게 대한 믿음이 없이 무슨 지휘관의 자격이 있소.》

《믿음이요?!》

《그렇소!》

서슬푸른 작두날이 처녀의 이마를 내리찍는듯... 은금은 피가 지게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요. 저는 믿음이 없다치자요. 그럼 영석동진 댜예요? 얼마만 한 믿음이 더 필요해요. 제가 이만큼 리해하고 양보하고 믿어준것도 부족하나요? 바뀌놓고 생각해서 제 립장에 한번 서보세요. 찌그러진 반사업을 두고 속수무책으로 있다면 저란 존재가 무엇때문에 필요해요, 무엇때문에?... 제가 지금 분조일이 잘되는걸 이렇게 막아나서나요, 아니면 당치 않은걸 요구하나요?》

은금은 몸부림치듯 했다. 눈가에는 눈물이 그렇게 고여났다.

영석은 그 눈물을 주저없이 마주보았다. 녀인들의 눈물앞에서 사나이들은 마음이 여려진다고 한다. 허나 영석의 눈길에는 그러한 빛이 티끌만치도 엿보이지 않는다. 타매와 질책, 준절함만이 불길이 되어 뿜어나고있다.

《일이 처진데 대해서는 할 말이 없소. 그러나 반장동무의 립장과 태도에 대해서는 공감할수 없소. 반장동무야 언제나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온 사람이 아니요. 난 그것을 부정하자는게 아니요. 혹독하지만... 지금 은금동무의 지향과 노력에는 뉘이 느껴지지 않소. 더 큰 진보와 혁신이 없는 발걸음에 무슨 뉘이 있단 말이

요. 거기에는 남들에게 지지 않으려는 승벽심같은것만이 있을뿐이요.》

《?...》

하늘과 땅이 빙빙 도는듯 은금의 머리가 허둥거려진다. 너무하다. 너무도 가혹하다. 이날까지 은금은 이땅에 비치는 자기의 마음을 추호도 의심해본적이 없다. 자기만큼 이 땅을 위해 고심하고 애타하며 정성을 기울이는 사람도 많지 않다고 자부해왔다. 그런데... 제가 무엇을 안다고...

이 은금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처녀의 두뺨으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린다.

권영석은 눈길을 숙였다.

《우리가 가장 순진한 시절에 가꾸던 진달래가 무성하게 자란것을 보고... 나는 은금을 더없이 감사하게 생각했소. 그 진달래는 성장한 한 처녀의 모습이었고 깨끗한 마음을 고이 간직하고 가꾸온 변함없는... 사랑이기도 하였소.》

권영석은 터벅터벅 걸어갔다.

은금은 공허한 눈길로 지평선 한끝을 멍하니 내다보았다. 머리가 뻥해온다. 전혀 당치 않은 장소와 환경에서 처녀는 사나이의 심장의 고백을 들은것이다.

아아, 진달래! 이른봄 남먼저 피어나며 봄소식을 전해주는 억세고 아름다운 연분홍꽃송이여. 그것은 정녕 은금이 자신이었고 뉘이었으며 청춘을 다 바쳐 피워온 불타는 사랑이었다.

그 뉘, 그 사랑에 균열이 가고있다. 항로를 잃은 배처럼 표류되려 하고있다.

산악같은 파도가 처녀의 가슴벽을 무섭게 들부신다. 은금은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었다.

점심식사를 하고 나오던 분조녀인들이 은금을 흘끔흘끔 여겨보며 멀찍이 에돌아간다.

5

은금은 박수갈채를 받으며 연락으로 나가고있었다. 주석단에 앉은 농장책임일군들의 미소어린 얼굴, 객석을 꽉 채운 농장원들의 선망에 찬 시선들... 은금은 눈빛을 낮내며 장내를 둘러보았다.

불현듯 농장원들속에서 손을 번쩍 들며 일어서는 사람이 있었다.

《의견이 있습니다.》

찌렁찌렁한 목소리가 회관안을 진동했다.

봄꽃이 만발했던 처녀의 얼굴에 재가루가 들썩워졌다.

《나는 김은금동무가 이 연락에 나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눈앞에 별찌가 튀고 귀안이 왕왕거렸다. 무슨 말인가를 하려 했으나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안타깝게 모지름을 쓰던 은금은 눈을 번쩍 떴다. 칠혹같은 어둠, 쥐죽은듯 한 고요가 은금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그는 잠자리에 누운채로 비몽사몽간의 일을 두렵게 돌이켜보았다.

은금은 몸을 일으켰다. 전등을 켜니 3시가 넘었다. 은금은 문득 삼면경대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띄어보았다. 무심히 그앞으로 다가갔다. 전혀 낯설게 보이는 처녀가 뻔히 마주본다. 은금은 두손으로 얼굴을 비비고 뒤통리를 쓰다듬었다. 그렇게 맑고 깨끗하고 곱던 용모가 몹시도 꺼칠해보인다. 그옆에 권영석의 얼굴이 나타나 유심히 지켜본다.

(정말 그랬을가?)

은금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하루동안에 너무도 모진 세파가 마음을 희롱한듯싶다.

은금은 옷을 걸쳐입고 밖으로 나섰다. 별들도 조으는듯 깜박깜박 빛을 흐리우는데 어데선가 멀리에서 음악소리가 들려온다. 밝아오는 새날을 재촉하는듯 장엄하고 격동적이다. 발길 닿는대로 걸던 은금은 느리나무 밑에 이르렀다. 려명속에 더욱 웅건해보이는 나무가 숙연한 표정으로 처녀를 포옹해준다.

음악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처녀의 눈가에 의욕이 비껴갔다. 음악은 분명 마을의 측면인 진달래 골짜기에서 울려오고있다.

그 음악에 이끌려 은금은 다시 걸음을 옮겼다. 나직한 야산골짜기를 돌아서던 은금은 멈칫 서버렸다. 광야의 한복판에 위성이 흐르듯 한점 불꽃이 밤대지를 미끄러져가고있다. 은금이를 홀리게 한 음악은 그 불꽃에서 울려오고있었다.

번-쩍 하늘을 헤가르는듯 한 거대한 번개가 은금이의 눈앞에 섬광을 일으킨다. 파르릉- 우뢰가 울었다. 아득히 메아리쳐가는 그 우뢰소리를 들으며 은금은 본능이다싶게 걸음을 옮겼다.

은금은 모판포전막앞에 이르렀다. 이상한 야경이 펼쳐졌다. 모판과 이웃한 논배미에서 불을 환하게 켜 《합선》이 경쾌한 동음을 울리며 내닫는다. 《합선》우에 설치된 록음기가 붉고푸른 빛을 명멸하며 음악을 내뿜는다. 그뒤에 따라선 네명의 남녀분조원들...

《좋아요. 아주 멋있어요.》

철미의 짜랑짜랑한 목소리가 날아왔다.

《이젠 제 퀘도에 확고히 들어선것 같아.》

《그럼 오늘은 정식 반장언넌 초청해오지요.》

《초청한들 어떻게 오나. 어제 썸세기당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겠는데 ...》

은금은 입귀를 이지러뜨렸다.

기계가 논뜰옆에 멎어섰다. 기분이 붕 뜬 청년들이 중구난방으로 떠들어댄낸다. 그속에서 약간 갈린듯 한 영석의 음성이 들려왔다.

《어쩔가, 동무들. 조금씩 눈을 붙여야지?》

누구에게라없이 묻는 소리...

《아, 이제 누운들 잠이 오겠어요. 내쳐 합시다.

날도 거의 밝아오는데...》

《그렇게 하자요. 가뜰이나 우리 분조가 일이 뒤진판인데 언제 숨돌릴새가 있어요.》

《난 다른것은 둘째치고 이것때문에 반장언니와 분조장동지사이에 얼음장벽이 생긴게 제일 가슴 아프더라.》

《요건 쪼꼬만게 뭘 안다고...》

누구인가 철미의 귀박죽을 쥐여박는 바람에 폭소가 터졌다. 권영석도 시름없이 껄껄 웃는다.

은금의 가슴속에 용암파도 같은것이 끓어오른다. 무엇인가 애써 부정하려고 모지름쓰며 버티고있던 마지막지탱점마저 깡그리 허물어져버린다.

은금은 가슴을 짹 부여잡으며 돌아섰다. 저들의 세계에 끼일수 있는 존재가 못된다는 자격지심이 마음을 허둥거리게 했다,

문득 은금의 시야에 진달래나무가 보여온다. 새벽빛속에 우련히 자태를 드러낸 진달래는 강한 자석마냥 은금이를 끌어당긴다,

은금은 천천히 진달래쪽으로 다가갔다. 무성해진 진달래의 잎새들을 애무하듯 어루만졌다. 무릎을 꿇고 앉은 그는 두팔로 진달래를 그러안았다. 싱싱한 진달래의 줄기와 잎새들에 얼굴을 부비는 처녀의 고운 두볼로는 맑은것이 흘러내린다.

크나큰 회오와 뼈아픔이 은금의 가슴에 밀물처럼 차오른다.

처녀는 팔소매를 걷어올렸다. 포전막에 내려가 호미를 들고온 그는 진달래의 밑둘레에 동그랗게 깎은 조약돌을 한쪽으로 걷어냈다. 영근 손길로 무독히 복을 주고는 조약돌들을 물가에 가서 깨끗이 씻어왔다.

일에 열중했던 은금은 그 어떤 예감에 피땀 뒤를 돌아보았다. 누구인가 우뚝 선 자세로 처녀의 일거일동을 주시하고있다. 휘연하게 들린 동넉하늘을 마주하고있어 그 자태는 완연하다.

처녀는 고개를 돌렸다. 부끄러움이 온몸을 달아오르게 한다. 그는 조약돌을 깔기 시작했다.

권영석이 성큼성큼 올라왔다. 은금이의 옆에선 그는 한손으로 진달래우듬지의 잎새들을 매만지며 묵묵히 내려다본다. 꿈꿈스레 두그루의 진달래에 조약돌들을 깔아준 은금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두사람의 시선이 한점에서 부딪쳤다. 뜨겁고 강렬한 빛의 부딪침이다. 천백마디 말보다 더 값비싼 심장의 언어가 그 빛속에 오가고있다.

처녀의 가슴속에 봄날의 아지랑이가 피어오른다.

《래년엔 진달래꽃이 더 만발할것 같아요.》

처녀는 속삭이듯 했다.

권영석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동산마루에 노을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태양빛

이 가지고있는 일곱가지색중에서 제일 긴 파장을
가졌다는 붉은빛에 의해 아름다운 화폭이 태어나
고있다. 동견하늘이 선홍색으로 질게 물든다.

《분조장동지- 모가 떨어져갑니다. -》

철미의 목소리가 청신한 아침대기를 깨뜨린다.

포전쪽을 돌아본 영석은 은금이를 보았다.

《가시지요.》

처녀는 미소를 지으며 제먼저 앞섰다.

날랜 손길로 모운반용구럭들에 모춤을 담은 두

사람은 다급한 걸음을 놓았다.

헤덤비던 은금이가 논두렁에서 미끄러지려는것
을 권영석이 날래게 부둥켜안았다.

처녀의 낮이 확 달아오른다.

《조심하오.》

은금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아침노을은 더욱 장엄하게 타오른다.

하늘도 땅도 사람들도 그 노을빛에 더욱 아름답게 물들어가고있었다.

우리 사는 이 세월을 ...

리광선

내 요즈음

너무도 자주 받는 그 인사

오리공장사람들이 수고 많다고

이렇게 많은 오리고기를

자주자주 보내주어 정말 고맙다고...

그 인사 받을 때면

다시금 귀전에 들려오는듯싶소

못 잊을 11월의 그날

우리 공장을 또다시 찾아오시어

어버이장군님 하시던 말씀이

생산된 오리가 일만마리면

공급도 일만마리

생산된 오리가 백만마리면

공급도 백만마리여야 한다시던

광포오리공장은

함흥의 로동계급을 위해

우리 수령님 생전에 마련하신 가금기지라고

광포오리공장을

새 세기의 모범가금기지로

잘 꾸려보자고

선군의 천만리길 헤쳐가시면서도

언제나 마음속에 안고계신 오리공장

하늘같은 그 사랑속에

세상에 자랑높은 대가금기지로 전변되었건만

그래도 마음 못 놓으시며

당부하고 또 당부하시던 장군님

아, 한가지 일을 해도 천만가지 일을 해도

그 모두 빠짐없이

인민에게 덕으로 안겨지게 하시려는

친어버이 그 사랑 있어

보오, 함흥땅 그 어느 가정이나

오리고기로 더 푸짐해진 식탁을,

알뜰한 함흥녀인들의

저 얼굴들에 피어난 웃음꽃은

그 사랑으로 피여난게 아니겠소

이렇게 많은 오리고기를

자주 보내주어 고맙다고

우리가 받아안은 이 혜택을

어버이수령님께서도 아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진정을 담아 하는 그 인사들

나에겐 생각되오

그 모든 인사들은

인민이 위대한 장군님께 드리는

가장 꾸밈없는 감사라고

우리 사는 이 세월은

어버이장군님께서

선군으로 안아오시는 천만복속에

날을 따라 인민의 행복이

커만 가는 세월이여라!

《령북사람》

장편소설 《누리에 붙는 불》, 《붉은 지평선》(상권), 단편집 《령북땅》, 중편소설 《무지개비낀 산발》 등의 창작으로 현대소설문단에 뚜렷한 자취를 남긴 소설가 리병수(주체19(1930). 4~주체76(1987)).

그가 사망한지도 20년이 되었지만 지금도 문단에서는 일명 《령북사람》으로 정답게 불리우고 있다.

리병수의 소설들에 펼쳐진 형상세계들을 종합적으로 음미해볼 때 특별히 주목을 끄는것은 령북특유의 자연에 대한 집요하면서도 정깊은 묘사들이다.

다시말하여 작가의 소설에서 자연묘사는 매우 이채로운 성격을 띠고 두드러진다. 특히 작가의 단편들에서 그 특징이 선명하게 뚜렷이 부각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소설은 문학의 형상수단을 종합적으로 리용하면서 어디까지나 묘사를 기본으로 하고있다.》

작가 리병수의 개성이 자연묘사에 집약되어있다고 단언할 정도로 그의 모든 소설들에는 북부산간의 거대한 자연이 틀지게 박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숨쉬고있다.

자기가 나서자란 고향, 그 옛날 사람 못살 고장으로 불리워 인생의 막바지로 버림받던 곳에 눈물겨운 삶을 뿌리내린 사람들로부터 이웃을 이루고 마을을 이루어온 령북땅에 대한 작가의 남다른 애착은 설음젖은 과거의 자연에도, 어버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 전변의 새 역사를 시작한 오늘의 자연에도 기울어져있다.

북부산간오지의 거세찬 자연에 대한 작가의 열정적인 묘사는 령북의 상징인 눈송이, 눈사태, 눈석이, 눈바람 등 흰눈과 밀접히 결부되어있는것이 특징적이다.

구체적으로 몇개 작품만 실례 들어보자.

단편소설 《설령의 딸》에서 작가는 이런 묘사를 펼쳐보이고있다.

《윤덕로인에 대해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며 걷는 사이에 하늘은 시꺼멓게 흐리고 설핀 눈발이 날리더니 마침내 광풍이 터지고야말았다. 나는 지평이를 꺾어들고 잃어진 길을 찾으며 한발자국 한발자국 힘겹게 걸어나갔다. 바람은 조금도 잠

잠해지지 않았다. 더구나 바람은 나를 맞받아 가시돋은 억수의 눈송이들을 몰아와서는 이마와 코등 그리고 뺨을 쪽쪽 찢어놓곤 하였다. 그러한 순간 눈을 뜨고있다면 아마 얼어든 가시는 눈동자를 꿰뚫고말것 같았다.》

얼마나 직관적이고 화폭적인 묘사인가. 금시 가시돋은 억수의 눈송이가 눈동자를 꿰뚫는듯한 감을 불러일으킨다. 동시에 《나》의 심리가 대변에 파악된다.

단편소설 《령북땅》에도 흰눈에 대한 열정적인 묘사가 하나의 단락으로 자리잡고있다.

《명운이는 맞받아치는 광풍을 싱그러운듯이 들여마시며 털모자를 벗어 이마를 후줄근히 적신 땀방울을 훔쳐냈다. 그는 이제 자기가 내릴 아득한 고개밀을 내려다보았다.

계곡은 온통 눈보라의 도가니로 끓고있다... 방향을 잃은 눈보라의 파문이 마침내 고개마루에 미치자 금시 조용했던 산정은 뽕얀 눈안개속에 잠기여 지척을 분간할수 없고 숨이 꺾꺾 막힌다. 그리고 때를 같이하여 명운이는 몸을 지탱할수가 없어서 비칠비칠거렸다. 량다리에 힘을 주며 뻗쳐선 그는 점점 더 세차게 휘몰아치는 눈보라속에서도 눈을 감지 않고 검푸른 하늘의 은백색으로 일직선을 그은 마천령산줄기를 부풀어오르는 가슴으로 건너다보았다. <젠장, 류다른 땅이다. 이러니 통 사람들이...>

단편소설 《사나운 겨울》도 그 제목부터가 통채로 거대한 자연과 직결되어있다. 여기서는 눈보라에 대한 묘사가 가장 두드러지게 전개되었다.

《일명 <번들이마>라고 하는 사백메터구간의 지점에서 문제가 일어났다. 그 높은 산정의 한 나무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자 솔방울 하나가 눈우에 떨어져서 데구루루 굴기 시작했다.

솔방울이 자기 몸에 눈을 묻히며 굴러간다. 주먹만큼 커졌다. 이젠 동이만큼 되었다. 바위에 부딪쳤다. 수십개의 주먹만 한 눈송이가 굴러가며 수십개의 동이만 한것이 되었다. <번들이마>벼랑이 우시시 몸을 떨기 시작했다. 급경사에 것처럼 두껍게 쌓인 눈이 자꾸 아래로 내려가는 힘을 지니고있었던것이다. 이 작은 충격이 원인이 되어 엄청나게 넓은 경사면이 순간에 우로부터 눈겹질을 벗기 시작했다. 산이 드렁드렁 울린다. 마치

저 산정에서 크나큰 저수지언제가 갑자기 무너져
몇억톤되는 물이 성난듯 쏟아져내리는가?...

또한 눈구름을 일으키며 눈은 쏟아져내린다.
그리고 철길을 덮는다. 돌이 구울고 아릅드리나
무가 와지곤 쏟아져서 범벅이 돼버린다. 매우 짧은
순간에, 조사령이 이제 방금 호박물부리에 붙
여문 담배가 타버린 순간에 이 일이 벌어지고 끝
을 맺은것이다.》

이것은 북방자연의 가장 특징적인 성격-눈사태
에 대한 가장 훌륭한 묘사에 속한다.

보는바와 같이 작가 리병수에게서 흰눈에 대한
묘사는 어떤 개별적인 어휘나 문장들에서 얼핏얼
핏 띄이는 정도가 아니라 웅근 하나의 단락을 이
루면서 큼직하게 덩이져서 이루어진다.

눈송이, 눈사태, 눈바람에 대한 작가의 묘사는
눈에 뜨일 정도로 집중적이며 열렬하다. 그만큼
작가의 소설들에 웅근 단락들로 박혀있는 자연묘
사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산 인간처럼 몸
매가 있고 숨이 있고 목소리가 있다.

이 자연묘사들은 어느때나 순수 자연으로만 안
겨오는 때가 한번도 없다. 항상 그 자연에 접한
인간의 구체적인 심리와 생동한 얼굴이 동시에
비껴있다.

구체적으로 보아 단편소설 《령북땅》에서 명운
이 바라보는 폭설은 령북땅에 뿌리를 내리기 힘
들어하는 실질적인 고충을 폐부로 느끼는 명운의
앞에 거인처럼 막아선 시험관과 흡사하다.

명운은 비칠거린다. 그러나 량다리에 힘을 주
며 뻗쳐선다. 그는 더 세차게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에서도 눈을 감지 않는다.

《젠장, 류다른 땅이다. 이러니 통 사람들이...》
가까스레 그가 터뜨린 결론은 그대로 이 땅에
기어이 뿌리를 내리고야말,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척박한 이 땅에 락원의 봄을 안아오
고야말, 그리하여 사나운 눈보라를 길들이는 령
북의 참된 주인으로 되려는 명운의 심중의 토로
이기도 하다. 그러고보면 작가 리병수는 자연을
남달리 사랑하는 사람이였다.

그는 소설에서 억수로 쏟아져내리는 횡포한 눈
사태, 몰아치는 눈바람도 그지없는 애정을 가지
고 열정적으로 묘사하였고 대지를 포근히 감싸안
는 끝간데 없는 눈이불을 두고도 한없이 그윽한
정서를 담아 묘사하였다.

소설가에게는 순수자연, 언뜻 비추이는 자연이
란 없다. 자연 그자체가 숨을 가진 생명체로서
산성격을 가지고 다가든다. 이러한 북방의 자연
에 대한 특색있는 묘사는 리병수로 하여금 《령북
사람》으로 불리울수 있게 한 뚜렷한 근거로 되고
있다.

소설가 리병수의 특징적인 자연묘사는 오늘 현
대소설문단에서 자기 몫을 뚜렷이 가지고 계속되
는 소설창작에 좋은 경험을 시사해주고있다.

선군시대 우리 작가들은 자연묘사에서 지난날
작가 리병수가 보여준 긍정적인 측면들을 잘 알
고 자기들의 작품창작에서도 자연묘사에 대한 개
성을 뚜렷이 살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할것
이다.

강경선

가사

향토애는 조국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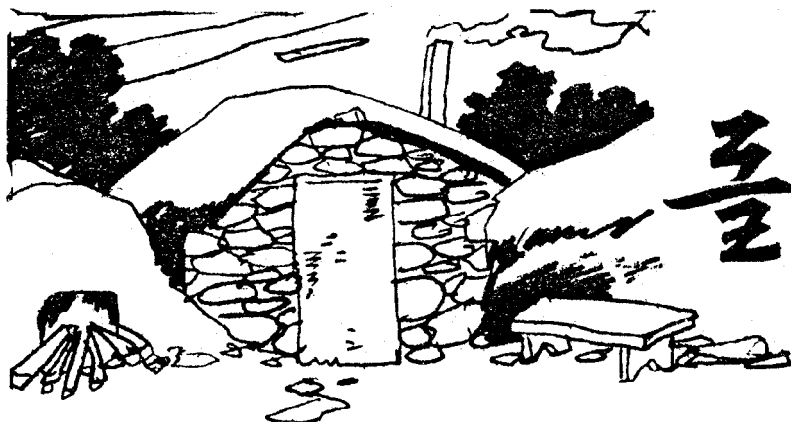
한창우

자나깨나 안고사는 고향은 어디
첫 눈빛에 담았던 어머니모습
조국의 사랑을 알게 한 첫 요람
아 향토애는 조국애

한생에서 못 잊을 추억은 어디
사무치게 안겨오는 정든 고향집

조국의 귀중함을 알게 한 첫 프락
아 향토애는 조국애

멀리 가도 그리움에 찾고찾는 곳
위훈을 떨치고 돌아갈 고향
한목숨 바치여도 내 안길 그 품
아 향토애는 조국애



돌칸 한증

리성덕

한증이란 땀을 내며 몸을 찜다는것을 뜻하는 말이다. 한증은 일종의 민간치료방법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전해져온 민간풍속이다.

땀을 내면서 건강을 위한다는 의미에서 한증은 다 같지만 한증시설과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있다.

한증칸을 통나무나 판자로 꾸린것도 있고 벽돌로 쌓은것, 돌로 쌓은것도 있고 비닐자루속에 전열기를 설치한 이동식한증기구 같은것도 있다.

우리 나라 개성지방의 한증의 특징은 돌로 쌓은 도가니를 가열한 다음 그안에 들어가 땀을 내는것이다.

이 돌칸한증은 개성지방에서 오래전에 유래된 고유한 민간풍속으로서 오직 개성지방에서만 볼 수 있다.

개성돌칸한증의 유래는 오래고 전해지는 이야기도 많다.

1

개성에 사는 홍서방이란 사람이 도공 (도자기 굽는 사람)으로 한창 이름을 날릴 때였다고 하니 유명한 고려청자기가 그 아름다운 색과 우아한 모양으로 세상을 경탄시키던 그 시절의 이야기인 듯 하다.

하루는 이웃에 사는 등짐장사 최서방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무거운 장사짐을 지고 한행보 다녀왔더니 길독이 들었는지 몸이 지긋지긋하다면서 도기가마에 들어가 땀을 좀 내자는것이였다.

사람좋은 홍서방은 껄껄 웃었다.

《임자가 이젠 가마맛이 단단히 들었군, 먼길에서 돌아오자바람으로 여기부터 찾아온걸 보니...》

《그렇네. 가마안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몸이 쭉 풀리고 날것 같이 가벼워지는데 그런 맛을 어디 가서 보겠나.》

홍서방도 뜨거운 가마속에서 땀을 내는것이 그렇게 좋은줄은 몰랐었다.

늦가을 쌀쌀한 어느날 몸살이 나면서 으슬으슬 추워오기에 구운 도자기들을 다 꺼낸 다음 피곤에 몰려 저도 모르게 더운 가마안에 쓰러져 잠이 들었던적이 있었다.

얼마후 잠에서 깨여보니 온몸이 물에 빠졌다 난것처럼 땀에 흠뻑 젖었는데 밖에 나와 땀을 씻고나니 몸이 거뻐해졌다. 몸살도 간데없고 사라지고 몸은 날아갈듯이 가벼워졌다. 무슨 신기한 명약을 쓰고난것 같았다.

그 이야기를 이웃에 사는 동갑또래 최서방에게 하였더니 최서방이 길독을 풀겠다면서 가마를 해치는 날을 기다려서 두어번 땀을 내였다. 그러더니 이젠 한행보 하고나면 의례히 홍서방을 찾아와 땀을 내자고 청얼거리는것이였다.

《허허... 그럼 어디 실컷 땀을 내보게. 마침 가마를 방금 비웠는데 나도 한가한 때이니 자네를 동무해주지.》

이렇게 되어 두사람이 가마속에 들어가 땀을 낼 잡도리를 하였다. 땀을 내면 목이 마를것이 걱정되어 물을 한바가지씩 들이키고 옷을 훌렁 벗어내친 후 뜨거운것을 참으면서 가마안에 들어가 었드려였다.

한동안이 지나자 두사람 다 구운 게처럼 빨강게 익어서 헐떡거리며 가마안에서 기어나왔다. 나오자바람으로 도기가마옆으로 흐르는 찬 개울물에 뛰어들어가 어루-어루-하면서 땀과 재를 씻어내였다.

기분이 날것 같이 좋아진 최서방이 옷을 주어 입으면서 말하였다.

《여보게, 좋은 궁냥이 떠오르네그러. 땀을 내니 아마 머리가 잘 돌아가는 모양일세.》

《그래 무슨 궁냥인데 그렇게 좋아하나?》

《썬수없는 등짐장사로 입에 풀칠이나 하는 신세인데 같은 값이면 이런 땀내는 가마를 만들어

놓고 밥벌이를 해보면 어떻겠나?》

《땀내는 가마? 글썄 그게 밥벌이가 될가?》

《허, 사람들이 이 재미를 몰라서 그렇지. 우리 처럼 한번 맛을 들여만 보지. 주색잡기에 미치면 조상이 물려준 땅마지기까지 저당 잡힌다지만 이 맛을 알면 만사를 제치고 달려올걸세.》

《하긴 그럴법한 일이야. 허지만 아직 사람들이 땀내는 가마가 얼마나 좋은지를 잘 모르고있으니 어떻게 찾아오겠나.》

《자네 말을 듣고보니 그것도 난사로구만.》

최서방은 잠시 무엇인가 생각하더니 무릎을 탁 치며 소리를 쳤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소문을 먼저 내잔 말이네. 가마안에서 땀을 쪽 내면 온갖 독이 빠지고 몸이 거뜨해진다고 소문을 내잔 말일세.》

《옳은 말일세. 그런데 소문만 내는데 그칠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사람들이 모두 임자가 도기가마에 반하듯이 땀내는 가마에 반하게 만들어야 하네. 가마쌍는 일은 내가 도와줄터이니 임자는 우선 벌이의 리속보다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겠는가 하는데 관심을 돌리게.》

《고맙네. 자네가 도와주겠다면 내 꼭 이 일을 성사시키겠네.》

최서방은 벌써 일이 다 된것처럼 좋아하는데 매사에 궁냥이 깊은 홍서방은 일이 잘되게 다시 다짐을 둔다.

《자교로 만사성패는 마음가지기탓이라고 했는데 임자가 리속을 먼저 보려고 하면 일은 틀려질 것이네. 예로부터 우리 나라는 풍속이 아름답고 인심이 어질어서 이웃을 서로 돕고 남을 속일줄 모르며 저를 위해 한가지할 할 때 남을 위해 열가지할 하는것을 미덕으로 일러주었네.

그러니 자네도 이 나라의 순후한 풍속에 어울리게 일을 시작하면 만사람이 받아줄것ियो, 그렇지 못하면 받아주지 않을것이네.》

《알겠네. 명심하겠네.》

이리하여 얼마후부터 최서방과 홍서방은 땀내는 가마를 만든다고 널리 소문을 내면서 돌로 도 자기가마 비슷하나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땀내는 데 편리하게 자그마한 돌가마를 쌓았다.

그런 다음 돌가마안에 나무를 들여쌓고 불을 지펴 가마를 달구었다. 가마가 어지간히 달아올랐을 때 두사람이 먼저 들어가 땀을 내보았다.

도기가마보다 뜨거워 땀은 잘 났으나 나무재가 몸에 묻고 땀에 범벅이 되어 매우 불편하였다.

그래서 재를 긁어내고 거적을 퍼서 가마안을 깨끗이 하였다.

그리고 땀을 낸 후에 몸을 씻는데 많은 물이 들어야 하기에 옆으로 흐르는 개울물을 막아 물을 마음대로 쓸수 있게 하였다.

땀내는 돌가마의 갓춤새가 점점 좋아지자 처음에는 호기심이 나서 찾아왔던 사람들이 다음에는 땀내는 맛을 알고 치료겸 목욕겸 우정 찾아왔다.

그리하여 하루 찾아오는 사람이 다섯손가락을 다 꼽지 못하던것이 날이 가고 소문이 나고 날씨가 추워지자 점점 늘어나서 스물에서 마흔, 손을 넘고 백을 넘기게 되었다.

처음에는 돌가마주인인 최서방에게 고맙다는 인사로 그치던 사람들이 두번째번 오게 되자 빈손으로 오지 않고 보리쌀되박이라도 들고왔고 나무꾼들은 돌가마를 덥히는데 쓰라면서 나무를 한 지게씩 지고오기도 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떤 유식한 사람이 이름을 지어붙였는지 땀내는 일을 《한증》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는데 그 말이 이내 향간에 퍼지었다.

한증이 사람들의 호평을 받게 되자 최서방네 한증칸말고도 이곳저곳에 한증가마들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어느 한증칸은 가마안이 넓고 시원해서 좋다는니, 어느 한증칸은 가마옆에 몸씻는 칸을 붙여짓고 개울물을 안으로 끌어들어서 좋고 어느 한증칸은 가마안에 늘 청솔가지를 넣어두기때문에 향기로운 송진내가 온몸에 배여 며칠을 간다거니 사람들은 모여앉으면 한증칸 이야기로 시간가는 줄 모르고있었다. 3년 앓던 신경통이 한증 세번에 딱 떨어졌다는니, 어느 집 부인네는 산후탈을 한증으로 씻은듯이 고쳤다는등 한증의 놀라운 치료 효과에 대해서도 널리 이야기되었다.

소문이 소문을 내고 자랑이 자랑을 새끼쳐서 개성장안에 한증바람이 일어나고 한증이 크게 유행되었다.

돌칸한증 발기자인 최서방도 남에게 뒤질세라 한증가마도 크게 다시 쌓고 거기에 잇달아 몸씻는 칸도 지어놓았는데 등짐장사를 하던 때보다 사는 형편도 펴 나아졌다.

최서방이 홍서방이 일러주던 말을 명심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잘 대해주고 편의를 보장해주려고 애를 썼기에 개성장안사람들은 모두 최서방네 한증칸을 칭찬하였다.

하루는 열두어살 될가말가한 소년이 앓는 아버지를 업고 한증칸으로 찾아왔다.

아버지의 허리병을 낫게 하려고 효성다하는 그 마음이 기특하기도 하려니와 한증을 시작한 다음 날부터는 큰 보짐을 들고오기에 최서방이 소년에 게 물었다.

《아야, 그래 아버지 병은 좀 차도가 있느냐?》

《예, 허리가 훨씬 가벼워지신대요.》

《음, 그러면 효험이 있는가보다. 그런데 그 보짐은 웬것이냐?》

최서방이 소년이 들고있는 큰 베보자기를 가리키자 아버지되는 사람이 어쭙게 웃으며 대답하였다.

《허허, 글썄 이 애가 내가 한증칸안에 들어가 오래동안 앉아있기 불편해한다구 목침이랑 몸씻을 때 쓸 물바가지랑 버치며 수건따위를 다 꾸러가지고 오다보니 자연 짐이 커졌다우.》

《허, 그랬구나. 그 녀석 기특도 하다.》

최서방은 소년이 들고온 큰 보짐을 한증칸안에 들어 놓아주며 감탄하였다.

(내가 한증칸 주인이라는게 저 애보다 궁냥이 넓지 못했구나.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이 아직 부족한탓이었지.)

최서방은 다음날부터 사람들이 뜨거운 가마안에 들어가 편히 누울수 있게 목침도 깎아 놓아주고 널바가지도 많이 만들어 몸씻는 칸에 내놓았다.

사람들이 최서방의 세심한 보살핌을 고맙게 여기며 칭찬할라치면 그는 《날 칭찬말구 저 애의 효성을 칭찬하시우. 난 저 애한테서 배웠시다.》하고 대답하곤 하였다.

돌칸한증은 사람들의 관심과 애착속에 나날이 그 갓춤새를 완비해가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되었다.

한번은 최서방네 한증칸으로 그 근처에서 사는 박주부라 불리우는 부자가 찾아온적이 있었다.

성은 박씨이고 주부는 벼슬이름인데 대렬에서 쓰는 각종 어물따위를 말아보는 관청인 사재시의 종7품의 말직벼슬이었지만 재산이 많은데다가 대렬을 등에 진 벼슬아치인지라 백성들을 눈아래로 깔보며 제노라 우쭐거리는 위인이었다.

박주부는 성질이 좀 우직스러운데가 있어 살근 살근 에돌아갈줄은 모르는 사람이여서 최서방을 만나자 직방치기로 물었다.

《최서방네 한증칸이 신경통이나 어혈을 푸는데 특효가 있다면서?》

《예. 더러 효험을 보는줄로 압니다.》

박주부는 구미가 동하는지 바싹 다가섰다.

《그렇다면 한증이라는걸 어떻게 하는것인지 좀 자세히 알려주게.》

《한번 해보면 알것인데 구구히 설명할것이 있겠소이까.》

《어험, 무슨 사실이 많은고?》

한증칸이나 드다루며 사는 쌍놈의 주제에 량반 물음에 웬 대답질인가 하는 말투였다.

《황송하옵습니다. 한증이야 하는 사람 편리할대로 하는것인데 그걸 어떻게 한다구 어찌 말로 다 여쭙겠소이까.》

《음... 하긴 그렇겠군. 그렇다면 내 물음에 대답하게. 그래 웃은 아주 훌쩍 벗어나야 하나?》

《예. 실오리 하나라도 걸치면 불편합니다.》

《량반쌍놈 다 한가마안에 들어가앉아야 하나?》

《예. 한증칸안에서는 상하빈부귀천이 따로 없소이다.》

《허- 그제 난사로군. 쌍놈들과 같이 벌거벗구 한가마안에 들어가앉다니...》

박주부의 속심을 그제야 알아차린 최서방은 이 미욕한 놈을 좀 골탕먹여야겠다고 생각했다.

사실 박주부는 오랜 관절염에 시달리는데다가 몇달전에 말에서 떨어진 일까지 있어서 그 어혈

을 풀어보려고 한증칸을 찾아온것이였다.

그런데 소문과 같이 벌거벗구 쌍놈들과 한가마안에 들어가앉는다니 량반체면에 그것이 제일 게름직하고 천하에 못할 일로 여겨졌다.

박주부는 불룩한 배를 슬슬 끌어만지면서 넋지시 물었다.

《그래 한증 한번에 값은 얼마가?》

《따로 정한게 없소이다. 쌀되박이나 들고오는 사람도 있고 나무 한지게 지고오는 사람도 있고...》

《하루에 몇사람이나 한증을 하나?》

《딱 짚어 말할수는 없으나 겨울철이면 좀 많아 백명내외구 여름철이면 선명내외올시다.》

한동안 속셈을 해보던 박주부는 드디어 용단을 내린듯 《값은 후하게 쳐줄터이니 한증을 나 흔자하게 해주게.》하고 청하였다.

《혼자서요?》

최서방은 매우 딱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글쎄올시다. 다같이 병치료를 하는 처지인데 어찌 남은 못하게 하구 제 혼자만 하리까. 날자와 시간을 정해놓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껏 해온 한증을 이제와서 그 만두면 그동안의것이 다 무효가 되니 랑패중에도 큰 랑패가 됩니다.》

《아따, 남이야 랑패를 보든말든 걱정도 팔자로군. 값은 후하게 주겠단니까. 하루 선이면 선, 백이면 백명 값을 다 물면 될것 아니겠나.》

최서방은 동안을 두었다가 진중한 어조로 말하였다.

《값이 중한게 아니라 한증에도 레절과 법도가 있는것이니 그것이 제일 중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가 어째?》

박주부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그렇게 못한다는건가?》

최서방은 얼른 한손을 접으며 《주부어른, 그러지 마시고 내 말을 좀 들으시오.》하고 곱살긋게 말하였다.

《원래 한증은 혼자서 하면 위험도 하거니와 멋이 없소이다. 뜨거워 숨이 껍껍 막히는 가마안에 혼자 앉아있다가 아차 실수하여 정신이라도 잃게 되면 그안에서 가도오도 못하고 구운 계신세가 될판이고 또 여럿이 우스개소리도 하면서 앉아있으면 뜨거움도 견디기가 한결 험하답니다.》

옷을 벗고 수건으로 머리를 덮어 동이고 들어가면 누가 누구인지 알수 없으니 체면이 상할것두 없소이다. 소인이 주부어른께 따로 특별봉사를 할터이니 모르는척 하구 그냥 들어가십시오.》

누군지 모르니 체면 상할것도 없다는 소리가 그럴듯하게 여겨져서 박주부는 마음이 한결 누그러졌다.

《특별봉사라는건 또 뭐가?》

《주부어른께서 갈증이 날세라 때맞추어 꿀물이 나 시원한 팽수를 들여보낼터이니 아무 소리 말고 앉아서 받아 드십시오.》

《그럼 값은 따로 물지 않겠네.》

《주부어른의 병치료에 효험이 있으면 소인은 그것을 제일 후한 값으로 여기겠소이다.》

《좋네. 그렇게 하세》

체면 상황 녀려도 없고 공짜에다 특별봉사까지 하겠다니 박주부는 두말없이 불룩한 배를 안은채 수건으로 상투를 꼭 덮어둥이고 킁킁한 한증가마 안으로 기여들어갔다.

화끈 단 열기에 숨막히는듯 한 순간이 지나가자 향기로운 송진향기가 가슴속으로 녹녹히 흘러들었다.

(홍, 쌍놈들이 하는짓이 제법이로군...)

박주부는 심술궂게 코살을 찡그리고 광술불밑에 앉아있는 예닐곱쯤 되는 사람들을 살펴보았다.

어둑시근한데다가 모두 벌거벗은 한모양새여서 누가 누구인지 알이볼수가 없었다.

(차라리 잘되었지. 내 얼굴을 아는 놈이 있어도 알아보지는 못하겠군...)

살가죽이 녹녹해지면서 한창 땀이 내솟을가 하는 때에 도가니안으로 심부름 드는 아이녀석이 들어오더니 《박주부어른님. 어디 계시와요?》 하고 물었다.

박주부는 대답할가 하다가 량반관리명색에 이런데 들어와 벌거벗고 앉아있는 구차스러운 꼴을 보이지 않으려고 우정 잠자코있었다.

그런데 저쪽구석에서 《여보게, 박주부를 찾네.》 하는 말소리가 나더니 뒤이어 《응, 박주부가 여기 있다.》 하고 나서는 사람이 있었다.

(저게 웬놈이야?)

눈이 휘둥그래져서 나서는 사람을 살펴보니 체통이 장사같이 큰데 땀에 번들거리는 구리빛몸뚱이에 근육이 울근불근한게 만만치 않은 왈패같아 보였다.

《우리 주인님이 보내는 꿀물이니 받으세요.》

《응? 꿀물을... 그것 참 고맙구나!》

그 왈패같은 사람은 꿀물대접을 받아서 우선 한모금 마시더니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돌려가며 골고루 마시게 하였다.

(저런 패썽한 놈, 남의 꿀물을 가로채서 제 얼굴을 내다니...)

박주부는 그 꼴을 더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꼭 숙이고 앉아있는데 누군가 주먹으로 옆구리를 쿵 찼었다.

《임자도 한모금 마시게.》

박주부는 자기를 제 동무 대하듯 하는 그자가 패썽하기도 하고 복받치는 심술을 더는 참을수 없어서 저도 모르게 《그런건 안 마신다!》하고 껍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대접을 탁 쳐버렸다.

그러자 대접이 한증칸바닥에 툄렁 떨어져 땡글 땡글 나뒹굴었다.

심부름은 아이가 다급히 대접을 주어들고 나가자 박주부라면서 나섰던 체통 큰 왈패같은자가 《저건 어디서 굴러온 덜된 작자야? 동냥은 못 줄 망정 쪽박은 깨지 말했는데 대접은 왜 내동댕이쳐?》하고 눈알을 사납게 굴리었다.

《저런 덜된것들이 끼여들어서 서로 위해주는 한증칸의 좋은 분위기를 망친다니까...》

《홍, 별 시러배자식을 다 보겠군. 저런 덜된 놈은 도가니밖으로 몰아내야 해.》

박주부는 쌍놈들이라고 속으로 아니꼽게 여기던 사람들에게서 난생처음으로 별별 쌍욕을 다 듣는게 분한데다가 그 체통 큰 왈패같은 작자가 남의 이름을 도적질하여 이런 일을 벌여놓은것이 분명하기때문에 그만 참지 못하고 또 껍 소리를 질렀다.

《이놈들, 감히 어디다 대구 주둥이질이나? 그 래 네놈이 박주부라니 그게 사실이나? 어디 그 것 부터 밝혀라!》

그러자 체통 큰 사나이가 꺄꺄 웃으면서 빈정거렸다.

《허허... 별놈 다 보겠군. 남이야 박주부던 백주부던 네놈에게 무슨 상관이나?》

《글쎄 어디서 저런 오라질 작자가 들어와서 한증칸분위기를 다 망쳐놓나 말일세. 천득이 저 사람 별명이 박주부라는거야 세상이 다 아는데 저 놈은 어디서 굴러왔기에 그것두 모르구 비린 목 청만 돈구고 앉아있나 말일세.》

(뭐? 별명이라구?)

박주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것을 느끼며 입을 다물어버렸다.

박주부를 찾을 때 제가 대답을 안했기때문에 그런 별명을 가진자가 대신 나선것인데 잘못을 따지면 자기에게 있는것이였다.

(젠장, 천한것들과는 어울리지 못하겠군.)

더는 한증할 기분도 없었을뿐더러 잘못하다는 더 큰 망신을 당하기가 심상이라는것을 깨달은 박주부는 껍소리 한마디 못하고 앉아있었다.

그런데 천득이라는 체통 큰 사나이가 끝내 불집을 일으킬 잡도리인지 트집을 걸었다.

《그래 내 이름이 박주부가 아니면 어쨌셈이나?

네놈이 정말 수상쩍은 놈이 분명하구나.》

《웁거니. 그놈의 본색을 까밝히세. 다같이 벌거벗은 처지인데 꿀물도 안 마시겠다구 재세하는 놈이고 보면 썩은 뜨물을 콧 퍼먹여서 내쫓아야 마땅할것 같네.》

《허허... 그것 참 묘안일세. 꿀물이 싫다는 놈이니 썩은 뜨물이 제격일세.》

《이에 쇠동아, 심부름 드는 녀석을 불러서 뜨물 한사발 퍼오라고 일러라. 콧 썩은걸로 말이다.

아따, 뭘 꾸물거리느냐? 어서 거적을 들치고

밖에다 소리를 지르라니까.》

사람들이 기가 올라 떠들어대자 쇠동이라는 충각이 거적을 들치고 밖에다 대고 뜨물 한사발 떠오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심부름 드는 아이가 거적을 들치고 들여다보며 물었다.

《아니, 뜨물은 해서 뭘해요?》

《여기 꿀물은 안 마시고 뜨물을 찾는 작자가 있어서 그런다.》

《예? 원 별사람이 다 있네.》

《잔사설 말구 어서 퍼오지 못해!》

《예, 알았사와요.》

일이 이렇게 번져지자 박주부는 오금이 저려났다.

그저 트집이나 룡으로 그칠 잡도리가 아니었다.

무슨 망신살이 뻗쳐서 한증칸에 들어왔나 하고 후회하였으나 이미 었지른 물이라 어찌하는수가 없었다.

궁지에서 빠져나갈 일이 급해진 박주부는 그래도 량반관리이랍시고 한번 더 호통을 뿜어보았다.

《이놈들, 뭐가 어찌구 어찌? 사람을 몰라봐도 분수가 있지 내가 바로 박주부다. 박주부.》

《뭐? 박주부라구?》

이 구석, 저 구석에서 수군거리며 사람들이 약간 주춤거리는 기색이었다. 그러더니 아무래도 못미더웠던지 한사람이 용기를 내어 물었다.

《아니, 그 대궐에서 주부벼슬 사는 박주부어른 이시란 말이우?》

《어힘, 그렇지 않으면 이 아근에 무슨 박주부가 또있다더냐?》

《허- 모를 소리다.》

물어보던 사람이 고개를 기웃기웃한다.

《박주부는 내가 잘 아는 어른인데 점잖은데다가 품채좋은 량반이시지. 꿀물, 엿물, 단것이라면 오금을 못쓰는분인데? 꿀물을 사양하는것을 보면 뭔가 석연치 않아.》

《흥, 그러니 저 사람은 가짜박주부임이 분명하네 그러.》

《가짜인지 진짜인지 별거벗구 앓았으니 알수가 있나. 량반부자라구 날 때부터 이마에 써놓은것두 아닌데...》

《옳은 말일세. 별거벗구보면 량반부자나 쌍놈이나 다 같지. 량반부자는 날 때부터 불쑥이 세개라면 몰라두.》

《허허허...》

《하하하...》

박주부는 호통을 뿜어보았지만 여전히 궁지에서 빠져나올 길이 묘연하여 전전긍긍하고있었다. 이제 뜨물을 퍼먹이려고 여럿이 달려들어 억지다짐을 해대면 혼자서 무슨 망신을 당할지 모를판이었다.

(에라, 체면이고 뭐고...)

급해진 박주부는 뒤편을 뺏더니 네발걸음으로 엉금엉금 기어서 한증칸밖으로 도망쳐나갔다.

《저 내뻐는 꿀을 좀 보게.》

《뜨물 먹을 일이 아무래도 반갑지 않은가부지?》

《하하하...》

심술부리던자가 나가버리자 사람들은 마음이 홀가분해져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런 작자들은 한증칸법도를 착실히 익힌 다 음에 들여놓아야 해.》

《저렇게 심청 비뿔어진자들은 한생이 다 가도 그걸 못 익힐거네.》

《암, 그렇구말구. 헌데 오늘 최서방이 그놈의 버릇을 톡톡히 가르쳐주었군. 이 사람 천득이, 최서방이 아까 임자한테 그놈을 혼쌀내라고 귀뜸을 해주던가?》

채통 큰 천득이가 빙글빙글 웃었다.

《하다마다요. 꿀물을 들여보낼터이니 먼저 나가서 받아마시고 트집을 걸면서 버릇을 가르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놈이 제 먼저 꼬리를 사렸으니 그쯤으로 그쳤습니다.》

한증칸에서 다시금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사람들의 웃음소나기를 잔등에 받으며 엄금엄금 기어나오던 박주부는 손에 든 뜨물대접에만 눈길을 주며 거적문앞으로 다가오는 아이와 얼굴에 부딪쳤다.

그 순간 아이가 들고있던 대접에서 알각 쏟아져나온 썩은 뜨물을 박주부가 흠뻑 뒤집어쓰고말았다.

한증칸은 겨우 피해나왔으나 재앙은 끝내 피하지 못한셈이었다.

바른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한증도 편히 할 수 없다는 생활의 교훈이 담겨진 이야기여서 이 한토막의 우스운 일화는 한입 건너, 두입 건너 오래오래 전해졌다고 한다.

2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이 흘러 수백년이 지나갔다. 그동안 한증도 그 면모가 많이 변하였다. 변하지 않은것은 한증칸주인을 그때나 이때나 《최서방》으로 부르는 그것뿐이라 할가. 수백년어간에 최서방네 가문에서는 장수가 난것도 없고 그 시절에 그렇게 흔하디흔한 생원, 진사 한사람 난것도 없었지만 최서방 하면 개성장안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고스란히 한증칸하나를 지켜 내려와서 유명해졌으니 이것이야말로 최서방가문의 자랑이였고 개성의 자랑이었으며 이 나라의 자랑이기도 하였다.

리조 중엽쯤 되는 어느해 봄날, 최서방네 한증칸으로 이웃마을에 살면서 새로 한증칸을 꾸려놓은 더벅머리총각 춘득이가 찾아왔다.

《저 최서방님, 좀 가르쳐주세요.》

《뭘 말인가?》

《이 집 한증칸에서는 언제보나 사람들이 흥성이구 노래소리, 웃음소리가 들리니 그게 어떻게 된 까닭입니까?》

사람 좋은 최서방이 꺾꺾 웃었다.

《허허... 한증꾼들이 기분좋은김에 썸세기도 하고 뽕지거리로 노래도 부르는 모양일세.》

《썸세기는 왜 한답니까?》

《그것은 대체로 서너가지 이유때문이라고 할수 있지. 우선 몸을 덥히는 시간을 무료하게 보낼수 없기때문이고 그다음은 한증시간을 정확히 가늠하기 위해서이며 견디기 어려운 뜨거움을 흥취나는 덕두리로 잠시라도 잊어보려 하는 까닭일세.

그래서 썸세기를 하는것을 <가늠>한다구 하지 않나? 임자가 한증칸안에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게. 자연히 썸세는 리치가 알린다네. 한증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위해주자면 한증의 리치를 알아야 하거든.》

《알겠어요.》

춘득이는 최서방의 말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면서 옷을 벗고 한증칸안으로 들어갔다.

한증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증칸 분위기를 느껴보기 위해서였다. 소나무를 태워서 한증칸을 달군데다가 싱싱한 청솔가지를 넣어둔 까닭에 화끈한 한증칸안에서는 송진내가 진하게 풍겨왔다.

광술불이 희미하게 비치는 킁킁한 구석쪽에서 누군가가 열심히 《가늠》을 세고있었다.

한대 맞고 하는 소리 한일자로 아뢰리라
일편단심 다진 맹세 한 랑군만 섬기리라
한개 형장 맞았다고 한마음 변하리라
아니되오 아니되오 허락이란 웬말이요

두대 맞고 하는 소리 두이자로 아뢰리라
이팔청춘 이내 몸이 두 랑군 섬기리라
두개 형장 맞았다고 두 마음 가지리라
아니되오 아니되오 허락이란 웬말이요

춘향이가 형들에 매여 매를 맞으면서도 절개를 지키는 모습을 매를 세는 형식을 빌어 일, 이, 삼... 순서로 열, 백까지 엮어나가는 썸세기노래였다. 그쪽에서만 춘향전이나, 이쪽에도 춘향이 있다는듯 다른쪽구석에서 누구인지 석유탄 목소리로 좀 다른 류형의 춘향전을 풀어내리기 시작하였다.

렐너춘향 거동 보소 렐너춘향 말 들어보소
왔구나 왔구나 그 사람이 왔구나
거렁뱅이신세하고 네 서방이 왔구나
어서어서 죽기 전에 실컷 만나보렴

아니아니 누가 왔나 서방님이 오시다니
옥살창썹으로 손이라도 만져보세
행인거지 되었다고 사람팔시 아예 마소
잘났어도 내 랑군 못났어도 내 랑군

춘향전 썸세기노래가 그칠만 할 때 나라에는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농사일에 힘쓰는 우리 농군네 생활을 담은 노래가 여기 있다는듯이 구석쪽에서 청높은 소리로 엮어대기 시작하였다.

우리 부모 나를 낳아 애지중지 키울적에
이웃간에 화목하고 친구간에 의리깊고
웃사람을 존경하고 아래사람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성하고 나라에는 충성하라
하였거늘

춘득이가 가만히 앉아들으니 썸세는 노래는 그 종류가 다양하고 내용에 제한이 없는 즉흥적인 흥얼거림인데 그 흥취도 흥취이지만 뜻이 깊어서 새겨들을 맛이 있었다.

어떤것은 옛문인들의 시조를 자기 식으로 두루 맞추어 부르는 열치기덕두리같았지만 듣고보니 고향자랑, 나라자랑이 폭 배여 있는것이였다.

팔도강산 유람할 때 천마산(개성의 산이름)을 굽어드니

비류직하삼천척 (곧추 날아떨어지는 폭포수가 삼천척이라는 박연폭포의 바위에 새겨진 옛시의 한구절)

예가 바로 박연일세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감을 자랑말아

일도창해하면 (한번 바다에 이르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여감이 어떠리

이 노래가 춘득에게 제일 인상깊이 들리였다.

천마산, 박연폭포라는 소리가 친근하게 들리는 데다가 뒤에 덧붙은 시조 역시 어릴적부터 많이 들어온 개성의 녀류시인 황진이의 시조여서 그랬을가.

어쨌든 춘득은 한증칸에 없어서는 안될것이 썸세는 노래라고 생각하면서 덥고 숨이 막히는것을 참고 귀를 기울이였다. 썸세는 노래는 노래자체에만 흥취가 있는게 아니라 부르고 넘겨받는 광경이 또한 흥취롭고 들을만 하였다. 누구나 뜨겁고 숨가쁜 경황이어서 목청을 오래 뽐자면 매우 힘들기때문에 한사람이 썸을 세고나서 《서른이요!》하고 크게 웨치며 넘기면 받는 사람이 얼른 《서른은삼십이요 삼십은 서른인데...》하고 받아준다. 또 넘기는 사람이 《원이요!》하고 넘기면 받는 사람은 《원이면 오십이요 오십은 원인데 절반

이나 가운데나 증둥이나...》하면서 신이 백의 절반이고 가운데이고 증둥이 된다는 뜻으로 썸세기를 재롱스레 해대는데 웃음이 절로 난다. 한증칸이 뜨겁고 시간도 어지간히 흘러서 더 참기 어려운 절정에 이르게 되면 썸세기도 빨라지고 빨리 세는데도 묘리가 있어서 《한가늠, 두가늠, 서이, 너이, 다아, 여, 일구, 여들, 아후, 백이요!》하고 락식으로 썸을 세는데 열을 세기가 잠시이고 백을 세기가 잠깐이다. 썸을 세는 사람들뿐 아니라 듣는 사람들도 그 썸수자가 많고 적음으로 시간을 가늠한다.

이날 춘득이는 정말 많은것을 보고 배웠다.

《최서방님, 많이 보구 갑니다.》

춘득이가 한증칸을 나서며 인사를 하고 가려고 하자 최서방이 불러세웠다.

《이 사람, 한증을 하고나면 뜨끈한 설령탕이든 단고기이든 얼벌벌하게 한그릇 먹어야 하네. 이리 오게.》

최서방은 더벅머리총각을 데리고 한증칸에 잇달려있는 설령탕집으로 들어갔다.

《땀을 많이 흘리고난 뒤라 반드시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하네. 우리 나라 속담에 불은 불로 끄렸다고 한증뒤에는 반드시 뜨끈한 국물을 훌훌 불어가며 먹는게 제격일세. 한증칸마다 설령탕집이 잇달려있는것은 다 그때문이라네.》

최서방은 총각을 상앞에 앉힌 후 친절하게 설령탕 한그릇을 청해서 먹고 가게 하였다.

춘득이는 그 후더운 인정이 고마와 최서방을 마음속으로 존경하면서 크고작은 한증칸일을 다 그에게 물어서 하군 하였다. 하루는 이렇게 물었다.

《한증이 5독을 풀어준다는 말이 있는데 그 5독이란 뭐나요?》

최서방은 생당쑥뿌리곰팡대에 잎담배를 다저넣으면서 빙그레 웃었다.

《그래 그런 말이 있지. 한증이 사람의 몸에서 다섯가지 독을 풀어준다는 말인데...》

최서방이 담배쌈지에서 부시를 꺼내여 뒤서너번 탁탁 치자 빨간 불티가 멧궁멧궁한다. 불이 당기여 물물 연기가 피어나는 부시쑥을 곰팡대에 담고 뿅뿅 소리를 내며 빨아서 불을 붙인 다음 최서방은 첫 모금을 맛스레 삼켰다가 후- 하고 후련히 내뿜고나서 천천히 말을 시작하였다.

《5독이란 쏘는 사람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네만 첫째로는 주독(술을 잘못 마신 후파)이고 둘째로는 음독(음식을 잘못 먹은 후파), 셋째로 색독(성생활을 잘못된 후파), 넷째로 로독(과도한 로동의 후파), 다섯째가 길독(먼길을 걸은 후파)일세. 어쨌든 한증이 사람들의 몸에 생긴 <폐실물>들을 말끔히 씻어주는 좋은 방법이라는것은 명백하네.》

최서방의 사심없는 방조를 받으면서 춘득이는 한증칸을 추세우려고 무진 애를 썼다.

매식을 건느는 날은 가끔 있어도 한증칸에 불

을 지피지 않는 날이 없었다. 한증군이 있건없건 도가니를 덥혔고 한증하러 온 사람들이 빈손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마음껏 한증을 하고 가게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평산에 사는 큰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왔다. 어려서 부모를 잃은 그를 키워준 큰아버지였다. 춘득이는 처음으로 한증칸 문을 닫고 며칠간 빈집을 보아달라고 최서방에게 부탁하고 떠나게 되었다. 떠나는 길에 최서방에게 들린 춘득이는 천으로 정성 다해 감싸고 바느질로 꼼꼼히 기워 봉합을 한 짚신짜만 한 물건을 내놓으면서 말하였다.

《이건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남긴 유물인데 이 춘득이한테는 보물이라고 할지, 가보라고 할지... 그런거웨다. 집을 비우고 갈수밖에 없는 형편에서 최서방님께 맡겨야 마음 놓일것 같습니다.》

최서방은 선선히 물건을 받았다.

《내가 간수했다가 줄터이니 녀려말구 다녀오게.》

그가 떠난지 이틀후 한낮이 좀 지났을 때 최서방이 춘득이네 빈집과 한증칸을 두루 살펴보고 돌아오는데 봄철 꽃샘바람이 살랑거리는 고개너머쪽에서 타래치며 날려오는 연기가 보이였다.

산불이 난가부다 생각하며 급히 고개우에 올라서 보니 불은 자기 마을에서 아니, 자기 집에서 났다. 한증칸일이라는게 열과 불을 다루는것이여서 불이 나기 쉽기때문에 늘 주의하느라 했건만 끝내 일이 나고야만것이다. 집도 초가지붕이요, 한증칸웃설미와 몸뚱이는 칸도 다 초가지붕인탓에 불은 당기자마자 견잡을수없이 번져진것이였다.

두주먹을 부르쥐고 달려가보니 벌써 불은 집과 한증칸지붕에 달리고 불길은 바람을 타고 날려서 한증칸에 잇달린 설령탕집까지 휩쓸어가고있었다.

한증을 하던 사람들과 설령탕을 먹던 손님들이 다 뛰어나와 발을 구르며 아우성을 쳤으나 불을 끌수가 없었다. 최서방이 마당에 들어서자 반정신 나간 마누라가 달려와 매달렸다.

《아이구, 집이 이 모양이 되도록 령감님은 어디에 나다니시우?》

《춘득이네 한증칸을 돌아보고 오는 길이야.》

순간 최서방은 춘득이가 말기고간 물건이 생각났다.

(아차, 그 물건이 보물이고 가보라 했는데...)

최서방은 무작정 불기등이 치솟아오르는 방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연기와 불길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아 손더듬으로 장농을 찾아내자 돗자물쇠가 걸린 문을 부시고 그안의 물건들을 끄집어냈다. 마누라가 아끼던 옷가지들과 함께 구석쪽에서 춘득이가 말기고간 물건이 나왔다.

그것을 집어들자 최서방은 쿨룩쿨룩 기침을 하면서 문쪽으로 내뿜였다. 그 순간에 와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불달린 서까래가 최서방의 머리우에 무너져내렸다. 최서방이 이웃집 사랑방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불을 끈 뒤였는데 불은 꺾

다기보다 탈대로 다라서 저절로 스러진것이었다.

집은 연기에 까맣게 그을리고 반나마 허물어진 벽체만 서있고 한증칸은 돌로 쌓은 도가니만 앙상하게 남았다. 건진것은 타지 않는 물건인 쇠가마와 오지항아리, 낫그릇 몇개, 자루가 타다남은 호미와 낫 몇가락뿐이었다. 정신이 드는 순간에 최서방은 벌겋게 된 손아귀에 그때까지 짝 움켜쥐고있던 짚신짝만 한 꾸레미를 먼저 살펴보았다. 겉을 싼 천이 불길에 약간 눌었을뿐 물건은 무사하였다. 최서방이 안도의 숨을 내쉬는것을 본 마누라가 《예구, 령감은 그게 댜대 목숨과 바꾸려 들었수?》하고 눈물을 흘리며 지청구를 했다. 그러자 최서방은 아무말없이 한동안 눈을 감고있다가 대답하였다.

《이게 목숨보다 더 귀한것이야. 춘득이에게 보물이면 우리에게 두 보물이겠지 흠덩이겠나.》

며칠후 큰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춘득이는 마을사람들에게서 그동안의 일을 다 듣고나서 최서방을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하였다.

《겉에 감은 천이 조금 늘어졌네만 안의 물건은 별일 없을걸세.》

최서방은 불길속에서 건져낸 물건을 춘득이앞에 내놓았다.

《정말 고마와요. 어머님이 남긴 유물이어서 저에게나 귀할뿐이지 형님에게야...》

춘득이가 겉에 감은 천을 풀자 까맣게 윤기도는 달비 한뭉음과 수수한 은비녀 한개가 나왔다.

《그런 말 말게. 임자가 나를 믿구 그 귀한것을 맡기었는데 내 어찌 레사물건으로 치겠나. 믿음과 의리는 물건과 바꿀수 없는것이구 돈이나 재산으로 그 값을 칠수 없는것이라네. 나는 가산을 다 잃었어도 의리를 잃지 않은걸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네.》

이웃집 허청간에 림시 거처를 정하고 누워있으면서 최서방은 조금도 락심하거나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

《최서방님, 한증칸도 집도 다 불타 없어졌으니 이젠 어찌하겠습니까. 이 춘득이를 아들삼아 우리 집에서 함께 삽시다.》

《이 사람, 그 진정이 고맙네만 나는 한증칸이 없어졌다고 생각지 않네. 그게 수백년을 전해져 내려온 아름다운 풍속인데 불에 탔다고 없어지겠나. 불태울수도 없구 전란으로도 막을수 없는게 풍속일세. 우리 고조, 증조할아버지때에도 전란을 여러번 겪었는데 한증칸이 불타구 허물어진적이 어찌 한두번이였겠나. 그래두 한증은 없어지지 않았네. 백성들이 만들어 아껴오는 풍속인데 어찌 불타 없어질수 있겠나.》

최서방은 아직도 상한 몸이 개운치 않은지 쿨럭쿨럭 기침을 하면서 힘겹게 말했다.

《이제 내 힘으로 한증칸을 다시 일으켜세우겠네. 이만 한 일에 뜻을 굽혀서야 한증을 지켜내지 못하지.》

춘득이에게서 최서방의 말을 전해들은 마을사람들은 한증을 지켜내기 위해 조금도 굴하지 않는 최서방의 굳은 마음에 깊이 감복하게 되었다.

《한증칸일이 어찌 최서방 개인의 일이겠나. 우리모두의 일이구 마을의 일이지. 그러니 우리모두가 도와나서자구.》

마을사람들은 모두 떨쳐나서 최서방네 한증칸을 다시 꾸리는 일을 돕기 시작하였다.

기동감, 서까래감을 찍어다 다듬고 흙을 파서 이기고 바르고 하더니 한달만에 이전보다 훨씬 번듯한 한증칸을 다시 일떠세웠다. 온 마을 사람들이 새로 일떠선 한증칸앞에 모여서 축하하자 최서방이 진정을 담아 한마디 하였다.

《여러분네들의 성의에 떠받들리어 한증칸이 다시 일어섰소이다. 이 한증칸은 최서방의 한증칸이 아니라 여러분네의 한증칸이웨다. 그러니 마음놓고 아무때든지 리용하시우. 이제는 한증이 없어서는 안될우리네 생활의 벗으로, 향기로, 풍속으로 자리잡혔소이다. 지키고 가꾸어야 풍속도 아름다와지구 향기로와지구 영원히 이어지는것이니 이 최서방이 없어도 여러분네가 있으면 이 한증칸은 없어지지 않소이다.》

더벅머리총각 춘득이가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최서방의 말을 받았다.

《웁은 말입니다. 저 최서방님에게 일전에 우리 부모님이 남긴 유물을 보물처럼 간수해달라구 맡겼더니 집과 가산을 다 불태우면서도 그것만은 목숨으로 지켜주었소이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고마움을 잊을수 없습니다. 나도 이웃사이의 의리를 재산보다 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한증칸을 더 잘 지켜나가겠소이다.》

마을좌상로인이 흰 수염을 내리쉴며 흡족해하였다.

《다들 웁은 말일세. 집안의 가풍이나 마을의 기풍이나 나라의 풍속이나 다 그런 마음으로 가꾸고 받들어나가야 더 아름다와지는것일세.》

풍속이 아름다와지면 사람들이 아름다와지고 사람들이 아름다와지면 나라가 아름다와지고 빛나는 법일세.》

마을사람들은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최서방과 춘득이가 마련해 내놓은 막걸리사발을 돌려가면서 오래오래 이야기를 나누었다. 동산에 달이 동실 떠오른 다음에야 아름다운 생활과 풍속을 이 땅에 이루어놓고 가꾸고 지켜내는 사람이 다름아닌 자기들자신이라는 자랑으로 가슴이 그들먹해져서 흥얼흥얼 코노래를 부르면서 헤어져들 갔다.

승리한 병사는 전호에 있다 외 1 편

한광춘

하얀 대돌우에
그대는 레복입고 서지 않았다
그대 가슴에선 아직
달아오른 총신이 식지 않았다
전승기념탑의 승리한 병사여

전호를 박차고
비발치는 탄우속을 내달리던 그날처럼
최후의 결사전을 앞에 둔것인가
조국의 하늘가에 마지막미소를 보내며
이제 포사격을 자기에게로 부르려는것인가

총창을 비껴들고 포화천리
그대 지나온 산과 들엔 꽃이 피었는데
그대 높이 든 공화국기발아래
행복의 거리는 곧게 뻗고
아이들은 뛰놀며 하얀 연 띄우는데

승리한 병사!
그대는 풀지 않았구나
포연에 그슬린 신들메를

타고있구나 그대 발밑에선
락동강의 불모래 선혈이 물든 그 한줌한줌이

병사여
원췌를 무찌르며 진격으로 내달던
피어린 싸움의 길이
전승의 그날에 끝나지 않았음을
전승기념탑우에 새 전호를 정하고
웨치는 병사여

그대앞에서 내 듣노라
가렬한 전투의 저기 저 언덕으로
나를 부르는 어머니조국의 목소리를
그대앞에서 내 심장에 채우노라
섬멸의 불, 멸적의 총탄을

아, 승리한 병사는 오늘도 전호에 있거니
보통강기슭을 찾는 사람들이여
조국을 위하여
그대들이 설 삶의 위치 여기서 찾으라
승리, 승리가 앞에 있다!

빛나는 모습앞에서

대지를 차고 올라 구름을 안았는가
구름발 휘감고 만리창공 날으는가
밤하늘의 천리마여
온몸에서 내어뿜는 그 빛발
황홀하여 눈부시고
눈부시여 이 심장 뿔뿔누나

우러르면 지금 별들은
너의 발굽아래를 스치며 흘러가는듯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빛을 안고
승리에서 또 승리로
봉우리에서 더 높은 봉우리로 너는
빛발쳐가는듯

기세차구나
네굽을 뻗쳐 내려쳐오르는 네가 빛이더냐
순간에 천리를 내닫는 그 빛이 천리마더냐
장군님 펼쳐주신 강성대국의 려명
천만빛살에 다 담고 솟음치는 천리마여

불타누나 환희롭구나
우리 장군님 동터오는 첫새벽
전선고지에서 맞으시던 노을빛이 물들었는가
눈발을 말아올리며 령 넘어 달리던
야전차의 그 불빛이 빛발마다 어렸는가

고난의 눈비 내려도 흐린적 없고
시련의 불구름에도 꺼진적 없는 너의 밝은빛은
아름다운 미래를 불러 더 밝은 려명을 불러
현신의 낮과 밤 불태워오신
우리 장군님 크나큰 심장의
무한한 빛과 열이거니

세계를 향해 돌진하는
조선의 기상 그 위용을 실어
새 세기의 하늘가에
우리 장군님 더 높이 빛내주신 천리마
그 어디서 보아도 너는 빛나는 한모습
그 어느때 보아도 너는 나래치는 한모습

네 밧에서 나는 보노라
 보다 휘황한 래일에도 활짝 열린
 노래속의 선경마을 불빛은 창문들을
 불야성 비껴실은 행복의 강줄기들을
 전변의 드넓은 대지에 넘치는 해살을

아 하늘엔 별무리
 땅우엔 불빛무지개 황홀한 평양의 이밤
 머리들어 바라보면 천리마여 너는
 강성대국의 령마루에서
 세상을 굽어보며 빛을 뿌리는
 선군조선의 찬란한 모습이어라!

찬란한 문화, 슬기로운 인민

삼국시기 식생활풍습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들속에서 민속적으로 전해오는 좋은 관습들에는 민족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정신적품모와 정서가 반영되어있습니다.》

우리 나라 식생활풍습은 삼국시기에 이르러 더 발전하였다.

삼국시기의 음식재료는 원시시기와 고대부터 전해오는것들이 대부분을 이루었다.

삼국시기에도 그 이전시기와 같이 농업생산을 위주로 하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알곡작물을 식생활에 리용하였다. 이 시기 주식물재료는 종래에 심고 가꾸어오던 벼, 조, 피, 기장, 수수, 밀, 보리, 콩, 팥 등이었다.

삼국시기의 부식물재료는 남새, 산나물, 고기, 물고기 등이었다.

삼국시기의 주요한 부식물재료는 남새였다. 그 가운데서 기록으로 알려진것은 부루, 가지, 마늘, 아욱, 무우 등이다.

삼국시기에는 산나물과 들나물도 부식물재료로 리용하였다.

삼국시기 음식재료의 다른 하나는 고기였다.

소, 말, 돼지, 닭, 오리, 개 등을 길렀으며 꿩, 메돼지, 노루 등을 사냥하였다.

더우기 삼국시기에는 개를 많이 길렀다. 지어는 조선개가 좋아서 외국에까지 기념물로 나가는 때도 있었다.

삼국시기에도 물고기는 부식물재료로 널리 리용되었다.

《해동역사》에 전하는 삼국시기의 물고기를 보면 새우, 조기, 가재미, 송어, 붕어, 송어, 웅어 등이 있다. 또한 우리 나라의 동해에서 많이 나는 가재미, 큰새우 등과 서해에서 많이 나는 조기, 보가지 등은 삼국시기이전에 이웃나라에까지 알려졌다으므로 삼국시기에도 우리 인민들은 이러한

물고기를 즐겨 먹었을것이다. 그리고 고구려때 동해사람 고주리가 고래의 눈을 바쳤다는 기록이 있는것으로 보아 고래고기도 식생활에 리용했을 것이고 설화기사에 잉어를 기른 이야기도 있으니 고구려에서 큰바다짐승과 함께 민물고기를 식료원천으로 했음을 알수 있다.

세나라의 산과 들에서는 복숭아, 추리, 배와 밤이 일찍부터 재배되며 식생활에 리용되었다.

조선의 특산의 하나인 인삼도 이미 삼국시기에 외국에까지 널리 알려졌다.

삼국시기에는 이미 시전, 장, 행상이 있었으며 그것을 통하여 호상교류가 진행되었다. 고구려시기 행상들은 벌에서 생산되는 알곡과 바다가에서 생산되는 소금, 수산물을 산간지대에서 나는 털가죽, 약재, 목재 등과 교역하였다. 이러한 상업을 통한 호상교류는 다종다양한 식료품생산을 추동하였으며 식생활수준을 높일수 있게 하였다.

이와 함께 삼국시기에 이르러 우리 민족음식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조리법이 전 시기와는 비할바 없이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고대와 마찬가지로 삼국시기의 주식물은 역시 밥이었다.

삼국시기의 부식물로서는 국, 고기료리, 회, 젓갈과 각종 물고기료리, 나물료리, 부루를 비롯한 남새가 있었다.

삼국시기에는 주식물과 부식물의 가지수가 늘어나고 요리법이 발전하는데 따라 조미료와 음료도 함께 발전하였다. 삼국시기에는 술의 종류도 여러가지였고 그 양조기술도 높았다. 조미료로서는 마늘, 소금, 기름, 꿀, 간장, 된장 등이 있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우리 인민들은 창조적인 노력으로 삼국시기에 벌써 후세에 볼수 있는 대부분의 주식물과 부식물, 음료와 조미료들을 갖추으로써 식생활을 여러모로 발전시켜나갔다.

시의 흥취와 멋

-대학동창에게 보내는 편지-

김덕선

얼마전 나는 나의 대학동창생으로부터 한통의 편지를 받았다.

편지의 내용인즉 주체95(2006)년 《조선문학》 잡지 8호에 발표된 《칠보산기행시초》(리근지작)에 대한 자기의 소감을 전해오면서 평론을 드문히 쓰는 나의 견해로써는 어떠한가 하는 다시 말하여 이 시초에 대한 논의를 제기해온것이였다.

문학의 푸른 꿈을 안고 대학시절의 나날 감론을박하면서 작품론의에 열을 올리던 흥안의 그 시절처럼 머리가 희어진 오늘에도 이런 논쟁을 걸어온 동창생에 대해 무등 기쁘게 생각하면서 곧 회답편지를 썼다.

×

홍동무!

오래간만에 동무와 함께 직품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반갑습니다.
편지의 회답을 나는 먼저 한편의 시로 적어보려 합니다.

칠보산기행시초

한편 두편 보노라니

칠보산의 절경 예 다 있는듯

무엇이라 말을 하라 시의 절묘함

편편마다 시요 그림이라

편편마다 가락이요 춤이라

무엇이 좋고 무엇을 싫다 하랴

그래서 네 또한 칠보산산수시 아니라

아마도 이것은 이 시초에 대한 나의 느낌이라 할가. 이 시초야말로 산수시다운 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홍동무의 요구대로 이 시초의 형상이 가지는 우단점에 대하여 기탄없이 말해보려고 합니다.

시를 읽고나면 가장 인상적인것은 이 시초의 편편마다에는 시의 흥취와 멋이 깃들어있다는것입니다.

그러면 시의 흥취와 멋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시에만 고유한 서정과 운율일것

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시의 서정은 운율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다른 문학작품의 서정과 구별된다. 시에 운율이 없으면 음악성도 없어지며 음악성이 없는 정서는 시의 서정으로 될수 없다.》

이 시초에서 시의 흥취, 서정은 무엇보다먼저 칠보산의 자연정서가 안고있는 아름다움을 심장으로 느끼고 뜻이 깊게 노래함으로써 내 나라의 아름다움이 가지는 의미를 정서적으로 해명하고 있는데 있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칠보산의 아름다운 자연은 긴긴 세월 자기의 자태를 드러내며 어제와 오늘에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이 아름다움을 누가 어떻게 보고 무엇을 아름다운것으로 보는가에 따라 그 자연의 아름다움이 가지는 참다운 의미가 있는것입니다.

《칠보산기행시초》가 가지는 시의 새로운 의미는 조국강산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시의 정서가 단순히 산수풍월을 노래하는 정서가 아니라 5천년 이 나라 력사우에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조국강산의 아름다움을 이 땅우에 안아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에 있는것입니다.

시초는 이러한 의미를 시의 서정적바탕으로 하고 칠보산의 아름다움을 한편의 시와 한쪽의 그림, 즐거운 노래가락과 춤이 절로 나는 시로 되게 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정서적감흥을 자아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흥취를 이루는 이 정서적바탕은 시초의 시 《덕수골 쌍폭포》에서 절절하게 울려나오고있습니다.

...

수정물 한웅큼 떠마시니

가슴을 흔드는 호탕한 웃음소리

이 명소 보지 못했으면 후회라시며

인민들 다 보게 하라신 장군님음성

금시라도 들려와라

그 옛날 이 쌍폭포엔

선녀들만 내려 노닐었다지만

우리치는 물소리 산 산을 흔들어
천길땅속 울리며 스며들고
폭포담 물은 하얗다 못해 푸르려
내 맘속까지 물들이네

...

이 시를 읽노라면 산천을 울리는 폭포소리가
금시 들려오는것 같고 담소의 파란물이 무심턴
마음마저 적서주는것만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 《벽계수에 붓을 적서》에서는
기암괴석의 황홀한 모습과 함께 산발을 떠받들고
용용히 내리쬐는 폭포가 장쾌한 가락을 련상시켜
줍니다.

이렇듯 《칠보산기행시초》는 시가 있는가 하면
그림이 있고 노래가 있는가 하면 춤이 있는 흥취
와 멋으로 내 나라의 자연정서가 가지는 아름다
움이 참으로 우아하고 정가롭고 류창한 맛을 가
지고 감칠맛있게 느껴집니다.

시초는 이러한 흥취를 시의 서정으로 포착하고
여기에 서정적주인공의 심리정서를 직접 개방시
키고있는데서 자연정서에 대한 찬탄만이 아닌 시
대의 기상이 나래치게 하고있습니다.

여기에 이 시초가 가지는 서정이 있고 시형상
의 탐구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면 이 시초가 가지고있는 시의 멋이란 또
어떤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내 나라의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하며
끝없이 사랑하는 시인의 민족적자부심을 민족고
유의 정서에 맞는 시적운물에 태워 노래하고있었
다는것입니다.

지난 시기 산수시에서는 자유시의 운물적특성
을 살리지 못하고 우리 나라 중세기 《강호시가》
의 전형적운물이었던 정형물을 크게 벗어나지 못
한 편향들도 없지 않았습시다. 그러나 이 시초는
자유시의 운물적정서에 맞게 시의 운물을 자유자
재로 조성하면서 서정적주인공의 심리정서가 두
드러지게 함으로써 시의 운물이 가지는 자연스러
운 정서를 잘 나타내고있습니다.

그 운물수법을 분석해보면 시전반에 3·3조와
4·4조의 운물을 기본형식으로 취하면서 그것을
시적정서에 구애됨이 없이 음절수를 늘꾸었다 줄
였다 하면서 자유시의 정서적운물을 음악적인 룰
동속에 보여주고있습니다.

시 《덕수골 쌍폭포》에서

내릴 때는/ 하늘/ 끝에서/

옥당목/ 두필을/ 드리운것 같더니/
쨍으며/ 흘날리는/ 물보라는/
눈부신/ 구슬인가/

...

시 《벽계수는 흘러가는데》에서

나에게/ 금수강산을/ 다 안겨준/
조국아/ 너를 떠나/ 한신들/ 내 어찌 살리/

시 《로적봉》에서

가슴치며/ 깊어지는/ 생각/
어서 가자/ 농장벌로/
어서 가서/ 나도/
이 강산/ 빛낼/ 난가리/ 쌓으리/

이와 같이 시의 운물적정서의 기본단위를 3음
절과 4음절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리고 자유자재
로 변경시키면서 서정적주인공의 심리정서를 개
방하고있습니다.

시의 이러한 운물조성은 이 시초의 멋을 돋구
는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놓고있습니다.

시초 《칠보산기행시초》는 이러한 시의 흥취와
멋으로써 시초의 총적사상을 시 《5천년력사우에》
에서 이렇게 주장하고있습니다.

...

내 나라 생겨 반만년
세월의 락엽에 묻혀
이름없던 바위와 산들에
고운 이름 플라 지어주신 장군님

그 사랑 그 손길에 받들려
바위돌 하나하나 시이고
부는 바람 피는 꽃도 노래되어
강산에 비껴가는 행복의 메아리

칠보산아 세월이 네 아름다움 세웠더니
우리 장군님 잠자던 너를 깨워
5천년력사우에 선군절경으로
인민의 휴양지로 세상으뜸 안아올리셨구나

보는바와 같이 시초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
시여 5천년력사우에 누구도 이르지 못한 선군절
경이 빛나고있음을 긍지높이 자랑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시의 흥취, 서정은 아름다운 조국강산

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민족적자부심에 토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민족의 정서는 위대한 령도자에 의해서만 지켜지고 빛나고있으며 흘러가는 력사와 더불어 계승되고 고수되고있음을 미확정서적으로 확증하고있습니다.

여기에 이 시초가 이룩한 사상예술적성파가 있고 내조국강산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시의 새로운 의미와 형상의 탐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초는 홍동무도 아쉬움을 금치 못하며 말하였지만 일련의 부족점도 있다고 봅니다. 시의 양상적특징을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취급하였으면 하는 동무의 의견에 동감을 표시하면서 저로서 생각되는 점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홍동무도 금강산을 탐승하여 알고있겠지만 구룡연을 찾아가는 입구와 만물상에는 뜻이 깊으면서도 짧은 시가 등산객들의 눈길을 끄니다.

그 시의 내용을 더듬어보면 《나는 청산이 그리워 산으로 올라가는데 물아 너는 어찌하여 산을 뒤에 두고 내려오는가》, 《인류 천만년에 말과 노래 다 끊어진 곳에 금강산아 네가 솟아있구나》, 《위태로울사 저 바위 너 떨어지려 한지 몇천만년인가》로 기억합니다.

얼마나 간명하면서도 뜻이 깊게 담긴 시들입니까.

이 시들은 뜻이 깊을뿐아니라 그 뜻을 표현하는 시인의 재치가 탄복할 정도로 보이고있습니다.

칠보산의 절경을 후세가 두고두고 외울수 있는 단마디명창의 그런 명시가 없겠는가 하는것입니다. 시초 6편중 시의련들은 대체로 4, 5, 6련을 이루고있으며 제일 짧은 시가 2행 5련인 시 《벽계수는 흘러가는데》입니다.

탐승의 길에서도 잊지 않고 노래처럼 부르고 외울수 있는 한두줄의 짧은 시를 누구든 꼭 써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가 이 시인의 이 시초에서 볼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의 음악적인 멋을 돈구는 운률조성에서도 좀더 탐구적정열을 기울였다면 시행의 음절수들을 좀더 정제하여 시적운률의 절제미를 더 잘 나타낼수 있게 할수 있는 여지들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시초 《칠보산기행시초》는 총체적으로 독자들에게 칠보산의 아름다움을 감수하고 조국의 자연을 사랑하는 애국주의정신을 심어주는데 적극 기여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 시단의 자랑이며 이러한 시로 선군시대 시문학의 화원을 장식하는 또 하나의 재능있는 시인을 발견하게 된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홍동무!

동무의 요구에 충족을 주지 못할수도 있으며 시의 분석에서 미흡한 점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초의 우결함에 대한 분석에서는 홍동무와 일치되고있다는것을 표시하면서 보다 많은 독자들과 전문가들의 논의를 위해 이 회신을 출판사에 보내어 편집출판하게 한다면 우리 문학운동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무의 작품창작에서 성과를 기대합니다.